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국문초록

이 논문은 청나라 말기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옌푸(1854-1921)를 통하여 그의 정치주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면서 중국이 서양사상을 수용한 과정에서 생긴 변용모습 및 옌푸의 복잡한 심리활동을 제시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근대 중국의 지식인들이 서양사상을 수용한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근대를 인식하기 위해 보다 심층적으로 규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서 신해혁명 발발 전에 온화한 수단인 입헌군주제 아니면 격렬한 수단인 혁명을 통하여 민주공화제를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큰 논쟁점으로 부상되었다. 이런 선택에 직면했을 때 옌푸는 일평생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고 폭력혁명을 통한 민주공화제를 반대했다. 본문은 옌푸가 “왜 입헌군주제에 그렇게 성실히 고수했는지”라는 핵심질문을 둘러싸고 연구하였다. 그의 정치주장의 일관성을 탐구함으로써 정치사상의 연속성 문제를 더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근현대 사상사의 전체적인 맥락과 변용과정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말 입헌제의 역사적 맥락, 전제정치의 옌푸의 견해, 옌푸의 입헌제구상 및 국체논쟁에 대한 옌푸의 주장 등의 4 가지 핵심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시계열적 해석방법으로 표면적인 현상에서부터 사물의 본질로 연구질문을 켜켜이 파고들었다. 동시에 핵심질문을 가능한 전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왜 옌푸가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그렇게 선호했는지”, “왜 당시의 입헌파 인물간에 서로 협력을 이루지 못했는지”, “옌푸의 고수는 청나라 유민(遺民)의 집착과 어떻게 달랐는지” 또 “루소사상이 왜 일본에서는 중국만큼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는지” 이런 4 가지의 작은 질문을 통하여 핵심질문과 연결하여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어학적 측면, 현실환경적 측면, 사상적 측면, 방법론적 측면에서 이 4 가지의 차원에서 본 연구의 핵심질문을 규명할 것이다.

역사경험에 따른 점진적인 변혁사상과 개인적 자유를 본위로 한 진화사상은 옌푸의 정치사상 중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그의 정치적 주장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우리는 현대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그의 합리적인 여러 주장을 부인할 수 없고 또 현대정치의 변혁과 발전을 위해 소중한 반성거리를 제공해 받기도 하였다.

주요어: 옌푸, 국민수준, 진화, 점진, 교육, 지방자치, 입헌, 신정(新政), 공화, 혁명, 전제, 자유, 루소사상, 외주(外籀)

학번: 2013-22441

<목차>

I. 서론……1

1. 문제제기……1
2. 선행연구 검토……7
3. 연구방법 및 내용……11

II. 청말 입헌제의 역사적 맥락……14

1. 입헌제의 개념과 전통적 시대배경……14
2. 입헌사상의 발전과 청말신정의 전개……17
3. 혁명운동의 전개 및 국체간의 논쟁……26
4. 청말신정과 민국초기 기간 옌푸의 활동……33

III. 전제정치에 대한 옌푸의 견해……39

1. 서구정치사상의 수용……39
2. 중국전제정치에 대한 인식……42
3. 전제정치에 대한 비판과 수긍……48
1) 전제군주제에 대한 비판……48
2) 우민(愚民)정책에 대한 비판……50
3) 언론과 사상 자유에 대한 주장……51

IV. 옌푸의 입헌제구상……57

1. 입헌제의 제기……57
2. 입헌제의 내용과 특징……60
1) 의원(議院)의 설립……61
2) 대의제, 정당제 및 다수의 통치……64
3) 입헌제에 맞추는 국민수준……65
3. 입헌제의 핵심: 지방자치……66
4. 입헌군주 구국론에 대한 성찰……70
1) 영국식 입헌군주제에 대한 선호……70
2) 입헌파 간의 차이……74

V. 국체논쟁에 대한 옌푸의 주장……79

1. 혁명공화제에 대한 반대……79
2. 입헌군주제에 고수하는 원인분석……85

1) “공화”에 대한 다른 해석……86
2) 진화사상에 대한 집념……88
3) 국민수준에 대한 우려……91
4) 지리조건의 제약……98
5) 중화민국 초기 국내외 정세의 영향……101

3. 루소사상에 대한 비판……105

1) 천부인권론에 대한 반대……108
2) 사회계약론에 대한 반대……110
3) 외주(外籀)적 방법론에 대한 반대……114

VI.결론……119

참고문헌……127

Abstract……131

표 및 그림 목차

<표 2-3> 혁명파와 입헌파간 주요 관점의 비교……30
<표 3-1> 옌푸의 정체구분……40
<그림 3-1> 정치체제에 대한 옌푸의 수용……42
<그림 4-3> 지방자치 주장의 전후변화……70

I. 서론

1. 문제제기

옌푸(1854-1921)는 중국 근현대 사상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사상가이다. 19 세기 후반부터 20 세기 초반까지 서양문명이 점차 동양으로 밀려온 시대에 살았던 옌푸는 청나라 말기에 서양에서 나온 수많은 명작을 번역하여 최초로 서구의 학술과 정치사상을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소개한 인물이다. 그는 서구 정치사상을 통하여 망국멸종의 위기에서 생존을 구함을 제창하였고 당시의 애국식자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제공하여 근본적으로 전제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구(舊)사상을 타파하였다. 옌푸의 정치사상은 무술(戊戌)시기는 물론 그 후 신해혁명 및 중화민국 성립 후에도 중국사회에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근대국가 형성 과정 중 다른 나라의 애국 지식인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하였다.

마오쩌둥은 "1840 년 아편전쟁 패배부터 많은 선진 중국인이 천신만고 끝에 서구에서 구국진리를 탐색해 왔다. 그 중 홍수전(洪秀全), 캉유웨이(康有爲), 옌푸(嚴復)와 손문(孫文) 등은 중국공산당이 출현하기 전에 구국진리를 찾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들로 꼽힐 수 있다."[1]라고 말한 바가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옌푸는 다른 3 명에 비하여 친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지명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오늘날까지 그의 넓고 깊은 사상체계는 잘 인식되지 못해 왔다. 옌푸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는 그 인물 자체의 연구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근대화 과정 중 겪었던 고민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지혜 등 여러 면의 모습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의 근대는 오늘날의 중국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근대를 바로 보기 위해서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도 하다.[2] 총괄적으로 말하면 흘러간 역사를 잘 정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옌푸의 정치사상을 이해하고 이를 교훈과 귀감으로 삼는다면 오늘날 사회의 안정과 발전 및 국민성을 한층 더욱 계발하고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전제정치의 폐해를 객관적으로 비판하면서 서구정치사상을 적극적으로 전파했던 옌푸는 일평생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면서 폭력혁명을 통한 민주공화제의 설립에 반대했다. 그는 일생동안

[1] 毛澤東, "論人民民主專政",『毛澤東選集』(北京: 人民出版社,1986), p.695

[2] 嚴復, 양일모 옮김,『정치학이란 무엇인가-중국의 근대적 정치학의 탄생』(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서문, p.9

청일전쟁(1895), 무술정변(戊戌政變, 1898), 의화단사건(義和團事件, 1900), 신해혁명(辛亥革命,1911), 홍헌제제(洪憲帝制,1916)[3] 부의복벽(溥儀復辟,1917)[4], 1 차세계대전(1914-1918), 5.4 운동(1919) 등 일련의 중대한 사건을 경험하였다. 그 중 분수령 사건으로 간주되는 청나라 멸망(1912)은 그의 입헌군주제의 주장이 전반기 (전제와 입헌군주제의 대결) 와 후반기(입헌군주제와 민주공화의 대결)로 나눠지는 계기가 된다. 이런 역사 속에서 옌푸의 정치사상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를 겪었지만 그는 시종일관 입헌군주제를 주장해 왔다. **청나라 멸망 전에는 입헌군주 구국론은 적용될 대상과 실시될 정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가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왜 청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입헌군주제를 변함없이 고수했던가?** 청나라 멸망 후에도 입헌군주제를 고수한 것은 항상 후퇴반동이라는 명분으로 비판받아왔다. 지금 이런 명분을 빌려서 반복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으며 그 사상의 정체 모습을 복원하여 득과 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만이 당시 옌푸 주장의 본뜻을 독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단순한 정치적 비판은 여러 질문에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옌푸와 황제가 된 위안스카이에 대해 비일관적이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견지하였는가 하는 비판이 그러한 예이다. 그래서 정치사상을 분석할 때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그 사상적 내면의 심층적인 요인과 결합하여 다시 생각해 보면 관성적 사고에서 나온 답과 다른 답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 근현대 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옌푸를 중심으로 그의 정치주장의 일관성을 탐구함으로써 옌푸 정치사상의 연속성을 더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근현대 사상사의 전체적인 맥락과 변용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도 할 것이다.

오늘날 옌푸의 정치사상에 관하여 더 상세하게 탐구할 분야가 아직

---

[3] 중화민국 시기, 위안스카이(袁世凱)가 1915 년 12 월부터 1916 년 3 월까지 황제라 자처하여 '홍헌제(洪憲帝)'라고 칭한 후 중화제국을 만들었다. 공화정을 폐하고 제정(帝政)으로 복고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위안스카이가 실각하면서 무산되었다.

[4] 장훈(張勳)복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917 년 7 월 1 일부터 12 일간 장훈이 오직 12 살의 청나라의 폐위한 황제인 부의를 복위시킨 사건을 가리킨다. 부의복벽과 홍헌제제는 모두 다 공화제 정체를 군주제 정체로 바꾸기 위해 시도한 사건이지만 차이가 있다.
홍헌제제는 이미 실권을 장악한 위안스카이가 개인적 독재를 도모하기 위해 전제정치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동사건인 반면 부의복벽은 허군공화(虛君共和)를 주장한 복벽파가 청나라에 집착한 유민(遺民)과 같이 실권이 없는 폐제(廢帝)를 다시 추대함으로써 개명전제를 거쳐 최종적으로 입헌군주제를 달성하는 데에 목적이다.
복벽파의 정치적 보수주의의 이론적 근거는 중국이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고 서양을 따라잡으려면 안정적인 사회 정세가 필요하며 당시의 상황에서 안정을 원한다면 황제체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관념사란 무엇인가-1 이론과 방법』진관타오. 류칭펑 지음, 양일모.송인재.한지은.강중기.이상돈 옮김(푸른 역사 출판사, 2010), p.216

많이 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여전히 부족하며 심지어 오해도 많은 것이 실정이다.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이 다 폭력혁명을 통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학술연구가 항상 혁명사관(革命史觀)을 찬양하고 적지 않은 사람에게 혁명이 사회변혁을 추진하는 유일한 길로 간주되는 착각이 정착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그러므로 온건한 형태의 정치이념을 시종일관 제창했던 옌푸에게 적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사실 옌푸의 입헌군주제와 손문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파가 국가를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하여 국가의 생존과 부강을 도모하고자 했던 점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점이 없음을 볼 수 있다. 다른 점은 입헌군주파는 청나라 황실을 보존하여 폭력적인 혁명이 가져올 거대한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 개혁의 코스트를 줄이자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평화로운 변혁을 주장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천적으로도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며 근대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현재의 영국이나 일본처럼 입헌군주제도 가능한 역사적 선택 중의 하나이었다. 물론 폭력적 혁명도 그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만 혁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혁명의 가치도 사회변혁 및 국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어느 정도 폭력혁명을 통하여 정권을 쟁취하는 것이 사회진보의 상징이지만 사회변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혁명을 위해서 혁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잘못된 인식이 수립되었으며 결국 문화대혁명(1966-1976)으로 인하여 국가의 사회발전에 심한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뼈아픈 교훈은 지금도 기억할 만하다. 그러므로 관성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옌푸에 대해 맹목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온건변혁의 합리적인 견해를 공정하게 분석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중국과 서양의 사회의 차이를 잘 알고 있었던 옌푸는 언론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청일전쟁 시기부터 근대중국과 서구열강의 발전과 상황을 전제군주와 입헌군주라는 이 두 가지 정치제도의 대결로 간주했다. 그는 서구국가의 부강이 단순히 부유해서가 아니라 입헌제에 달려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 “영국은 부(富)로 강해진 것이라고 삼,사백년 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다. 부때문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입헌의 미(美, 장점)때문에 강해진 것이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이 강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은 모두 입헌을 실시한 뒤 생긴 일이다.”[5]
>
> (英國以富而爲强者, 三四百祀于茲矣。非富而爲强也, 實以立憲之美而爲强

[5] 몽테스키외, 嚴復옮김,『法意』(上)(北京: 商務印書館, 1981), p.427

也.惟美, 惟法, 惟德莫不强者, 而皆立憲而後有此.)

"오늘날의 국가들 중 비(非)입헌(국가)이 입헌(국가)과 대결하면 (비입헌국가의) 땅이 크든지 작든지, 인구가 많든지 적든지 (입헌국가를) 이길 리가 없다."[6]

(今世之國, 以非立憲, 以與立憲者角, 即以大滋小, 以眾滋寡, 將萬萬無勝理.)

러일전쟁 중 러시아가 일본에게 진 것도 바로 전제정치와 그에 따른 제도가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반복하여 논증하였다. 또 그는 우승열태의 천연(天演)규칙에 따라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청나라의 입헌을 독촉했다.

"지구 상의 즐비하게 존재하는 여러 방국 중 우승자는 천(天)에 따라 홀로 번창한 반면 열등자는 자연에 도태된다. 이것은 심히 두려워할 만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중국 민지(民智)가 아무리 유치하더라도, 또 국가의 낡은 제도가 아무리 엄격하더라도 한마디로 생존을 구하려면 변법입헌을 하지 않을 수 없다."[7]

(列邦異種, 林立地球, 優者以順天而獨昌, 劣者爲自然所淘汰, 此非甚可懼者耶!由此言之, 將無論中國民智幼稚如何, 國家舊制嚴立何若, 一言求存, 則變法立憲不可以已.)

1902 년 옌푸는 발표했던『주객평의』(主客平義)라는 글에서 중국 수천년의 전제정치 영향 하에 국민에게 형성된 사상관념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고 무리하게 혁명을 주장하면 민중간의 의견불화로 인해 유혈충돌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혁명의 담론이 남북에 널리 퍼져 있다. 혼란을 평정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옳은 일이요, 다스림을 버리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이 다스려져야 부강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혼란을 부르짖어 자강을 도모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혁명의 담론은 혼란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겠는가?"[8]

(乃今者革命之談,遍南北矣,夫撥亂反正可也,棄治從亂不可也.聞國治而后富强者矣,未聞倡亂以圖自强者也,革命之談,非倡亂耶?)

---

[6] 王栻,「法意按語」,『嚴復集』(北京:中華書局 1986), p.996

[7] 孫應祥, 皮后鋒, 「論國家于未立憲以前有可以行必宜行之要政」,『嚴複集補編』, (福建:人民出版社, 2004) p.42-43

[8]「主客平議」,『嚴復集』,p.117

1903 년 그는『군기권계론』(群己權界論)의 서장에서 “전사(前史, 프랑스혁명)의 경험을 감안하면 혁명을 말해 주지 말아야 한다. 혁명은 우리 나라에 이득이 없다[9]”라고 하였다. 1905 년 런던에서 옌푸는 손문과 만날 때 중국국민의 민품(民品)과 민지(民智)이 비열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교육개량에 있어야 하고 혁명주장을 반대한다고 확실하게 주장했다.[10]

신해혁명 전 옌푸는 전제정치를 반대하기 위해 입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공화혁명을 분명하게 반대했다. 중화민국이 세워진 후에도 그는 예전처럼 “공화”라는 정치제도를 배척하면서 입헌군주제를 고수하고 있었다. 위안스카이가 꾸몄던 홍헌제제가 실패한 후 부득이하게 제제(帝制) 취소를 선언했고 정치적 실각에 직면했을 때 옌푸는 위안스카이가 수립한 군주제를 사상적으로 동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만약 국내에 국가를 보존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안(袁)씨가 외롭고 위급한 틈을 노려 마침 그와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더욱 온건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선발하여 약법(約法)을 수정할 수 있다. 그(위안스카이)의 권력을 손상시킴으로써 입헌을 기초로 삼으며 앞으로 국세(國勢) 가 안정해지고 국민도 진화해짐에 따라 진(進)은 공화를 이룰 수 있고 퇴(退)는 복벽을 도모할 수 있다”.[11]
>
> (使國有人，而以存國為第一義者，值此袁氏孤危之時，正可與之為約，公選穩健之人，修約法，損其政權以為立憲之基礎使他日國勢奠安，國民進化，進則可終於共和，退則可為其復辟.)

또한 1917 년 옌푸가 평소에 무시했던 장훈(張勳)이 청나라의 폐위된 황제를 추대하여 왕위에 다시 복위시킨 것에 대해 “혈성남아(血性男兒)의 충효지사(忠孝之事)[12]”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서도 적어도 4 번(1917 년 1 월 24 일, 2 월 28 일, 4 월 26 일, 5 월 30 일)이나 정치체제를 언급하고 두번이나 일말의 생존 기회가 군주복위에 달려 있다고[13] 말하면서 3 번이나 중국이 공화제를 세우는 것에 반대했다[14]. 1920 년말에 질환의 고통에 시달린 옌푸는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

[9]『群己權界論』未刊稿. “不佞鑒於前史，竊愿公等勿言革命，革命絕非吾國之利也.”

[10]「侯官嚴先生年譜」,『嚴復集』,p.1550;“中國民品之劣，民智之卑，即有改革，害之除于甲者將見於乙，泯于丙者將發於丁。為今之計，惟急從教育上著手，庶已逐漸更新也.”

[11]「與熊純如書」,『嚴復集』,p.629

[12]「與熊純如書」,『嚴復集』,p.671

[13]「與熊純如書」,『嚴復集』,pp.662,669

[14]「與熊純如書」,『嚴復集』,pp.662,663,667

“하나님이 염황(炎黃, 중국)의 운명이 다한 것을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다. 인간세계에 언제 육비(六飛)가 또 나타날 수 있는가?”[15] 여기에 “육비”란 여섯 마리의 말이 끄는 고대 제왕이 타는 마차를 가리킨다. 위의 언론을 통하여 옌푸가 평생도록 입헌군주제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신해혁명 발발 전에 구국방식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방안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그 중 대체 온화한 수단인 입헌군주제 아니면 격렬한 수단인 공화혁명을 통하여 정치변혁을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가장 큰 논쟁점으로 부상되었다[16].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옌푸를 제외하고 캉유웨이와 량치차오는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들의 입헌군주제 주장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함으로써 옌푸가 주장하는 입헌군주제의 주요특징을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비슷해 보이는 주장간의 혼선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를 통하여 다윈(Darwin), 스펜서(Spencer), 헥슬리(Huxley) 등 서구사상가에서 진화관념의 영향을 받았던 옌푸와 달리 영어를 잘 모르는 캉유웨이와 량치차오의 진화사상은 전통국학에서 깊은 영향을 받아서 주로 공양삼세(公羊三世)[17] 와 금문개제(今文改制)에 의거하여 생긴 것이다. 캉유웨이가 주장한 위에서 아래까지의 급격한 정치변혁과 달리, 옌푸는 고민력(鼓民力), 개민지(開民智), 신민덕(新民德)[18] 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수준이 먼저 향상되도록 교육시키면서 아래에서 위까지 점진적으로 교육을 통하여 실시한다고 주장하였다. 만년의 옌푸는 무술정변 시기에 입헌군주제를 모색한 실패원인을 되돌아볼 때 캉유웨이와 량치차오 사제를 이렇게 평가하였다.

> “우리나라 갑오, 무술부터 변고(變故, 사건)가 적지 않았다. 해내(海內)에서 (남들에게) 본보기처럼 간주해 온 선생과 제자(師弟)는 캉유웨이와 량치차오로 먼저 꼽힐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복된 것이라고 간주하는데 나는 화수(禍首)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치변혁에 대해 방해가

[15] 「陽崎尚書廟扶乩, 有羅真人者降, 示余以丹藥療疾, 賦呈四絕」,『嚴復集』,p.412
“天公應惜炎黃盡, 何日人間有六飛？”

[16] 『共和國的追求與挫折-辛亥革命與中華民國的成立』(香港:商務印書館,1992),p.60

[17] 인간사회의 발전이 거란세(據亂世, 군주전제), 승평세(昇平世, 군민합치), 태평세(太平世, 민주공화) 이 3 단계를 통하여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18] 鼓民力이란 국민의 체력을 고무시키고 충분히 발휘하게 한다는 것이다. 아편을 피우는 것, 여자 전족(纏足) 등을 금지해야 하고 여자 교육을 제창하는 것이 그 예이다. 開民智란 국민의 지혜를 계도하고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과거시험을 폐지하고 전통학문에 반대하고 서구과학교육을 제창하는 것이 그 예이다. 新民德이란 의회를 설립해야 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풍조를 조성하는 것이 그 예이다. 「原强修訂稿」,『嚴復集』,pp.27-31

너무 많기 때문이다…"[19]

(吾國自甲午, 戊戌以來, 變故為不少矣。而海內所奉為導師, 以為趨向標準者首屈康, 梁師弟。顧眾人視之, 則以福為首, 而自僕視之, 則為禍首。何則？政治變革之事, 蓄變至多…)

물론 청나라 멸망 전의 몇년간에 량치차오의 개량주장은 그의 선생인 캉유웨이와 점점 멀어지고 옌푸와 가까워지지만, 옌푸는 여태 량치차오와 협력해 본 적이 없었다. 사실 입헌군주제에 평생동안 충실했던 옌푸와 달리 량치차오는 입헌군주제보다 헌정(憲政)을 더 중요시했다. 그는 국가정권을 국체(國體, 입헌군주제와 민주공화제)와 정체(政體, 전제와 헌정)로 나누고 국체를 형식이라고 보면서 정체를 본질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량치차오에게는 입헌군주제나 공화제에 대한 논쟁이 초점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헌정체제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초점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오늘날까지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권위적인 저작은 채원배(蔡元培)의『50 년 동안 중국철학』(五十年來中國之哲學), 저우전푸(周振甫)의 『옌푸사상평술』(嚴復思想評術) 및 벤저민·슈워츠(Benjamin Schwartz) (In Search of Wealth and Power-Yen Fu and the West) 등이 포함된다. [20]

채원배는 옌푸의 일생에 대해 "선(先)급진,후(後)반동"이라고 평가하였다. 즉 청일전쟁 시기의 옌푸는 중국의 전제제도와 전통문화를 맹렬하게 비판하면서 의원을 즉시 설립하는 주장 등을 제기했는데 신해혁명 후 왕조복벽을 지지하고 전통문화의 속으로 다시 복귀하면서 5.4 운동을 반대한 시대와 퇴행하는 인물로 변모하였다고 채원배는 생각하였다. 저우전푸는 이런 평가를 한층 더 계승하였고 발전시켰다. 즉 그는 옌푸사상을 전반서양화(1895-1902), 중서절충(1903-1911), 후퇴복고(1912-1921) 3 단계로 나누었다. 그 후 사회주의 체제가 중국에 등장함에 따라 이런 평가 모델은 오랫동안 기준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점점 기계화되었다. 개혁개방 후 점점 이런 전통모델과 다른 의견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슈워츠의 명작이 중국에서 출간된 뒤 옌푸의 사상이 평생동안 일관된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전통적인 평가모델에 대한 회의(懷疑)를 한층 더 심화시켰다. 이어 적지

[19]「與熊純如書」,『嚴復集』,p.631
[20]『中國歷代思想家 46-嚴復』,(臺灣:商務印書館, 1979), 서장

않은 옌푸사상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각기 저작을 출판하여 옌푸가 일평생 입헌군주제를 고집한 것을 반동후퇴의 움직임으로 단순하게 간주하면 안되고 오히려 진화단계론에 내내 충실한 표현이라는 주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옌푸사상을 연구한 저작이나 논문들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모델(연속성이 끊김)과 신모델(연속성이 유지)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을 흔히 볼 수 있다.[21]

옌푸는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학계에서도 다양하게 평가되어 왔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슈워츠의『부와 권력을 찾아서』라는 책은 옌푸사상을 연구하여 펴낸 중요한 결과물이다. 옌푸의 8 권의 가장 중요한 번역저작[22]을 통하여 그의 사상 및 스펜서, 헉슬리, 아담 스미스(Adam Smith), 밀(Mill), 몽테스키외(Montesquieu)등 서구사상의 대표인물과 비교함으로써 서구정치사상이 19 세기말의 중국지식인에게 끼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중국과 서구간 복잡한 문화관계를 논하기도 했다. “중국이 서구에 비해 왜 뒤떨어졌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정치분야를 넘어 철학과 문화관념의 차원에서 서구문명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슈워츠의 관점에 따르면 옌푸의 입헌군주구국론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사상 원천, 즉 스펜서의 사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슈워츠는 이상형 국가인 영국의 고전자유사상 특히 스펜서의 사상이 옌푸 평생의 사고맥락을 거의 결정했고 옌푸가 인간의 행복을 출발점으로 삼는 스펜서의 본뜻을 왜곡해 그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가의 부강이라고 보았다.[23] 스펜스의 사회유기체론에 따르면 다윈주의 환경

---

[21] 전통적인 모델을 주장하는 주요 저작과 논문들이 다음과 같다:
王栻『嚴複傳』, (上海:人民出版社, 1976), 서장
李澤厚「論嚴複」, 『中國近代思想史論』(安徽:文藝出版社,1994), p.27
馬克鋒「嚴複與袁世凱」, 『福建論壇』1994, 第六期
張平海, 李愛峰「嚴複政治思想轉變的原因探析」,『河南師範大學學報』2000, No.27 卷, 第一期
반면에 연속성이 있는 모델을 주장하는 저작과 논문들이 다음과 같다:
隋淑芬「嚴複後期思想特徵辨析」, 『北京師範學院學報』1990, 第三期
糜常勇「嚴複列名籌安會后其思想並未倒退」,『鎮江師專學報』1994, 第三期
王民, 邱勇強「嚴複政治思想論析」,『福建論壇』1999, 第二期
黃瑞霖『嚴複思想與中國近代化』(福建:海峽文藝出版社, 2008)

[22]『天演论』(천연론) *Evolution and Ethics, T.H. Huxley*, 1898; 『原富』(국부론) *An Inquiry into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Adam Smith*,1901-1902; 『群學肄言』(군학이언) *The Study of Sociology, H. Spencer*, 1903; 『群己權界論』(군기권계론) *On Liberty*, J.S. Mill,1903; 『社會通詮』(사회통전) *A History of Politics, E. Jenks*, 1904; 『穆勒名學』(밀의 명학) *A System of Logic*, J.S Mill, 1905; 『名學淺說』(명학천설) *Logic the Primer*, W.S. Jevons,1909; 『法意』(법의) *L'esprit des Lois, C.L.S Montesquieu*, 1904-1909

[23] 史華兹 (Benjamin Schwartz), 葉鳳美옮김『尋求富強-嚴複與西方』(江蘇：人民出版社,1996), pp.91,107

하에 개체가 생존, 발전과 우승을 위해 서로 경쟁하고 사회단체의 질은 각 단위의 질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24] 옌푸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재능(德,智,力)을 충분히 살려야 국가가 부강해지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25] 그러므로 인간개체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자유, 평등, 민주의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스펜서의 진화론에 따라 이런 환경이 인위적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달성된다. 이에 의하면 당시의 중국국민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현명한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옌푸는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슈워츠에 따르면 옌푸는 평생동안 서구사상 범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으며 공화체제의 권위사상 기초가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공화체제가 실행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26] 또한 슈워츠는 1917 년의 복벽사건은 그 때의 배경과 연결하여 분석해야 하고 실제로 옌푸가 이용을 당했다고 볼 수 있으며 진정한 반동후퇴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27] 그러나 1911-1915 년간 (신해혁명에 대한 반대와 홍헌제제에 대한 지지)에 옌푸의 정치사상이 대체 전통보수에 복위한건지 아닌지 결론을 아직 내지 못하고 논쟁적이라고 마무리했다.[28]

옌푸의 입헌군주제가 스펜서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입헌군주제를 고집한 원인 중에 서구사상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통국학도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고 나는 본다. 아쉽게 이 점에 대해 슈워츠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슈워츠의 저작은 옌푸의 정치사상을 검토하기보다는 중서(中西)가치관념의 차이를 중심으로 철학과 문화의 차원에 입각하여 비교분석하는 데 머물렀다. 물론 슈워츠의 저작은 정치사상과 밀접하지만 옌푸의 정치사상을 더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제, 입헌군주제, 공화제를 비롯한 정치개념을 별로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고 내용도 상대적으로 흩어져 분포되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슈워츠는 옌푸사상의 연속성을 충분히 입증했지만 청나라 멸망 후 당시 사회에서 옌푸의 정치적인 역할에 대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는 저자는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만 하고 그냥 끝을

[24] Spencer, *The Study of Sociology,* New York: D.Apleton and Company, 1914. pp.43,45 ; "The character of aggregate is determined by the character of the unites."

[25] "하버트 스펜서와 옌푸-지.덕.체론의 사상적 영향을 중심으로", 우남숙, 우석대하교, 『한국정치학회보』, 제 46 집, 제 5 호 참조.

[26] 『尋求富強-嚴複與西方』,p.228

[27] 위와 같은 책, p.225

[28] 벤저민.스워츠, 최효선 옮김, 『부와 권력을 찾아서』(한길사: 2006), p.290

마무리하고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못하였다. 이런 것들은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주요 질문이다.

대만의 옌푸를 연구하는 전문가인 황커우(黃克武)는 저작인 『자유의 소이연』(自由的所以然) 중에 『군기권계론』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옌푸의 복잡한 자유관을 제시함으로써 슈워츠가 제기한 옌푸사상의 전후 일관성 주장에 동의하지만 옌푸 자유관의 정체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졌다. 이 책은 옌푸가 왜 끝까지 입헌군주제에 충실하였다는 것을 직접 토론하지 않았지만 사상적 측면에서 옌푸의 자유관을 분석함으로써 옌푸가 온화한 영국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을 깊게 받으면서 혁명과 관련된 루소사상을 비판한 모습을 그려냈다. 그러므로 옌푸의 정치주장이 어떻게 그의 자유관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정치주장의 고정불변 및 때로는 소기(小己, 자기)자유를 강조하고 때로는 국군(國群, 사회)자유를 강조하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자유관 간의 관계 어떠한지 등 문제를 둘러싸고 본문의 연구를 위해 사고의 맥락을 제공해 주었다.

한국내에서 옌푸사상에 대한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29] 옌푸사상에 대한 연구 조예가 깊은 양일모의 저작 『옌푸(嚴復): 중국의 근대성과 서양사상』에서는 옌푸가 입헌군주제를 지지한 이유에 관한 힌트를 제공했다.즉 "영국의 진화론과 자유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옌푸는 국가가 인위적이고 급격하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루소의 사회계약설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아가 루소를 끌어들여 중국의 혁명을 주장하는 의견에도 동의할 수 없었다"[30] "진화의 단계를 결정하는 것은 민(民)의 지적, 도덕적, 신체적 능력이었고 (국민수준) 아직 완전한 선에 도달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군주라는 권력장치가 필요하다"[31] 라고 양일모는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주로 청나라 멸망 전의 시점에 입각하여 분석한 것이고 옌푸가 청나라 멸망 이후에까지 입헌군주제를 끝까지 고집한 질문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봤던 옌푸의 입헌군주제에 관련된 기존연구를 정리해 보면 논문질문에 대해 몇 가지 잠정적인 답이나 계속 생각해 볼 만한 단서를 이미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진화단계론에 속박된 결과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수준저하론에서 영향을 받은 결과로 분류될 수 있다. 옌푸가 왜 청나라 멸망 후에 여전히 입헌군주제를 고집했느냐

[29] 양일모 저, 『중국 철학 해석과 비판: 옌푸(嚴復):중국의 근대성과 서양사상서장』(태학사, 2008 년), p.14
[30] 위와 같은 책, p.230
[31] 위와 같은 책, p.160

하는 질문은 청나라 멸망 전에 왜 입헌군주제를 지지하면서 공화제를 반대했느냐 하는 이유와 관련성이 있다고 우선 인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외부환경의 변화가 꼭 옌푸 자신의 정치주장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옌푸가 진화단계론을 충실하게 따를 때의 20 여년 짧은 시간 동안 시대의 변화가 너무 빨라서 사상가의 주장 자체가 여전하더라도 시대에 뒤떨어진 착오도 면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그래서 신모델을 주장하는 학자 및 벤저민 교수와 양일모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청나라 멸망 후 여전히 입헌군주제를 고집하고 공화제를 반대한 이유는 스펜서의 진화론을 충실히 따라서 사회변혁이 점진적으로, 자연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비약적으로, 인위적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꾸준히 지켜 온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추론하면 신모델(연속성 유지)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더 강하다고 보는 본인의 입장이다.

그리고 국민수준이 여전히 낮은 단계에 처해 있는 것과 진화단계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진화단계론에 따르면 한 사회의 진화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수준에 비례한다. 옌푸는 중국국민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고 입헌군주제는커녕 더 높은 정치체제인 공화제에 더욱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혼란만 초래한다는 논리를 우리는 쉽게 추론할 수 있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계몽교육을 통하여 개인능력을 중심으로 한 국민수준을 먼저 향상시켜야 한다고 옌푸는 강조했다. 이렇게 분석하면 국민수준저하론도 합리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인 학자인 리샤오둥(李曉東)의 관점에 따라 혁명파의 경향은 민족혁명과 정치제도의 수립을 중심으로 하는 목표가 있고 입헌파의 경향은 유교의 민본주의를 개조하고 사회질서를 보전함으로써 민도(民度)에 더 집중한다는 주장이다.[32] 그래서 옌푸 자신의 분석차원을 넘어서 소속집단의 경향이나 청나라 멸망 전후 외부환경의 변화에서 파악하는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힌트를 받았다. 이런 면은 본인이 향후 주의할 만한 중요한 측면이다.

3. 연구방법 및 내용

이 연구를 위하여 역사적 연구주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문헌분석 연구법을 주로 사용할 것이며 1 차자료를 독해하고 사용함으로써 검증할

[32] 李曉東,『近代中国の立憲構想 : 厳復・楊度・梁啓超と明治啓蒙思想』(東京:法政大學出版局, 2005), p.264

것이고 부차적으로 2 차자료를 참고할 것이다.

중국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전문학자인 진관타오의 관점에 따르면 역사 연구의 진실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원자료를 다룰 때 반드시 사람들이 사건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빠져버린 관념을 복구해야 한다. 즉 연구자가 오늘날의 관념과 가치체제로 역사 사건을 상상하는 것을 가능한 한 배제해야 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은 바로 당시 사건의 발생을 지배한 관념을 파악해야 한다.[33] 그러므로 본연구는 현재의 가치체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입헌, 공화 및 혁명 등의 중대한 역사 사건을 지배한 배후의 주요 관념을 규정하는 데 훨씬 성찰력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퀜틴·스키너(Quentin Skinner)의 관점에 따르면 텍스트주의(textualism)나 지성사적 전기(intellectual biography)에만 의거해서는 핵심적 문제들을 논의하기가 어렵고 심지어는 인지할 수 없다고 심각하게 지적하였다.[34] 그러므로 콘텍스트를 배제하고서 텍스트만을 읽어내서는 사상가의 의도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가능한 모면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엄복의 정치사상을 연구할 때 콘텍스트(즉 당시의 사회환경 및 동시대의 다른 인물)에 비추어 텍스트를 읽어냄으로써 최대한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본 연구도 흔히 볼 수 있는 개별 사상가에 대한 사상사적 연구처럼 주로 시계열적 해석방법을 취함으로써 옌푸사상적 추이를 파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물론 시계열적 해석방법은 텍스트에 지나치게 의존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35] 뿐만 아니라 이 연구의 또 다른 한계점의 하나는 100 여년 전에 살았던 옌푸가 남겨 준 글들이 문언문(文言文, 고대중국어)이기 때문에 고대중국어에서 현대한국어로 번역할 때 어떤 용어나 글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완벽하게 전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언어와 문체를 서로 번역하는 작업에서 어느 정도 뉘앙스의 차이가 완벽하게 반영되지 못할 경우가 생길 것으로

---

[33] 『관념사란 무엇인가-1 이론과 방법』,pp.268-271

[34] Quentin Skinner, “Meaning and Understanding in the History of Ideas” James Tully ed., Meaning and Context: Quentin Skinner and His Critics Cambridge: Polity, 1988

[35] 장인성,『장소의 국제정치사상-동아시아 질서변동기의 요코이 쇼난과 김윤식』, (서울대하교출판부, 2002). p.49.
장인성 교수의 논증은 다음과 같다: 만일 어떤 대상에 대한 해석이 텍스트에만 의건해서 이루어진다면 작자(사상가)가 텍스트를 서술하는 데 있어-이해의 진위는 어찌되었든-고려했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고 생각되는 콘텍스트를 배제하기 마련이다. 콘텍스트를 배제한 택스트 분석, 특히 텍스터의 시계열적 분석은 지(知)의 전기(傳記)적 나열이 되기 일쑤이며, 따라서 대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상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옌푸가 수용한 진화론의 논리에 따라 입헌제보다 뒤떨어진 전제군주제와 앞서간 민주공화제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비교하고 입헌군주제의 필요성과 특징 그리고 입헌군주제에 대한 옌푸의 일관된 주장 등의 문제를 논의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먼저 전제군주제의 폐해를 밝힘으로써 당시 입헌군주제의 수립 배경과 진보성을 제기하고 관련된 서구 정치사상의 수용 경로와 그때의 전형적인 입헌군주제 국가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입헌군주제 그 자체의 내용과 특징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것이고 특히 옌푸가 제시한 지방자치의 개념에 관하여 청나라 멸망 전후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것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이라는 특정한 환경에 적용된 입헌군주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이어서 같은 민주체제에 속한 공화제를 반대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며 옌푸가 일관적으로 주장했던 입헌군주 구국론에 대해 재조명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사상적인 차원으로 돌아가 옌푸가 공화제를 반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독자에 대한 독해를 한층 더 돕기 위해 옌푸의 정치사상을 논술하기 전에 시대적 배경과 당시 발생한 현실적 사건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동시에 논술하는 과정에도 관련된 사건배경 및 다른 인물의 활동을 구석구석 언급할 것이다. 결론 부분은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옌푸의 이러한 일관된 주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밝히며 반성할 만한 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II. 청말 입헌제의 역사적 맥락

1. 입헌제의 개념과 형성배경

전제와 민주는 근대정치학 중 중요한 두 가지의 정치형태이다. 민주정치는 입헌제의 형태로 표현된다.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의 특징은 국가 또는 정부의 행위가 법률이나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법치(rule of law)에 있다. 즉 법은 숭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막강한 정부권력이나 군주특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동시에 법에 어긋나면 누구나 무조건 벌을 받아야 하고 모든 권력은 법의 범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분권의 제도 하에 정부의 권력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국민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헌법은 입헌제의 정수이다.[36]

헌법이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조직 구성과 정치작용 원칙을 정하고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37] 헌법의 유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보장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및 "제한적 정부"(limited government)와 밀접하다. 로크(Locke)의 영향을 받은 18, 19 세기의 자유주의자와 제헌자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가 있고 인위적으로 세워진 정부가 국민의 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적인 권리의 침해와 사회질서의 혼란을 비롯한 무정부상태의 폐해를 잘 알고 있는 그들도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헌법이나 법에 의거하여 분권(division of power)의 방식으로 정부의 권력을 제한시킴으로써 정부에게 사회질서를 지키게 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보전할 수 있는 입헌제를 창출하게 되었다. 19 세기 후 미국에서 의회의 부정부패로 인해 대의제 정치가 진실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퓰리즘(populism)과 진보주의(progressivism)운동은 점점 발흥되고 의회를 대신하여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권력배분을 결정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것이 바로 민주공화제의 초기형태이다. 입헌제는 보통 입헌군주제와 민주입헌제로 나뉘어진다. 두 가지의 제도가 다 헌법을 통하여 정치권력을 제약하고 국가 원수의 고정 여부만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정치운영은 반드시 법률화해야 하고 법제가 일단 정해지면

---

[36] Carl J. Friedrich, *Constitutional Government and Democracy*, Ginn and Co., N.Y., 1950, rev. ed., p.25-26

[37] 계희열, 『헌법학 (上) 』(박영사, 2005), p.4.

정치권력을 넘는 효력이 생길 수 있다.[38] 그러므로 객관적인 헌법의 규범에 따른 민주국가는 질서있게 점점 발전해 나가는 반면 전제국가는 법이 군주에 따라 생겨나고(法由君出) 군주나 정부의 권력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현명한 군주가 나타나면 국가가 흥할 수 있지만 난폭한 군주가 나타나면 국가가 망할 수 있다. 전제체제 하에서 군주가 항상 현명한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시세를 다스리는 국면도 이에 따라 항상 변덕스럽다. "태평성세는 짧고 난세는 길다"(治世苦短,亂世苦長)라는 것은 전제정치의 불가피한 현상이다. 입헌은 민주국가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국가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입헌이라는 단어는 중국의 고전에서 많이 나온다.『주례』(周禮) 중에 헌령(憲令), 헌금(憲禁), 방헌(邦憲) 등 단어가 제기된 적이 있고 관자(管子)는『입정편』(立政篇)에서 "정월 초하루에 백여 명의 관료가 조회에 나간다. 군주가 전국적으로 헌(憲, 명령)을 반포한다. 헌이 내려진 이상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39]라고 말하였다. 묵자(墨子)도 "선왕 나라의 경우, 국가로부터 나온 것을 백성에게 공시하는 것은 바로 헌이다. 상(償), 선(善), 벌(罰), 간(姦), 헌이다"[40] 라고 말하였다. 청나라 말기의 어떤 학자는 헌법이 중국의 고유의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41] 사실 중국 고전 중 제기된 "헌"이라는 개념은 장전(章典)이나 법도(法度)를 비롯한 일반적인 규범을 가리키며 오늘날의 "법"의 개념과 비슷하다. 근대의 헌법은 "체제구조"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42] 근대 헌법제정의 동기는 분권제도를 이용하여 정부권력을 규정함으로써 민권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헌법제정·개정의 과정은 보통의 법과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효력도 보통의 법보다 크다. 그러나 고대의 중국에서 "헌"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정치적 분권(political decentralization)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분업(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에만 있다는 것이다. 이런 법은 권력의 제약을 추구하지도 않고 민권을 보장하는 취지도 없다. 신하가 작성한 각종 법안은 황제의 결재를 받은 후 발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법안 간에 헌법과 같은 지상한 지위와 달리 등급적이나 종속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국에는 예로부터 근대적인 헌법의 개념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

38 周陽山,『憲政輿民主』(臺北:臺灣書店, 民國 86 年), p.10

39 正月之朔, 百官在朝, 君乃出命, 布憲于國, 憲既布有不行憲者, 罪死不赦.

40 先王之國, 所以出國家布施百姓者, 憲也. 賞善罰姦, 憲也.

41 劉錦藻,「憲政考」,『皇朝續文獻通考』, 卷三百九十三,
蕭公權,『中國政治思想史』(臺灣:中國文化大學出版部,1985), p.736

42 劉慶瑞,『比較憲法』(臺灣: 商務印書館, 民國 61 年) ,p.5-6

전제정치의 한 중요한 특징은 통치자가 자신의 통치를 안정되게 영위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심하게 속박하였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한 사례로 과거제도를 꼽을 수 있다. 이런한 한 가지 측면에 입각하여 바라볼 때 많은 사상가들이 전제사회의 폐단에 대해 분노하며 비판했는지 알 수 있다. 옌푸는 과거제도의 폐단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전제정치의 3 대 폐단을 지적하였다. 첫째는 지혜를 속박하는 것 (錮智慧) 이고, 둘째는 심술궂게 하는 것 (壞心術) 이며, 셋째는 빈들거리게 하는 것 (滋游手) 이다. [43] 청일전쟁부터 무술변법까지의 시기에 캉유웨이와 량치차오를 비롯한 많은 사상가들은 여러 번 조정에 글을 올려 과거제 폐지를 통한 전제사회 개혁을 요구하였다. 캉유웨이는 『공자개제고』(孔子改制考)에서 이렇게 비판하였다. "국(國)을 병약하게 하고 민(民)을 어리석게 하며 민속도 더럽히는 원인 및 성교(聖教, 즉 유교)와 그 경전인 사서가 다 쇠락해진 원인은 팔고(八股)에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망한 원인은 유교가 망한 것에 있고 유교가 망한 원인은 팔고문에 있다. 팔고문은 참으로 국가와 유교를 망치는 죄수이다." [44] 량치차오는 중국전제사회의 쇠락이 교육의 낙후와 인재의 말살에 있다고 했다. 그는 "변법의 근본은 인재의 육성에 있다. 인재의 육성은 학교의 설립에 있다. 학교의 설립은 과거제도의 폐지에 있다"[45]고 주장하였다.

중국 전통정치의 본질은 민을 어리석게 함으로써 군권독존(君權獨尊, 군권이 유일하게 존귀함)을 유지하는 전제체제이다. 진나라 후에 공식적으로 확립되기 시작했고 청나라 말기까지 2 천년 동안 발전해 온 전제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사"(私)의 개념이다. 즉 천하를 일가일성(一家一姓)의 개인적인 소유물로 간주하고 민을 일성(一姓)의 속민(屬民)으로 간주하며 국가의 법률을 한 가족의 가법으로 간주하고 모든 포상을 군주의 개인적인 은혜로 간주한다.[46] 제권(帝權)을 보전하기 위해 "민에 대한 경계"가 무엇보다 우선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나 국가라는 개념이 형성되지 못하고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단위로 하는 이기적인 행위관념만 생겨나고 점점 강화되었다. 사상은 사회환경적

---

[43] 「救亡决論」,『嚴復集』,pp.40-42
"夫八股非自能害国也，害在使天下无人才，其使天下无人才奈何？曰有大害三："其一曰锢智慧"、"其二曰坏心术"、"其三曰滋游手"

[44] 康有爲著，姜義華，張榮華編『孔子改制考』(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0)
"国弱之故，民愚俗坏，亦由圣教坠入选举，四书亡于八股为之。故国亡于无教，教亡于八股，八股之文，实为亡国，亡教之大者也."

[45] 丁文江，赵丰田,『梁启超年谱长编』(上海：人民出版社，1983). p.114
"变法之本，在育人才，人才之兴，在开学校，学校之立，在变科举."

[46] 荆知仁,『中國立憲史』(臺北:聯經出版事業公司, 2001) ,p.17

산물이다. 어떤 정치사상은 그것이 발생한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정치사상의 형성과 발전도 당시 서로 의존하는 역사문화와 연관하여 바라봐야 한다. 전통적인 농경문화는 “하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의 처지에 만족하다”(樂天知命)는 사회적 심리를 생기게 하였다. 도덕성과 규범을 강조하는 유교의 역사관은 야만에서 문명의 단계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문명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은 성인(聖人)이다. 영웅의 역할과 성인의 공적을 강조하는 역사관은 일종의 영웅사관 혹은 성인사관(聖人史觀)이라 할 수 있다.[47] 그래서 중국민중들은 뛰어난 재능과 원대한 지략을 갖출 수 있는 군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심리적 기대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전통적인 전제문화는 입헌구국을 제기하는 기본적인 요인이었다.

이천년 동안 계속된 전제정치는 청나라에 들어 한층 강화되었다. 군주의 권력은 다른 세력이 제약할 수 없을 정도로 지대하였다. 권력의 고도적인 집중은 내부적 부패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청나라의 부패는 극심하였다. 통치계층에서 말단벼슬까지 횡령수뢰, 매관매직 등 일련의 부정부패적 사건이 일어나고 전쟁배상도 정부의 재정위기를 심화시키고 군사건설 등 다방면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고 또한 가렴잡세의 가중에 따라 사회도 불안정해졌다. 이 때 서구 제국주의적 진출은 중국에 국가가 분할되고 민족도 멸망될 위기에 처하게 하였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많은 지식인들을 각성시켰다. 이어 자강을 도모하기 시작하고 점점 입헌구국을 비롯한 정치변혁을 주장하게 되였다. 전통적인 전제정치에서 나타난 약점이 사회변혁을 유발하는 간접적인 요인이었다면 서구국가의 침입은 직접적인 도화선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없었더라면 중국정치는 여전히 전제모델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입헌제도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48] 서구세력의 충격은 입헌구국을 제기하는 직접적인 요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입헌사상의 발전 및 청말신정의 전개

청말 입헌운동은 청나라 멸망 전 10 년 동안에 전개되었지만 입헌사상은 아편전쟁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되어 생겨났다. 최초로 개혁을 주장한 사람은 임칙서(林則徐)의 제자인 풍계분(馮桂芬)이다.[49] 그는『교분노항의』(校邠盧抗議, 1861)에서 외국은 강하고 중국은 약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서로 비교함으로써 4 가지의 원인을 지적해

[47]『옌푸: 중국의 근대성과 서양사상』,p.118
[48]『中國立憲史』,p.29
[49] 위와 같은 책, p.70

내고 적극적으로 외래문화를 수용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즉 "인재를 살리는 것은 이적만 못하고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는 것은 이적만 못하고 군민간의 소통은 이적만 못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이적만 못한다"[50]. 그러므로 "중국은 윤상명교(倫常名教)를 바탕으로 두고 서구부강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51]라고 제기하였다. 그의 사상은 향후 양무운동의 지도사상으로 확립되었고 "중국의 학문을 본체로 하고 서양의 학문을 응용한다"는(中學為體 西學為用) 사상의 유래가 되었다.[52]

청나라 입헌사상의 생성은 건륭·가경 후 국세의 쇠락과 외세의 침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2 차 아편전쟁을 겪은 후 중국과 서양의 교류가 긴밀해짐에 따라 중국인의 사상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다. 동치(同治)부터 무술정변까지 예전의 서구헌정에 대한 모호한 인식은 많이 발전하였다. 사상계의 언론은 대략 두 가지의 특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하나는 전제정체에 대해 비판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구정치의 장점을 소개한 것이다.

몇 가지의 예를 들어볼 수 있다. 먼저 옌푸가「한유비판」(辟韓)에서 전제정체에 대해 비판한 것을 들 수 있다.

> "오늘날의 서양국가와 같은 경우는 한 국가의 대공사(大公事)에 있어 민(民)의 권한은 10 분의 7 을 차지하고 있고 조정의 권한은 10 분의 3 을 차지한다. 서양사람은 (국가를) 다스리는 것에 있어 국(國)을 공민(公民)의 공산(公産, 공공재산)으로 간주하고 왕후장상은 온 나라의 공복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왕이라고 불리는 자가 사해(四海)를 가질 정도 부유하고 우리 나라의 민은 다 비천한 노산자(奴産子, 노예)라고 간주한다…진나라 후의 군주이야말로 다 국가를 찬탈하는 도둑이다…민이야말로 천하의 진정한 주인이다. 군주가 찬탈한 권력을 영원히 차지하기 위해 (민을) 약하게 하고 몽매시키며 (민에게)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한다."[53]
>
> (今夫西洋者,一國之大公事, 民之相與自為者居其七, 由朝廷自為之者居其三, 西洋之言治者曰：國者斯公民之公產也, 王侯將相者, 通國之公僕隸也.而中國之尊王者, 天子富有四海, 而我國之民其卑其賤者皆奴產子也…秦以來之為君, 正所謂大盜竊國者耳…斯民也, 固斯天下之真主也, 必弱而愚之, 使其常不覺, 常不足, 以有為而後吾可以長保, 所竊而永世.)

---

[50] 馮桂芬,「製洋器議」,『校邠盧抗議』;"人無棄才不如夷,地無遺利不如夷,君民不隔不如夷, 名實必符不如夷下."『中國立憲史』,p.24

[51]『校邠盧抗議自序』,顯志堂稿, p.12
"以中國之名教倫常為原本, 輔之以諸國富強之術."

[52]『中國立憲史』,p.71

[53]「辟韓」,『嚴復集』,pp.35-36

량치차오도 전제정치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국가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전제통치자의) 폐단을 방지하기 전에 종종 하나의 폐해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여 백여 개의 폐해를 이미 발생시켰다. 마치 구멍이 난 가옥을 수선하는 것처럼 수선하면 할수록 물이 새는 것과 같다. 또 마치 승복을 기워 입고 꿰맬수록 망가진다.” [54] 여기에 량치차오가 전제정치에 대해 전혀 기대하지 않았음을 것을 알 수 있다.『중외일보』에서도 강압과 우민을 중심으로 하는 전제수단에 대해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다.

> “전제는 몽폐를 예상하지 않지만 몽폐를 초래할 수 있다. 몽폐는 부패를 예상하지 않지만 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 부패는 멸망을 예상하지 않지만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몽폐는 바로 전제의 효과이고 멸망의 원인으로 된다.”[55]
> (專制不與蒙蔽期而蒙蔽至，蒙蔽不與腐敗期而腐敗至，腐敗不與覆亡期而覆亡至. 是則蒙蔽固專制之效果，而覆亡之原因也.)

전제정치에 대한 비판과 서구헌정에 대한 언급도 적지 않았다. 자유·평등·민권 등 서구의 기본 개념을 널리 천명하여 찬양하기도 했고 서구의 의회나 정당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옌푸는『자유론』(On Liberty)과『법의 정신』(The Spirit of Law)를 번역하여 민주정치 이론을 소개하였다. 량치차오는『서정종서』(西政從書)를 편집함으로써 유럽 여러제도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왕도(王韜)의 『서학집존』(西學輯存), 하계(何啓)와 호례원(胡禮垣)의 『신정변통』 (新政變通) 등 저작은 서구학술 및 사회계약론에 대해 다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민권을 적극 주장한 왕강년(汪康年)은 “민이 권력이 없으면 국가가 민에게 소유되는 사실을 잘 몰라서 지도자와 이견이 생기기 쉬운 반면 민이 권력이 있으면 국가의 일을 자신의 일로 간주하고 지도자와 친해질 수 있다”[56]라고 언급하였다.

무술정변에 참여한 사상가들의 군민관계 비판은 더욱 신랄하였다. 담사동(譚嗣同)은 이렇게 말하였다.

> “민(民)이 처음에 생길 때 군신이라는 것은 원래 없고 모두가 민이다. 민이 서로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리는 여유도 없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한

54『論中國積弱由於防弊』,『飮冰室合集』(一)(北京:中華書局, 1989) p.96
“務防弊者，一必未弭，如其漏室，愈其愈漏，如補破衲，愈補愈破.”

55「論蒙蔽」,『中外日報』,光緒 30 年 5 月 5 日

56 汪康年,『論中國參用民權之利益』『中國政治思想史』,p.521
“民無權，則不知國為民所有，而與上相睽，民有權，則知以國為事，而與上相親.”

사람을 군(君)로 추천하였다. 공통적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군이 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민이 군을 선택하는 것이다…그리고 민은 모여서 군을 폐지할 수 있다. 군이라는 사람은 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 신하라는 사람은 민을 도와서 일하는 것이다. 민한테 받는 세금은 민을 위해 일하는 재산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군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은 천하의 공통된 도리이다…군이 선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군주를) 죽일 수 있다. 이것을 반역적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반역이라는 말은 군주가 자신의 통치를 위해 천하에 겁을 줘서 만든 단어이다…중국인은 세상에서 군주에 대한 충의(忠義)를 자랑거리로 간주한다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을 참 모른다."[57]

(生民之初, 本無所謂君臣, 則皆民也。民不能相治, 亦不暇治, 於是公舉一民為君。夫曰公舉之, 則非君則民, 而民則君也…且必可共廢之。君之者, 為民辦事者也；臣也者, 助民辦事者.賦稅之取于民, 所以為民辦事之資也. 如此而事猶不辦, 事不辦而易其人, 亦天下之通義也…彼君不善, 人人得而戮之, 初無所謂叛逆也.叛逆者, 君主創之以恫嚇天下之名. 中國人猶自以忠義相誇示, 真不知世間有如此羞恥之事也.)

무술변법 시기에 민권의 확대를 강조하기 위해 캉유웨이는 "인민종족은 다같이 국가를 지켰다. 그 후 점점 군주에게 통치권을 부탁하게 되었다. 군주로 인해 인민종족을 고생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만약 불행히도 군주가 국가를 부강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런 군주도 바꿀 수 있다."[58]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제자인 량치차오는 "조정은 일가의 사유재산이고 국가는 국민의 공유재산이다. 민권이 확립되면 국권도 확립될 수 있다.[59] 반면에 민권이 없으면 국권도 사라질 것이다"[60]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민간의 사상가뿐만 아니라 청나라 정부에 파견된 많은 외국주재 사절도 서구의 의회제도를 비롯한 정치제도를 적극적으로 전파하였다. 옌푸의 영국유학 시절 주영공사였던 곽송도(郭嵩燾)는『서양주재 시절의 기록과 경험담』(使西紀程)에서 영국의 의회정치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였다.

"영국대정의 핵심은 승상(丞相)에 있다. 상의정원과 하의정원 중 다른 정당의 경쟁을 거친 후에야 승상이 선출된다. 선출된 승상은 반드시 의정원

57 譚詞同,『仁學』(下)(中州古籍出版社:1998), p.56

58 康有為,『春秋筆削大義徵言考』,卷二, p.22;『中國政治思想史』,p.684
"國者, 人民種族共保之有國, 然後托君以治之, 豈可以一君而累一國之人民種族乎, 故有不幸迫於強國之勢, 君可易也."

59 梁啓超著,「少年中國說」,『飮冰室合集』"朝也者,一家之私产也；国也者,人民之公产也".

60 梁啓超著,「愛國論」,『梁任公年譜長編』,p.42;"民權興則國權立, 民權滅則國權亡."

중의 대부분의 지지를 받아야만 안정되게 이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61]
(英國大政, 一總之丞相.上下議政院, 亦微分黨相攻, 居丞相之任, 必議政院附和者多, 乃能安其位云)

전제정 비판과 민권 확대에만 주목했던 사상가들은 서구정치제도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수록 의회가 서구민주정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게다가 많은 외국 사절의 소개를 통하여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사상계에서는 청나라 정부에 의회를 설립하라는 요구가 점점 제기되었다. 정관응(鄭觀應)은 『성세에 대한 급한 조언』(盛世危言)에서 의원 설립의 장점을 소개하면서 중국도 이것을 모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국(國)의 흥성과 쇠퇴는 인재에 달려 있다. 인재의 좋고 나쁨은 선거에 달려 있다. 의원(議院)은 국인(國人)을 위해 설립되는 것이고 의원(議員)은 국인의 선출하는 것이다. 한 사람에 의해 선출되면 (품행의) 좋고 나쁨은 이기적인 편견을 면하기 힘들고 여러 사람에게 의해 선출되면 좋고 나쁨은 공론(公論)에서 벗어나기 어렵다…의원이 생긴 후에 난폭한 군주는 함부로 할 수 없고 날뛰는 신하는 제멋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크고 작은 소송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소민(小民,백성)도 원한을 누적하지 않을 것이다…태서의 각국은 다 의원을 설립하였다.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 다 같이 상의하고 계획을 세운다. 민이 불편하다고 느껴진다면 이런 방안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고 민(民)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강요하게 통과시키면 안 된다. 그러므로 조야(朝野)상하 다 한 마음으로 같이할 수 있다."[62]
(國之盛衰, 係乎人才, 人才之賢否, 視乎選舉. 議院為國人所設, 議員為國人所舉. 舉自一人, 賢否或可有阿私, 舉自眾人, 賢否難逃公論…自有議院, 而昏暴之君無所施其虐, 跋扈之臣無所擅其權, 大小官司無所卸其責, 草野小民無所積其怨…泰西各國, 咸設議院, 每有舉措, 詢謀僉同. 民以為不便者不必行, 民以為不可者不得強. 朝野上下, 同德同心.)

이상 아편전쟁 후의 60 년 동안 끊임없는 외세의 영향 하에 지식인들의 사상 및 언론의 변화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최초에 사상가들이 언급한 민권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중국 고유 맹자의 민귀군경설(民貴君輕說, 민중은 귀하고 군주는 천하다)[63]을 둘러싸고 수용해 온 과정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64] 즉

[61] 郭嵩燾著,「使西紀程」,『小方壺齋與地業鈔』,上海著易堂印行, 第五十六冊, p.159
[62] 鄭觀應著,「盛世危言」,『議院』,卷 1;『中國政治思想史』,p.762
[63]「孟子·盡心下」,"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辟韓」『嚴復集』,p.33,
[64]『中國立憲史』,p.75

서양정치가 아무리 좋더라도 중국 고대의 경전에서 비슷한 근거를 먼저 찾아내야 설득력이 강해지고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쉬울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은 "중체서용(中體西用)"[65] 과 비슷하다. 그 후 서구정치제도에 대한 이해의 심화정도에 따라 점점 탈(脫)중국화하고 더욱 객관적인 시각에서 서구의 정치제도를 바라보게 되었다. 서양의 추상적 개념을 중국에 소개할 때 중국의 전통적 가치 속에서 그것과 유사한 것을 찾아보는 것은 중국사상에서 자주 발견되는 하나의 특징이었다.[66] 이른바 부회설(附會說)이다. 청말 입헌사상 발전의 과정은 전제제도에 대한 비판과 민권확대에 대한 주장으로부터 의원을 설립하라는 요구를 비롯한 법제의 건립에 관한 주장까지 점점 진보적이고 구체화된 과정이다. 특히 "의원론(議院論)"의 공식적인 제기와 확대는 향후 입헌운동을 진행하는 데에 적극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중국사회의 입헌제라는 목표를 향하여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옌푸도 청말 입헌사상의 발전 과정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그는 현대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면서 사회는 법이 있는 군이라고 하여 "군"(群)을 "사회"와 구별하였다. [67] 또『사회통전』에는 청말 입헌사상의 발전에 따른 법과 사회의 관계 및 법을 수립하는 필요성에 대해 말하기도 하였다. [68] 즉 중국이 종법사회로부터 현대사회로 진입하려면 법의 건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중국사회의 진보와 개량에 대한 신정입헌시기 유신파 사대부의 이해방식을 전형적으로 대표하였다. 청말의 10 년동안 크게는 국가가 입헌하고 각종 법률을 제정하였으면 작게는 갖가지 구체적 법규와 조례를 제정하였다. [69] 그래서 청말 신정이나 청말의 입헌운동을 본질적으로 보면 갈수록 점점 법치(法治)를 추구하는 정체체제를 향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상적인 차원을 넘어 실제 청말 입헌운동은 다음 몇 단계로 나눌

---

[65] 중체서용: 중국의 학문이라는 바탕 위에서 서양의 학문을 수용하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서양의 학문은 청조의 체제를 붕괴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용이 가능한 것이었다.

[66]『옌푸: 중국의 근대성과 서양사상』,p.127

[67]『群学肄言译余赘语』,『嚴復集』,p.125 荀卿曰："民生有群."群也者, 人道所不能外也.群有數等, 社會者, 有法之群也." 역: "순자는 '사람이 태어나면 무리를 이룬다' 라고 하였다. 무리는 인류의 도리에서 없을 수 없는 것이다. 무리에는 등급이 있으니 사회는 법도가 있는 무리이다.

[68]『社會通詮按語』,『嚴復集』,p.925;"中國社會, 宗法而兼軍國者也. 故其言法也, 亦以種不以國." 역: 중국사회는 종법사회이면서 군국사회이므로, 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종족의 차원에서 하는 말이다.

[69]『관념사란 무엇인가-2 관념의 변천과 용어』,진관타오.류칭펑 지음, 양일모 등 옮김. 푸른 역사 출판사, 2010, p.197

수 있다. 첫째 단계는 서세동점(西世東漸)이다. 즉 서학이 동양으로 점점 밀려오고 서양의 영향이 점점 커지는 과정에서 입헌주의 사상이 형성되었다. 둘째 단계는 청일전쟁 후의 유신변법(維新變法)이다. 무술변법은 입헌주의의 정치세력화를 의미한다. 셋째 단계는 예비입헌(豫備立憲)의 선언이다. 입헌주의의 제도화를 상징한다. 넷째 단계는『흠정헌법대강』(欽定憲法大綱) [70] 의 발표이다. 입헌주의의 성문화를 뜻한다. 글의 결론 부분에서는 일본과 달리 중국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권력투쟁이 한족과 만주족 사이의 민족대립과 결부되어 만주족 황제를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강력한 입헌군주제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71]

청말 입헌운동의 역사맥락을 제기하면 그 역사적 연원인 청말신정(淸末新政)의 시작부터 말할 수밖에 없다. 1900 년의 경자사변(庚子事變)으로 인해 의화단 운동이 실패하고 8 개국 연합군이 북경을 점령한 후 중국은 서구국가가 제기한 주권을 상실한 불평등조약인 신축조약(辛丑條約)을 강요에 못 이겨 받아들였다. 청조에 대한 불만 및 혁명 세력을 완화하기 위해 1901 년부터 서태후의 주도하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군사, 관제 등의 분야에서 개혁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러일전쟁(1904-1905) 중 입헌제국가인 일본이 이기고 전제국가인 러시아가 졌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청나라 정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정부관료든지 민간지식인이든지 “입헌구국”이라는 구호를 그 때부터 공식적으로 제기하게 되었고 중국 내에서 입헌을 주장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1905 년 서태후는 오대신들에게 서양의 정치제도를 답사하고 올 것을 명령하고, 진국공(鎭國公) 재택(載澤)을 비롯한 5 명의 신하를 서양으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를 "오대신 출양고찰(五大臣出洋考察)"이라 한다. 파견된 대신들은 국회, 경찰기구, 감옥, 공장, 은행, 등 다양한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파견국의 각종 정치제도를 시찰하였다. 고찰단은 1906 년 귀국 후 국가가 부강해지기 위하여 헌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보고를 올렸으며, 이들은 청나라 정부가 신설된 기관인 정치고찰관에서 『열국정요』(列國政要), 『구미정치요의』(歐美政治要義) 및 『고찰정치일기』 (考察政治日記)

[70] 주요내용은 1) 개혁의 절차와 기간은 확정된다. 즉 입헌약정-여론수렴-관제개혁-헌법공포이고 기간은 9 년이다. 2) 개혁의 원칙이 확립된다. 즉 2 원제 입헌군주제이고 군주주권과 입헌주의로 나뉘어진다. 3) 책임내각이 성립된다. 군주가 각료임면권과 군사 직접통제권을 가진다는 것을 명시한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여러 측면에서 일본 메이지헌법의 입헌방식을 모방. 시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71] 신우철,『근대입헌주의 성립사 연구-청말입헌운동을 중심으로』,『법사학연구』, 제 35 호

등을 편찬하였다. 특히 입헌군주제는 혁명자의 극단적인 혁명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內亂可弭) 외세의 압력도 약화시킬 수 있으면서 (外患漸輕) 군주체제도 잘 보존될 수 있다(君統萬世不易)라는 이유로[72] 조정에 황족친척인 재택도 비밀히 글을 올려 입헌군주제의 시행에 대해 서태후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였다.

청나라 정부는 1906 년 9 월 1 일에 "조정은 대권(大權)을 장악하고 서정(庶政)은 공중의 토론을 거친 후 진행된다"(大權統于朝廷, 庶政公諸輿論)는 것을 취지로 하는 입헌제를 채택할 것이라는 "예비입헌"의 조서를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이후 청나라의 입헌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입헌운동의 전개는 전제정치에 대한 불만, 입헌사상의 발전, 서태후의 태도변화, 국내 혁명세력의 성장, 그리고 러일전쟁 중 입헌제 국가인 일본의 승리 등 일련의 원인과 관련된다. 청나라 정부가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신하와 외국 주재사절의 요구에 순응하여 예비입헌을 선포하였다. 그 후 7 년 동안 청말 입헌운동(1906-1911)이 전개되었다.

먼저 관제(官制)개혁을 진행시키고 지방재정과 군사권을 조정에 귀속시키며 독무[73] (督撫)의 권력을 약화시키자는 오대신의 건의에 따라 1907 년 지방관제의 개혁(丙午官制)이 먼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나라 당국은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의도를 나타냈다. 우선 전국 각성의 독무에서 군권과 재권을 거둬들이고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권위가 높은 한인(漢人) 독무인 위안스카이와 장지동이 군기대신으로 승진되는 이유로 가까운 곳으로 옮겨지고 감시를 받기 시작하였다. 다른 한편 청나라 당국은 입헌의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향후의 국회와 지방의회의 기초를 닦기 위해 의정(議政)기관을 수립할 것을 선포하였다. 1907 년 북경에서는 자정원(資政院, 중앙의회에 해당함)을 세우면서 각 성(省)의 성도 소재지에서는 자의국(諮議局, 지방의회에 해당함)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국내의 장건(張謇)을 비롯한 입헌파와 국외의 캉유웨이와 량치차오를 비롯한 보황당(保皇黨)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캉유웨이는 해외에서 보황회(保皇會)를 제국헌정회(帝國憲政會)로 바꾸며 청나라 황실에 대한 충성을 표명하면서 혁명당과 양립하는 결심을 표하기도 하였다. 량치차오도 동경에서 정문사(政聞社)를 조직하여 "황실에 대해서는 존엄성을 침범하려는 마음이 없고 국가에 대해서는 사회혼란을 불러일으킬 의도가 없다"[74] 라고 선언하였다.

[72] 『清末籌備立憲檔案史料』(上)故宮博物院明清檔案部編, p.176

[73] 독무: 총독(總督)과 순무(巡撫). 명청(明淸)대에 지방의 최고 군사 장관과 행정 장관.

[74] 『辛亥革命』叢刊, "政聞社宣言", (四), p.115
원문: 其对于皇室, 绝无干犯尊严之心；其对于国家, 绝无扰紊治安之举".

그들은 국내 입헌운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청나라 정부의 양해를 바랐다. 한편 국내의 입헌파는 각 성의 자의국을 중심으로 하여 개명신사와 상인들과 함께 청 정부로부터 많은 권력을 쟁취하였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화교나 유학생들과 예비입헌공회(豫備立憲公會), 헌정예비회(憲政豫備會), 헌정공회(憲政公會) 등 정치적 단체를 수립하였다. 그들도 정부에『국회를 다시 열라는 청원서』(請願續開國會書)을 올려 조속히 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하였다.

많아지는 요구와 높아진 열정에 따라 청나라 정부는 1908 년에『흠정헌법대강』을 반포하였고 9 년 후 입헌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 선언하였다. 이것은 중국 역사상 첫째 헌법대강으로써 "군주의 신성스러운 권력을 침범할 수 없다 (君上大權神聖不可侵犯)"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전제주의적 성격이 짙었지만, 기본상 신민의 언론, 저작, 출판, 집회, 결사, 사유재산,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삼권분립의 원칙을 구현했기 때문에 중요한 진보적인 의미가 있다.『흠정헌법』이 반포된 지 얼마 안 된 후에 광서제와 서태후가 연이어 서거하였다. 그러나 선통(宣統) 황제가 즉위한 후 그의 아버지인 섭정왕(攝政王)은 큰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만주족 황실을 중심으로 하는 집권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군정을 확고히 잡기 위해 대부분의 중요한 직무를 자신의 친척지인에게 옮기고 한족관료를 배척하였다. 이 때문에 혁명파의 폭력혁명을 더욱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한족관료 및 입헌파 인사를 실망시키기도 하였다.

만주족 황실을 중심으로 집권하려는 의도를 감추기 위해 "예비입헌"의 결심을 다시 강조하고 원래의 계획대로 자정원과 자의국을 공식적으로 수립하였다. 1909 년 국내의 많은 입헌파 인사가 선거를 통하여 각 성 자의국의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상해에 모여서 "자의국연합회"(諮議局聯合會)를 설립하였다. 9 년의 "예비입헌시간"에 보편적으로 불만을 가진 입헌파와 부분적 민중이 청나라 정부에 예비시간을 단축하고 조속히 국회와 내각을 설립해 달라고 하기 위해 1910 년에 연속 3 번이나 청원활동을 진행하였다. 각종 여론의 압력이 커지고 혁명 분위기도 점점 농후해진 상황에서 청나라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예비입헌의 시간을 3 년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승낙하고 1913 년에 자정원을 대신하는 의원을 설립할 것이라는 조서를 내렸다. 그리고 국회가 설립되기 전에 먼저 내각을 설립하고 헌법을 편찬하고 수정하며 청원활동을 엄벌로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청나라에 억눌린 입헌파는 정치활동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청조의 태도는 입헌파의 입헌운동이 실패한 계기가 되었으며, 청조에 의존하여 기존

질서를 유지한 채 개혁을 꾀하던 입헌파들은 청조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혁명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1911 년 5 월 군기처(軍機處)를 폐지하고 새로운 내각을 드디어 수립하였다. 그러나 기대한 것과 달리 내각대신 총 13 명 중에 황실 구성원은 9 명이나 차지하고 한족관료는 4 명밖에 없었다. 군정, 민정, 재정 등 중요한 직무는 하나도 예외없이 황족에게 장악되었다. 당시 혁명파와 입헌파는 이를 두고 황족내각이라며 비판하였다. 황족내각의 형성은 만주족과 한족 간의 갈등을 극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입헌운동의 중요한 목표인 책임내각제의 달성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이 때 청나라가 5 년 동안(1906-1911) 벌여 온 입헌운동은 여러 번이나 성의를 보여주지 않아 결국 입헌파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을 실망시켰고 청나라 정부는 민심을 크게 잃어버렸다. 입헌파 신문지인『국풍보』(國風報)도 "이름으로는 내각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군기(軍機)이다. 이름으로는 입헌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전제이다."[75] 라고 비판하였다.

청나라 조정은 마지막 10 년 간 서구식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고 근대 제도를 수용하고, 군사·재정 등의 행정권을 회수하여 중앙집권화를 시도하였으며, 정치, 경제, 사법, 교육, 군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내용적 모순 및 만한(滿漢)갈등 그리고 내외적 역량 부재로 혁명파의 불만을 초래하였다. 마침내 1911 년 10 월 10 일 무창(武昌)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나 신해혁명이 발발하고, 사회의 정치시세를 철저하게 되돌린 신해혁명은 입헌에 많이 기대했던 입헌파에게 입헌의 염두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면서 점점 혁명을 동정하고 지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이듬해 2 월 12 일 청나라는 공식적으로 멸망하면서 청말의 신정개혁도 실패로 끝났다.

3. 혁명운동의 전개 및 국체간의 논쟁

청말 멸망 전의 몇 년 동안 입헌운동이 벌어짐에 따라 혁명운동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었다. 1903 년 전후 온화한 개혁을 통하여 입헌군주제를 수립할 것인지 아니면 격렬한 혁명을 통하여 민주공화제를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 전국적 논쟁의 초점이 부상되었다.

청나라 말기 혁명운동의 발전을 제기하면 혁명파의 대표자인 손문을 빼놓을 수 없다. 1894 년 그는 이홍장에게 정치개혁의 주장에 관해 상서를 올렸지만 중요시 되지 못하였다. 청일전쟁의 패국을

[75]『國風報』第 2 年,第 14 期, p.73; "名為內閣, 實則為軍機, 名為立憲, 實則為專制."

봤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 당국자가 여전히 개혁하는 의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손문은 무력으로 청나라 정부를 뒤집어야 중국이 생존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로 인해 그 후 그는 혁명운동에 몰두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11 월 하와이에서 근대 중국의 첫째 혁명단체인 흥중회(興中會)을 설립하였다. "만주족을 쫓아내고 중화를 회복하여 합중정부를 창립한다"(驅除韃虜·恢復中華·創立合眾政府) 는 것을 취지로 세워진 흥중회는 1900 년 전까지 두 번의 봉기를 일으켰지만 지식인들이 혁명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높지 않았고 혁명세력의 힘도 약했기 때문에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개혁파가 주도한 무술변법과 의화단사건의 실패에 따라 일부 사람들이 청나라에 대해 실망했기 때문에 혁명세력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02 년-1903 년간 신정을 실행하는 일환으로 청나라에 일본으로 파견된 중국유학생이 급격히 늘어났음에 따라 루소사상을 비롯한 각종 민권을 주장하는 이론을 인식하고 선양하는 청년지식인도 많아졌다. 국내외에서 여러 번이나 학생운동이 발생하면서 청나라 정부의 가혹한 탄압으로 인해 점점 "만주족을 배척함"(排滿)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운동으로 변하였다. 1900 년부터 1905 년까지 중국혁명운동의 점점 발전·확대한 시기이었다. 한편은 지식인을 위주로 한 혁명단체가 많이 생기고 혁명사상이 중국 전국으로 신속히 퍼졌다. 다른 한편 손문을 중심으로 한 혁명세력과 합쳐서 더 크고 강한 혁명세력을 이루었다. 1905 년 8 월 손문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동맹회(中國同盟會)가 동경에서 설립되었고 만주족을 타도하고 공화국을 설립하려는 급진적 정치 집단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중국의 혁명세력은 공식적으로 형성되고 계속 발전·확대해 갔다. 당시 중국동맹회는『군정부선언』을 통하여 "만주족 배척함"(驅除韃虜), "중화를 회복함"(恢復中華), "민국을 창립함"(創立民國), "토지 소유권을 균분함"(平均地權) 이 4 가지의 혁명목표를 구체적으로 확립하였다. 또 장차 수립할 국체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였다.

> "지금 평민혁명을 통하여 국민정부를 수립하고 모든 국민은 다 평등하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 선출되고 의회는 국민에게 선출된 의원으로 이루어진다. 중화민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모든 사람은 잘 지켜야 한다. 제제(帝制)를 수립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천하 모든 사람이 다같이 공격해야 한다."[76]
>
> (今者由平民革命以漸國民政府, 凡為國民皆平等以有參政權. 大總統由國民共舉. 議會以國民公舉之議院構成之, 制定中華民國憲法, 人人共守. 敢有帝制

[76]『共和國的追求與挫折-辛亥革命與中華民國的成立』,(香港:商務印書館,1992), p.33

自為者，天下共擊之！)

1903 년 전에 사상계는 기본적으로 신학(新學)과 구학(舊學)이 서로 대립하는 상태에 처해졌다.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개혁파와 혁명파는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다 전제정치를 비판하는 진보적인 세력에 속하였다. 그러나 1903 년 후 입헌파와 혁명파 간의 입장차이가 점점 분명해지고 심지어 대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77]

무술정변 후 원래 혁명을 지지하던 량치차오는 1903 년에 미국에서 돌아온 후 민주공화제 국가의 많은 폐단을 봐서인지 크나큰 사상적 변화가 생겼으며 입헌군주제를 지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변하였다. 1904 년 손문은 량치차오의 이러한 태도변화에 대해 『동향인에게 고하는 글』(告我同鄉書)를 발표하였다.

> “혁명과 보황(保皇)은 이(理)는 서로 용납할 수 없고 세(勢)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혁명과 보황은 둘로 나뉘는 것은 흑과 백이 섞을 수 없는 것과 같고 동과 서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없는 것과 같다.”[78]
> (夫革命與保皇，理不相容，勢不兩立…革命、保皇二事，決分兩途，如黑白之不能混淆，如東西之不能易位)

이때부터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 혁명파와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입헌파가 갈라지고 언론적인 차이도 분명해졌다. 1905 년부터 혁명파의 관점을 대표하는『민보』(民報)와 입헌파의 관점을 대표하는 『신민업보』(新民業報)는 국체를 둘러싸고 3 년 동안(1905-1907) 논쟁을 벌였다.『민보』는 손문이 제기한 “삼민주의”[79] 의 정치이념을 지도사상으로 정하는 반면,『신민업보』는 입헌군주제 및 개명전제론을 지도사상으로 정하였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파별	혁명파	입헌파

77 『관념사란 무엇인가-2 관념의 변천과 용어』,진관타오.류칭펑 지음, 양일모 등 옮김. 푸른 역사 출판사, 2010,p.482-283

78 『共和國的追求與挫折-辛亥革命與中華民國的成立』,p.44

79 삼민주의: 민족주의(民族主義), 민권주의(民權主義), 민생주의(民生主義)를 뜻한다. 민족주의: 초기에는 만주족의 청조(清朝)를 타도, 축출해서 민족의 독립을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민권주의: 제국주의와 결탁을 맺고 있던 군벌을 타도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민에게 되돌리자"는 의미였다. 민생주의: 토지 평등 분배, 경제적 불균등 등의 개선을 의미한다.

쟁점		
민족혁명은 필요한가?	민족혁명을 지지한다. 1 만주족이 한족을 압박한다. 2 청나라 정부가 대외적으로 국가를 팔아먹고 대내적으로 종족차별을 실행하기 때문에 혁명을 하지 않으면 국가를 살릴 수 없다.	민족혁명을 반대한다. 1 청나라의 종족차별 정책을 개정할 수 있다. 한족인의 정치지위와 법적 지위는 만주족과 큰 차이가 없다. 2 권력확대에 관한 입헌을 요구하면 된다.
토지평등배분은 가능한가?	토지평등배분을 해야 한다. 1 소수 사람의 독점을 막기 위해 대다수의 복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2 지주와 평민간의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다.	토지평등배분을 할 필요가 없다. 1 폭민의 정서를 조장할 것이다. 2 지주가 재산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토지국유화를 진행할 것을 반대한다. 3 자본가에 대한 격려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혁명은 열강의 간섭과 내란을 초래할 수 있는가?	열강의 간섭과 분할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1 혁명의 일차적 목적은 외세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만주족을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강이 간섭할 핑계가 없다. 2 혁명이 내란을 꼭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3 분할위기는 혁명에 달려 있지 않고 부패무능한 만주족 청나라 정부가 독립하고	열강의 간섭과 분할을 초래하고 내란도 불러일으킬 것이다. 1 혁명을 진행하면 국내에서 사회적 혼란을 꼭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코스트가 너무 크다. 2 협소한 민족주의(만주족 배척)를 반대한다. 전국의 통일을 지켜야 한다. 3 외국의 간섭과 분할을 야기하는 핑계를

	자주적인 국가를 수립할 수 없다는 사실에 달려 있다.	제공할 것이다.
국민이 민주공화제에 맞는 국민수준을 갖고 있는가?	1 인권천부적이다. 국민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는 각종 권리를 누린다. 2 중국국민수준이 낮은 원인은 전제사회 중 장기적으로 압박을 받아온 결과이다. 조속히 전제에서 벗아나 자치 능력을 육성해야 한다.	1 중국국민이 의회정치를 진행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고 공화제국가의 국민수준에 미달된다. 2 먼저 국민수준을 향상시키고 애국의식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3 개명전제를 먼저 이행단계로 삼아 실시하고 그 후 입헌군주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표 2-3> 혁명파와 입헌파간 주요 관점의 비교

이런 치열한 국체논쟁을 거치면서 혁명파를 대표하는『민보』가 설득력과 기세 면에서 우세를 차지하였고 입헌파를 대표하는『신민업보』는 폐간되었다. 중국역사의 발전과정에서 보면 강력한 지도자가 정권을 잡아야만 빠르게 현대국가건설이 가능하면서 외부세력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혁명파와 입헌파는 다 동의하였다. 입헌파의 대표인물인 량치차오의 관점에 따라 중국국민에게 개명전제가 필요하고 점진적으로 교육을 보급함으로써 국민이 현대화적 정치생활에 적응하게 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동맹회 지도자인 손문의 관점에 따라 중국이 서구를 초월하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선각자처럼 혁명지도자가 주도한 민족혁명을 통하여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수립하고 하루빨리 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현대국가를 성립해야 한다. 내란과 외세를 막으면서 혁명도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손문은 군정(軍政), 훈정(訓政), 헌정(憲政)이라는 세 단계로 나눠 실시할 것을 제기하였다.[80]

[80]『中國立憲史』,"中山先生的建國三序方略", p.358-364; 군정시기: 혁명이 성공한 후 각 현(縣)에서 3 년 내 군정부의 관리를 받으면서 지방자치 정부를 수립한다. 훈정시기: 6 년 내 국내의 시국을 안정되게 하고 국민의 정치수준을 교육시키며『중화민국약법』(中華民國約法)을 준수해야 한다. 헌정시기: 『중화민국헌법』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이 때 국민은 대통령 선거 및 의회원 선거에 참여하는 권리를

손문을 비롯한 혁명파의 주장은 량치차오를 비롯한 입헌파의 주장보다 낙관적이고 청년지식인과 사회대중의 인정을 받기가 더 쉬웠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의 관점은 다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많다. 입헌파의 결함은 청나라 정부가 입헌제를 쉽게 받아들이리라고 기대하고 민족간의 갈등을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해 종족과 혁명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서 혁명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혁명파의 결함은 혁명으로 인해 일으킬 사회혼란의 심각성, 외세가 간섭할 가능성 및 혁명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준을 낙관적으로 예상하는 경향이 있다.『신민업보』의 주필을 담당한 량치차오는 몇 천년 동안 전제사회의 박해를 받아온 중국국민이 어리석기 때문에 먼저 교육을 통하여 국민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시종일관 주장하였다. 이런 개혁방향은 옳지만 이것에 고집하여 혁명을 반대하는 이유가 된다면 조금 고집스러운 스타일로 나타났다. 혁명파의 장병린(章炳麟)은 그후 “공통된 도리가 밝혀지지 않으면 혁명으로 밝힐 것이고 낡은 폐단이 있으면 혁명으로 제거할 것이다. 혁명은 국민에게 큰 재앙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수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보약이다 ”라고 강력하게 반박하였다.” [81] 혁명의 전개와 국민수준의 향상은 전후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서로 촉진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혁명을 진행하는 과정에 국민의식을 바꾸는 데에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고 꼭 국민수준을 높여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 때의 혁명파는 청나라 정부를 뒤집기 위해 반정부 선전이나 봉기, 암살 활동을 비롯한 실천 활동에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5.4 운동 때까지 사상계몽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시하였다. [8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헌파와 3 년 동안의 논쟁을 거친 후, 그 때의 혁명파의 이론주장이 더욱 명확해지고 영향력도 강해진 반면 사람들이 입헌운동에 대한 실망감이 커짐에 따라 점점 사회사상의 주류가 되었다.

혁명파의 주장은 루소사상 중의 사회계약론, 천부인권론 등 이론과 밀접하다. 청나라 멸망 전의 몇 년 동안 루소사상은 중국사회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혁명당의 기관당보인 『민보』와 다른 혁명당의 잡지나 저작들 [83] 중에 『민약론』(民約論),『주권재민론』(主權在民論)에 관련된

가지기 시작한다. 중화민국은 헌법에 따라 운행한다.

81 章炳麟,「駁康有為論革命書」,『中國政治思想史』,p.876
“公理之未明, 即以革命明之；舊俗之俱在, 即以革命去之.革命非天雄大黃之猛劑而實補寫兼備之良藥.”

82 위와 같은 책, p.867

83 청말 유행한 鄒容의『革命軍』및 陳天華의『猛回頭』등 작품은 루소의

내용을 흔히 찾을 수 있었다. 루소의 민권이념은 혁명당 원로인 황흥(黃興)등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중국 유학생에게도 가장 혁명적인 지도사상으로 간주되면서 널리 전파되고 있었다. [84] 루소사상의 전파가 청나라 정부를 뒤집고 신해혁명을 추진하는 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고 혁명운동을 전개하는 이론적 초석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지었다.[85]

본인은 이런 관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1903 년 전후 량치차오가 입헌제와 공화제에 대한 태도의 변화 및 그의 루소에 대한 평가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루소사상과 혁명이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899 년 량치차오는 『청의보』(淸議報)에서 『파괴주의』(破壞主義)를 발표했다.

> "근세 유럽에서 국가를 다스리는 각종 학설은 몇 십 가지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 오늘날의 중국에 가장 맞는 것은 루소선생의 민약론만 아니겠는가?...오호라 민약론은 원래 동방에서 온 것이다. 동방대륙은 문명의 발원지이자 신비로운 곳이다. 오늘날의 세기와 같은 경우 지구상 나라마다 다 자주적이고 국민마다 독립적이고 그냥 중국만 딴 국가보다 뒤떨어졌다. 만약 중국도 민약론대로 한다면 대동(大同)세계도 곧 다가올 것이다. 오호라 민약론이여, 원래 동방에서 온 것이고 대동세계여, 그 때가 너의 공적이다."[86]
>
> (歐洲近世醫國之國手, 不下數十家, 吾視其方最適於今日之中國者, 其惟盧梭先生之民約論乎？…嗚呼, 民約論, 尚其東方, 東方大陸, 文明之母, 神靈之宮, 惟今世紀, 地球萬國, 國國自主, 人人獨立, 尚餘此一土以殿諸邦. 此土一通, 時乃大同.嗚呼, 民約論兮, 尚其來東, 大同大同兮, 時汝之功.)

그 후 량치차오가 자신이 쓴『루소학안』(盧梭學案)을 1901 년의『청의보』와 1902 년의『신민업보』에서 발표하였고 자세히 루소의『사회계약론』과『주권재민론』 등 이념을 소개하였다. 1903 년 초까지 그는 『어떤 사람의 프랑스가 민권자유를 금하는 설에

주권재민사상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면서 국민이 국가를 다스리는 권리가 있고 정부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대표작이다.

84 小野川秀美, 林明德,黃福慶譯,『晚淸政治思想研究』(臺北:時報出版公司,民國 71),p.334

85 朱浤源「同盟會的革命理論：民報個案研究」,p.115;
島田虔次「中国での 兆民受容」,『中江兆民全集月報』(2),1983,p.3;
黃克武,『自由的所以然-嚴複對約翰彌爾自由思想的認識與批判』(臺灣:允晨文化, 1998),p.272
李澤厚,「論嚴複」,『中國近代思想史論』(安徽文藝出版社,1994),p.210
蕭公權,『梁啟超與淸季革命』(台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1964),서장.

86 梁啓超,「自由書」(臺北:中華書局, 1979 년), pp.25-26

답변함』(答某君聞法國禁止民權自由之說)중에 “오늘의 중국을 다스리면 꼭 먼저 사람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자유가 있다는 것도 알게 해야 가능하다. 『민약론』바로 오늘의 중국에 제일 맞는 최선의 방법이다.”[87]라고 루소를 극히 칭찬하였다. 그러나 량치차오가 1903 년에 미국에서 돌아온 후에 루소에 대한 평가는 큰 변화가 생겼다. 이와 동시에 그의 정치적인 경향도 혁명공화제 주장으로부터 입헌제주장까지 전환되었다. 1903 년의『정치학자인 블룬칠리의 학설』(政治學大家泊倫知理之學說)이라는 글에서 그가 루소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 “루소의 학설은 백년 전의 정치계에서 강력한 변동을 일으켰는데 이와 반대된 불룬칠리[J.K.Bluntschli]의 학설과 누가 진리와 더 가까운지 루소의 학설은 약인 것 같고 불룬씨의 학설은 식량인 것 같다…(루소의 학설에) 담겨 있는 빌미는 지금 점점 싹트고 점점 확산해 가고 있다. 한 나라에서 현재나 미래가 불가사의한 위험한 현상이 이미 보일 듯 말 듯하고 있었다.”[88]
>
> (盧梭學說於百年前政界變動最有力者也，而泊倫知理學說[J.K.Bluntschli]，則盧梭學說之反對也，二者孰切真理，曰盧氏之言藥也，伯氏之言粟也…（盧氏學說）因緣相生之病，則已漸萌芽，漸瀰漫，一國中現在未來不可思議之險象，已隱現出沒.)

총괄적으로 말하면 근대중국 루소사상의 의미는 군권을 대항하기 위해 민권을 강력하게 고취시키는 데에 있다. 즉 권력의 합법적 기초는 정치참여를 통한 전체국민의 “공공적인 의지”(general will)에 달려 있는 것이다. 당시의 많은 중국지식인들도 국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국가가 되어야 전제로 인한 권력의 남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에 동감하였다. 신해혁명의 발발이 루소사상의 전파와 그 내용 및 주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면 적당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4. 청말신정 및 민국초기 기간 옌푸의 활동

옌푸(嚴復, 1853-1921)는 푸젠성(福建省) 후관현(侯官縣) 출신의 사람이다. 소년시절에 푸저우(福州)의 선정학당(福州船政學堂)에서 공부하고 1877 년 유학생으로서 영국에 건너가 해군의 기술과 학과를 배웠으나, 오히려 서양의 제도와 사상의 연구에 관심을 두었다. 1879 년 귀국 후 톈진(天津)의 북양수사학당(北洋水師學堂)의 총교습(總教習)을 담당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불만족하여 4 번이나 과거시험을 시도해

[87] 『新民業報』,1903.2, 第 25 號, p.106
[88] 『新民業報』,1903.10, 第 38,39 號

봤지만 모두 떨어지고 말았다. 청일전쟁 후 옌푸가『직보』(直報)에서『강함이란 무엇인가』(原强),『세계의 변화가 빠름을 논함』(論世變之極),『죽음에서 살아남기 위한 결론』(救亡決論),『한유를 비판한다』(辟韓)등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중국의 언론계에서 활약하기 시작하였다. 1898 년 무술변법 때『천연론』이 공식적으로 출간되면서 옌푸의 사회지명도가 많이 높아졌다. 청말신정의 전개에 따라 이미 사회에서 유명한 교육학자로서의 옌푸는 물론 불가피하게 휩쓸려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번역, 강연, 정치평론 등 여러 가지의 방식을 통하여 입헌군주제를 고취시키고 자신의 뛰어난 학술능력으로 입헌운동을 위해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였다.[89] 다른 한편 옌푸는 사회변혁의 코스트가 너무 클 것을 우려하여 폭력혁명을 내내 반대하였다. 혁명파의 걸림돌이 된 그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1902 년부터 1904 년까지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의 역서국(譯書局)에서 일했던 옌푸는 서양의 학술 서적을 번역하는 작업에 힘을 쏟았다. 스펜서(Herbert Spencer) 의『사회학연구』,밀(Mill)의『자유론』, 젠크스(Edward Jenks)의『정치학사』, 등 18, 19 세기 유럽의 지적 산물을 각각『목륵명학』(穆勒名學,1903.1),『군학이언』(群學肄言,1903.5),『군기권계론』(群己權界論,1903,10),『사회통전』(社會通詮,1904.3)이라는 서명으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1905 년 미국제품 불매운동에 이견을 가지고 있는 옌푸는 많은 사람의 분노를 사 일시 뭇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로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옌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국민수준이 저하하는 현황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90]같은 해 상해 기독교 청년회(YMCA)의 초청을 받은 옌푸는 8 차례에 걸쳐 정치학의 근본 원리를 둘러싸고 강연하였다. 정치학의 과학화, 국가유형에 대한 검토와 정치자유에 대한 정의를 중심으로 한 옌푸의 강연은 중국이 정치자유가 없는 전제국가라고 지적하면서 진화론의 규칙에 따라 민주헌정이 결국 전제독재를 대신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민주제도가 수립되면 황실을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중이 의원이나 국회를 통하여 폭력혁명이 아닌 정부를 바꿀 수 있는 평화로운 혁명을 이룰 수 있다는 관점도 제기하였다. 그리고 입헌제 실시의 필요성이 이미 발등이 불이 떨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청나라 정부에 심각하게 경고하였다. 1906 년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은 옌푸의 연설 내용을『정치강의』라는 책으로 편찬하여 출간하였고『중외일보』(中外日報),『광익종보』(廣益從報)등 당시 중요한

89 李澤厚著『中國近代思想史論』,p.210

90 皮後鋒著『嚴複評傳』(南京大學出版社: 2011),pp.27-29

신문지에서 연재하였다.[91] 뿐만 아니라 옌푸는 입헌제 실행에 대한 이론 및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1905 년부터 1908 년까지 옌푸는 주로 푸단공학(復旦公學)와 안휘고등학당(安徽高等學堂)에서 교육에 관련된 일련의 개혁 및 청나라 정부 국비유학생 선발 등 일에 참여하였다. 물론 이와 동시에 청나라 정부는 옌푸의 사회지명도를 이용하고 그가 제기한 입헌운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전하였다. 그러나 일련의 실권이 별로 없는 한직만 그에게 맡겼다. 교육계에서 활동해 온 옌푸는 1909 년 5 월에 청나라 정부에 헌정편찰관(憲政編察館)의 2 급 자의관(諮議官)로 임명되었다. 동시에 탁지부(度支部, 재무부)의 재정자의관, 복건(福建)성 고문관, 학부(學部 교육부) 명사 심사관(名詞審查館)의 총편집 등 직무를 겸하였다. 1909 년 9 월 학부승참[92](學部丞參)이 되고 1910 년 1 월 문과진사(文科進士)로 하사되고, 2 월 해군사무처 고문관으로 임명되고, 5 월 "碩學通儒(석학통유)"[93] 의 명분으로 청나라 정부에 자정원의 의원으로 지목되고 12 월 해군부 1 급 참모관으로 특별히 수여되었다. 1911 년 4 월 또 해군 1 급 참모관에서 해군 협도통(協都統, 소장)으로 특별히 수여되고 6 월 중앙교육회의 구성원으로 지명되었다.[94]

이상의 관직은 대부분 명예 직함뿐이었기 때문에 옌푸는 태연하게 대했다. 청일전쟁 전 네 번이나 과거시험에 떨어진 그는 문과진사의 하사에 대해 냉담하였다. 그리고 임명된 각종 직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신은 그 책임을 이미 포기했다는 말까지 하였다.[95] 그러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런 직무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문학과 음악에 조예가 깊은 옌푸가 신해혁명 발발 6 일전(1911 년 10 월 4 일)에 청나라를 위해 국가(國歌)인『鞏金甌』의 가사(歌詞)를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청나라의 국가이자 중국 역사상 최초 국가이기도 하다.

> 우리나라의 국토는 하나님의 보우를 받아서 금으로 만든 작은 사발처럼 아주 튼튼하다. 민중만물은 들오리가 물놀이를 하는 것처럼 행복하다. 동포도 기쁘게 서로 만나고 운이 좋게 이런 태평성세에서 살고 있다, 참 즐겁다. 하나님의 보우를 받는 제국의 하늘은 높고 파도도 세차게 출렁거린다.[96]

---

91 皮後鋒著『嚴復大傳』(福建:人民出版社, 2003),p.353

92 승참: 청말 관직 중의 하나이다. 승: 기밀문서와 내부사무를 처리하는 관료이다 참: 관련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하는 관료이다. 이 두가지의 사무를 합쳐서 승참이라고 한다..

93 석학통유: 여러 학문에 널리 통달한 학자와 박학다식한 학자를 가리킨다.

94『嚴復大傳』참조

95『嚴複大傳』참조

96 劉錦藻,『清朝續文獻通考』,第 199 卷(商務印書館:1936),p.9480

(鞏金甌, 承天幬, 民物欣熙藻. 喜同袍, 清時幸遭. 真熙嘏, 帝國蒼穹保. 天高高, 海滔滔.)

Firm and Stable be the "golden cup" (which means the empire) domed by the Celestial concave. In it men and things happily prosper. Glad are we who live in the time of Purity. May Heaven protect and secure us from enemies and help us to reach the truly golden age! Oh! The Blue firmament is infinitely high and the seas flow everlastingly.[97]

주지하듯이 신해혁명 전 천재가 잇따르며 나라가 쇠퇴하고 국민도 가난해진 상황에서 청나라 정부는 위에서는 열강의 강압이 있고 밑에서는 민중의 반항도 끊기지 않았다. 옌푸가 지은 이 가사는 현실상황과 완전히 다르다. 이 노래는 며칠 후 신해혁명의 발발로 인해 아직 전국에 전파되지 못한 채 청왕조 멸망의 부장품이 되어 버렸다. 옌푸가 이 노래를 위해 작사한 사실도 일반 사람들이 모른 채 역사의 흐름 속으로 침몰되고 말았다.

신해혁명 발발 후 전국 여러 성은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옌푸는 신해혁명 후 발생한 일련의 혁명을 직면하여 걱정을 표하였다. 1911 년 11 월 영국『더타임스』(The Times)의 기자인 모리슨(G.E Morrison)에게 보낸 편지에서 폭력혁명을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표하였다.[98] 특히 이런 협소한 만주족을 배척하는 종족주의가 향후 민족간 서로 증오하는 빌미로 될 것까봐 걱정하였다. 만주, 몽골, 신강, 티베트 등 소수민족지역이 원래 외세의 간섭을 받기가 쉽고 또 민족간의 갈등도 심해지게 되면 중국이 다시 사분오열의 지경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옌푸는 중국 국민수준이 낮기 때문에 중국이 공화제에 맞지 않으며 동시에 혁명당과 청나라 정부의 화해를 달성시키기 위해 열강의 간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2 월 옌푸는 위안스카이에게 복건성의 담판대표로 임명되고 남북회담에 참석하였다. 그 때 많은 담판대표들이 이미 삭발했지만 옌푸는 공화제를 반대하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여전히 자신의 땋은 머리를 보유하였다. 남북회담을 통하여 그는 혁명당의 주장을 점점 알아보면서 자신이 청나라 정부를 지지하는 행위를 위해 계속 변명하였다. 역사적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회담은 위안스카이가 더 큰 권력을 도모하기 위해 청나라 정부와 혁명당 간의 갈등을 이용하여 양측을 같이 협박할 수 있는 어부지리의 수단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옌푸는 그가 진심으로 입헌군주제를 옹호하는 줄 알았고 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계속

[97] Lo Hui-Ming, *The Correspondence of G.E. Morrison*, London: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ed. p.768

[98]『清末民初政情內幕』(上海知識出版社:1986), pp.781-786

속고 있었던 것이다. 1912 년 2 월 12 일에 청나라 황제가 퇴위를 선포한 후에 중국에서 2 천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군주제는 철저하게 역사 무대에서 물러났다. 이로 인해 옌푸가 입헌군주구상 중 의탁한 중요한 대상인 군주는 사라지고 말았다.

1912 년 3 월 옌푸는 중화민국 임시대통령인 위안스카이의 임명을 받아서 경사대학당의 총감독을 담당하게 되었다. 5 월 경사대학당이 북경대학교로 공식적으로 변경하면서 총감독도 총장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물정에 어둡고 조금 고결하고 도도한 스타일의 옌푸는 북경대학교에서 일하면서 교육부와 점점 갈등이 생겼다. 이어 인간관계 관리에 능숙하지 못하고 자존심도 강한 옌푸는 10 월에 사직을 선언하였다. 그 후 위안스카이의 고문관을 담당하였고 위안스카이를 비롯한 정치에 말려들었다. 민국초기의 옌푸는 한 정치강자가 강력한 수단을 통하여 혼란스러운 사회질서를 빨리 안정시킬 바랐다. 위안스카이의 품행이 고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속에 이상적인 정치강자가 아니지만 위안스카이를 빼고 다른 사람이 없었다.[99] 그는 어쩔 수 없이 위안스카이와 다시 협력하게 되었다. 1912-1913 년간 그는『헌법을 가볍게 논함』(憲法芻議), 『국회의원이 사군자다운 품격이 있어야 함』(論國會議員須有士君子之風) 등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독재를 원하는 위안스카이의 열악한 행동을 적나라하게 변명해 주었다. 1914 년 상반기 옌푸는『중화민국임시약법』(中華民國臨時約法)을 개정하고 심사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중화민국약법』이 생겨나면서 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꾸고 대통령 위안스카이의 권력을 강화하였다. 그는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개정안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대통령선거개정안은 대통령의 임기가 10 년이고 또 임기가 제한이 없는 조항을 규정하였다. 1915 년 황제가 되려고 하는 위안스카이는 일본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일본 측이 제기한 21 개조 요구[100]를 받아들였다. 위안스카이를 변명해 주고 정치강자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옌푸는 이 때부터 완전히 실망하였고 더 이상 위안스카이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다. 1915 년 8 월 위안스카이 복벽을 기획하는 주안회(籌安會)가 수립되었다. 주안회의 발기자인 양도(楊度)는 여러 번 옌푸에게 참석을 권유하였다. 옌푸는 말로 찬성을 표했지만 위안스카이와 상당한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주안회 참여자 명단에

[99]「民國初建, 政府未立, 嚴子乃為此詩」,『嚴複集』,p.380, "美人其不來, 烏啼蜃窗白."

[100] 1915 년 1 월 18 일 제 1 차 세계 대전 중 일본이 중국에 대해 요구한 21 가지 특혜조건을 말한다. 그 내용은 산둥성·남만주,동부 몽골에서의 일본의 특수권익 승인, 중국정부 각 기관·군대에의 일본인 고문 고용 등이 주요한 골자로 되어 있다. 이 21 개조에 대한 처리는 중국의 민중이 위안스카이에게 실망한 계기가 된다.

올랐던 사실로 인해 훗날 반동후퇴라는 비판을 받았다. 홍헌제제 사건 후 충격을 받은 옌푸는 군벌혼전, 부의복위, 5.4 운동 등 불안정한 국내 형세와 1 차세계대전의 혼란스러운 국제 형세를 보면서 공개적 발표를 대신하여 자주 서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노자와 장자의 사상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17 년 후 그는 건강상태가 악화되면서 공중의 시선에서 벗어났다. 1921 년 10 월 27 일 자신의 정치주장이 실현되지 못한 유감과 미래 중국에 대한 기대를 품은 채 세상을 떠났다.

III. 전제정치에 대한 옌푸의 견해

1. 서구정치사상의 수용

옌푸는 서구정치학 이론에 관한 이해를 성취한 바가 크고 밀(Mill)의『군기권계론』(群己權界論, On Liberty),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법의』(法意, the Spirit of Law), 및 영국 역사학자인 존 실리(John Seeley)의 『정치강의』(政治講義,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등 중요한 저작을 번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스펜서(Spencer) 등 사상가들의 정치이론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정치체제 이론 측면에서 옌푸는 주로 아리스토텔레스, 몽테스키외, 및 실리 등 사상가의 이론에서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몽테스키외의 『법의』 작성되었던 시대가 옌푸가 살았던 시대와는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 중의 많은 정치이론이 세계 정치발전의 실질적 상황을 더 이상 해석할 수 없게 되고 이에 관해 후세의 학자도 비판적인 관점을 제기해 본 적이 있다. 옌푸는 실리의 『정치강의』의 내용을 인정하고 근대 중국의 실질적 상황과 결합하여 아리스토텔레스와 몽테스키외의 정체(政體) 분류에 대해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권력을 장악한 사람의 수에 따라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정체를 3 가지의 형식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군주정체(君主政體, Monarchy)이고, 즉 한 사람이 통치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귀족정체(貴族政體, Aristocracy)이고, 즉 소주의 사람이 통치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정체(民主政體, Polity)이고 즉 다수의 사람이 통치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이다.[101] 동시 위에 기술한 3 가지와 상응하는 변형정체는 전제정치(Tyranny), 과두정치(Oligarchy), 민주정치(Democracy)가 있다. [102] 『정치강의』를 통하여 옌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체주장에 대한 실리의 소개를 성실히 번역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체분류가 향후의 방역국가(邦域國家, Country State)에 적용되지 못하고 당시의 도시국가(City State)에만 적용될 뿐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103]

101「政治講義」,『嚴複集』,p.1257

102 위와 같은 책, p.1257

103 위와 같은 책, p.1257;『정치학이란 무엇인가』,pp.56,57,70,73,74.
"雅里氏舊有分法, 實為無當. 又俗人不知當雅里氏時代, 希臘但有市府國家 Citystate, 壤地極小…若今世國家, 則可謂邦域國家 Countrystate, 壤地廣遠, 人民眾多, 不可同日而論也."..."但雅里氏至今, 所猶為政治家所崇拜者, 因其書所立大義, 有歷古常新而不可廢者耳."

몽테스키외는 정체를 전제, 군주, 공화로 나누고 그 중 공화정체를 전체국민이 최고권력을 장악하는 평민정치와 부분 국민이 최고권력을 장악하는 귀족정치로 나누기도 하였다. 동시에 전제, 군주, 공화 이 3 가지 형식의 원칙이 공포, 명예, 도덕이라고 제기하였다.[104] 전제정체가 귀족의 이익을 심히 침범하였기 때문에 귀족출신의 그는 전제를 맹렬히 비판하였고 전제정체와 군주정체를 다른 정치체제로 의식적으로 구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의 주장은 프랑스혁명에 대해 여론을 동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의 바람이 귀족을 대표하여 군주와 권력을 쟁탈함으로써 등급적 분권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에 있다.

옌푸는 몽테스키외의 전제와 군주라는 2 분법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실제로 군주와 민주라는 2 가지의 정치유형만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중 군주체제는 2 가지의 종류로 세분화될 수 있다. 하나는 도(道)나 법(法)이 없는 군주이고 이것을 전제라고 부를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도나 법이 있는 군주이고 이것을 입헌이라고 부를 수 있다. 옌푸의 관점에 따라 군주제는 원래 입헌제나 전제를 실행하기가 다 가능하다.[105] 다시 말하자면 전제나 입헌제나 완전히 군주 개인이 원하는 대로 취사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유형으로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옌푸의 정체구분은 도식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군주제	전제(법이나 도가 없다)	전제군주제(민권없음)
	입헌(법이나 도가 있다)	입헌군주제(민권參用)
민주제	입헌	입헌민주제(민권獨用)

<표 3-1>옌푸의 정체구분

옌푸는 전제군주에 대한 증오와 폭민정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상황에서 절충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러므로 전제군주와 폭민정치가 잘 절충된 군민공치(君民共治)의 정치체제인 영국식 입헌군주제는 옌푸의 마음 속에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되었다. 이런 정체는 몽테스키외가 주장한 입헌과 본질적 차이점이 있다. 영국의 입헌군주제는 국민과 군주가 같이 입법에 참여하고 그 후 군주와 국민이 다 같이 법을 잘 지킨다는 것이다. 입헌 전에 국민이 먼저 입헌에

104 몽테스키외, 고봉만 옮김,『법의 정신』(책세상: 2006),pp.7-8

105「法意按語」,『嚴複集』,p.950; "此不必其為兩世也, 雖一人之身, 始慾立憲, 終於專制可耳." 역:이것은(군주제) 2 가지 형식으로 구분될 필요가 없다. 비록 한 사람(군주)을 통하여 입헌에서 시작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여전히 전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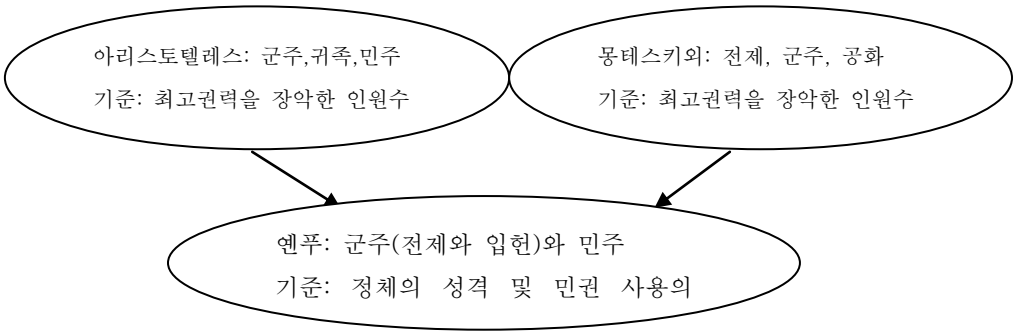
참여하는 권력을 가져야 하고 입헌의 핵심이 민권이다. 이와 달리 몽테스키외가 말한 입헌은 단지 법도(法度)를 가리키고 군주의 행정의향만 뜻한다. 민권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군주는 "어질 때 국민의 부모가 될 수 있지만 잔인하고 포악할 때 승냥이와 이리가 될 수도 있다"[106]. 그러므로 몽테스키외가 말한 입헌은 본질적으로 보면 진정한 입헌이 아닌 제도적 보장이 없는 "도가 있는 전제(有道之專制)"일 뿐이라고 옌푸는 생각하였다.

> "오늘날 유럽의 입헌에 있어 그의 헌법은 군(君)가 만든 것이 아니라 민(民) 자신이나 민과 군이 같이 만든 것이다. 만든 후에 민과 군은 헌법을 공통적으로 지키고 있다. 민이 입헌에 참여하기 전에 입헌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민을) 구비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몽테스키의 분류에 따라 한 나라에서 군은 권력이 있고 민은 권력이 없으면 이것을 군주라고 한다. 그 중에 도가 있는 군주의 나라를 입헌이라고 부르고 도가 없는 군주의 나라를 전제라고 부른다…몽테스키외가 가리키는 입헌은 도가 있는 전제에 불과하다."[107]
>
> (若夫今世歐洲之立憲, 憲非其君之所立也, 其民既立之, 或君與民公立之, 而君與民共守之者也. 夫以民而與于憲, 則憲之未立, 其權必先立也. 是故孟氏所區, 一國之中, 君有權而民無之者, 謂之君主. 君主之有道者, 曰立憲; 其無道者, 曰專制也...孟之所謂立憲, 特有道之專制耳.)

몽테스키외의 분권론은 그의 정치적 이상을 주로 반영하였다. 비록 그가 영국의 정제(政制)를 경험한 적이 있지만 실제상황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실리의 비판을 받았다. 실리를 비롯한 서구학자의 영향을 받은 옌푸는 국가의 최고권력을 장악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정체를 구분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그 대신 자유민권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을 수립하였다. 자유민권의 유무는 "여론을 통하게 하고 옆에서 관찰하는 역할" 및 "정부를 파괴시킬 수 있는 역할"[108]을 담당하는 의회기관의 유무에 달려 있다. 있으면 입헌정체에 속하고 없으면 전제정체에 속한다.[109] 정체분류에 대해 옌푸의 수용 변화는 다음과 정리하였다.

---

106 「法意按語」, 『嚴複集』, p.972; "仁可以為民父母, 而暴亦可為豺狼."
107 「法意按語」, 『嚴複集』, p.950
108 「政治講義」, 『嚴複集』 "宣達測試輿論", "建立破壞政府", pp.1313, 1315.
109 『정치학이란 무엇인가』, p.188



<그림 3-1>정치체제에 대한 옌푸의 수용

옌푸는 입헌정체를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입헌군주제로서 군주와 양원(兩院)이 같이 입법에 참여하는 것이다. 대표국가로 영국, 일본 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입헌민주제로서 대통령과 양원이 같이 입법에 참여하는 것이다. 대표국가로 미국, 프랑스 등이 있다. 즉 근대의 이런 선진국가는 전부 다 입헌정체에 속하며 그들간 본질적인 차이점이 없고 형식상 군주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정체든지, 설령 군주가 없더라도 입헌을 통하여 권력을 제약하지 않으면 고도적인 권력집중이 생길 수 있다는 몽테스키외의 주장에 옌푸는 동의하고 "헌(憲), 정(政), 형(刑) 이 3 가지의 권력은 한 사람이나 한 무리에 집중된다면 이 사람이나 무리가 귀족이든지 평민이든지 그의 통치를 다 전제라고 간주할 수 있다."[110] 라고 이렇게 평가하였다. 입헌을 하기만 하면 형식상으로 군주가 보유되더라도 자유민권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제를 채택한 미국과 프랑스보다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영국의 국민이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옌푸는 확신하였다.[111]객관적으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와 몽테스키외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정체분류 방법보다 옌푸의 정권성격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은 훨씬 더 과학적이고 설득력도 강하다.

2. 중국전제정치에 대한 인식

전제체제 하의 중국에는 군주와 신민(臣民)간에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인격이라든지, 거의 모든 면에서 불평등이 존재한다. "온

110 「法意按語」,『嚴複集』,p.972;"憲, 政, 刑三權者聚而急於一人一眾之身, 是一人一眾者, 無論為貴族, 為平民, 其治皆真專制".

111 「政治講義」,『嚴複集』,p.1299;"如英國議院, 其中議員, 雖不得云通國代表, 顧其所代表者民數實多.乾隆、嘉慶間, 雖所代表, 比今為少,而比余國, 民權則為甚大, 此所以羣奉英民以自由之號."

천하가 다 왕의 땅이고 땅의 언저리에 다 왕의 신하가 있다."[112], 또 "천자는 사해(四海)가 포함될 정도로 부유하고 그의 신하와 처첩이 무수히 많다."[113] 이런 고전적 문장을 통하여 "왕은 귀하고 신하는 천하다" (君尊臣卑), 왕은 주인이고 국민은 노예이다"(君主民奴)라는 중국 전제 전통에서 전제하는 사회적 본질을 우리는 흔히 확인할 수 있다.

몽테스키외는 이런 불평등한 현상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가하였다. 입헌제의 민주국가에서는 민중이 평등한 국민이고 전제의 군주국가에서는 민중이 평등한 노예이다.[114] 옌푸는『법의』에 대한 역주에서 "전제 하의 국민에게 있어서 평등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 사람(군주)을 빼고 다 노예이다. 예속 상태로써 서로를 높이며 단지 억지로 체면치레를 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였다.[115] 또『사회통전』의 역주에서도 옌푸는 몽테스키외의 이런 주장도 언급하였다.

> "앵글로족(Anglian)과 태동(泰東)의 민은 법전 중의 양극이다. 앵글족의 민은 가장 자유적인 사람이다. 태동의 민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법의 차원에서 앵글로는 가장 자유적이기 때문에 평등을 누리는 반면 태동은 자유가 없더라도 여전히 평등을 누리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여러 번 알아본 결과, (자유가) 없는 평등이라는 것은 군왕 외에 다른 사람은 다 노비, 하인, 첩이다. 노비, 하인, 첩이다. 하필이 서로 등차(等差)가 있을 필요가 있는가?"[116]
>
> (盎格魯之民與泰東之民，法典之二極也。盎格魯之民，最自由者也，泰東之民,無自由者也，顧于用法也，盎格魯以最自由而平等，泰東以無自由而亦平等.譬之數然，至於為無，皆等分也，君王之外，其餘皆奴婢僕妾也，奴婢僕妾，又何必為之等差也哉.)

뿐만 아니라 그도『군기권계론』에서 밀의 비판을 번역함으로써 중국의 전제 정치에 대해 "중국의 재상은 들판의 농민과 똑같이 다 노예이다"[117] 라고 비판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천자신첩억조

112「詩經.小雅.北山」,"溥天之下，莫非王土；率土之濱，莫非王臣".

113「辟韓」,『嚴複集』,"天子富有四海，臣妾億兆".p.36

114「法意按語」,『嚴複集』,p.952."有道之民主，其所謂平等者，平于為國民也；而無道之民主，其所謂平（等）者."
平于為君，平于為吏,平于為士師，平于為父，夫，主人。此其大異者也".

115 위와 같은 책, p.952, "專制之民，以無為等者也，一人而外，則皆奴隸，以隸相尊，徒強顏耳".

116「社會通詮按語」,『嚴複集』,p.935

117『群己權界論』,(北京:商務印書館, 1981), p.118;
"支那之宰相，與田野之傭民，皆奴才也."

(天子臣妾億兆)의 논조에 관해 소위 말한 "신첩"이 바로 "노예"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역대 전제군주가 중국국민을 비천한 노산자(奴産子)라고 간주해 왔다고 옌푸는 비판하였다[118]. 이 때문에 중국역사의 흐름 속에서 "망국·망천하"(亡國·亡天下)의 개념보다는 "일가일성"(一家一姓)의 흥망만 존재하며 국민에게 있어 노예의 주인만 바꾸곤 한 것과 차이점이 없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 "중국의 진(秦)나라 이후에 "천하"나 "국"이라는 개념은 없어지고 다만 "가족"만 남았다. 누군가의 성씨(姓氏)가 흥해지면 억조의 사람이 다 그의 신첩이 되었다. 흥해도 이 가족만의 흥이고 망해도 이 가족만의 망이다. 천자는 헌법, 국가, 왕 이 3 가지의 개념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천자의 가족이 망하면 그의 모든 것이 이에 따라 망할 것이며 민에 있어 노예의 주인만 바꾼 것임에 불과하다. 어찌 소위 말한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119]
>
> (中國自秦以來, 無所謂天下也, 無所謂國也, 皆家而已。一姓之興, 則億兆為之臣妾。其興也, 此一家之興也；其亡也, 此一家之亡也。天子之一身, 兼憲法, 國家, 王者三大物, 其家亡,則一切與之俱亡,而民人特奴婢之易主者耳, 烏有所謂長存者乎！)

전제정치 중의 군주와 인민간의 불평등이 중국의 빈부 격차 심지어 망국멸종을 불러일으킨 근원이라고 옌푸는 생각하였다. 전에 말했듯이 "온 천하가 다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다"(溥天之下, 莫非王土)라는 표현은 경제적으로 불평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는 중국과 서구사회의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 세금납부의 비중 및 세금의 용도 등 여러 면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민주체제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중세기의 서구에서는 군주가 세금을 징수하려면 국민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만 가능했다. 이와 반대로 중국에서는 군주가 세금을 징수하려면 국민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한유(韓愈)의『도란 무엇인가』(原道)에 따라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죽여야 한다 (民不出租賦, 則誅而已) .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유럽 민권의 강함을 옌푸는 밝혔다.

『법의』중의 세금에 관한 해석에 따라 중국과 서구의 세금 용도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옌푸는 지적하였다. 유럽에서는 세금이 교통, 국방, 수력, 박물관 등 공중사업에 투입되면서 민중이 정부로부터 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세금이 전제군주의 사치스러운

---

[118]「辟韓」,『嚴複集』,p.36; "天子富有四海,臣妾億兆.臣妾者,其文之故訓猶奴虜也. 夫如是則西洋之民,其尊且貴也,過於王侯將相,而我中國之民,其卑且賤,皆奴產子也."

[119]「法意按語」,『嚴複集』,p.948

생활을 위해 쓰이기만 하고 군주가 민중을 책임지지 않으며 일방적인 의무를 담당하는 민중이 아무런 보답을 받을 수 없다.[120]그 외에 그 때의 현황과 관련하여 근대 이래 청나라 전제정부가 "더 고위에 있는 군권"(更上之君權)인 서구열강에게 수많은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 주고 여러가지 비겁한 수단을 이용하여 국민을 착취해 왔기 때문에 민중의 부담이 이미 상당하다고 그는 특히 강조하였다.

> "책임이 없는 정부는 전제정부이다. 이런 정부는 나라를 모욕하고 민에게 피해를 주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영토 할양으로 인해 배상금을 내더라도 정부 자신은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고 부귀를 안심하게 누릴 수 있다. 설령 책임을 져도 더 고위에 있는 군권이나 근처에 있는 더 강한 적을 위하는 것뿐이다. 법으로 백성에 대한 책임이 아무도 없다."[121]
> (蓋政府無責云者, 專制政府, 惟所欲為, 即至辱國累民, 賠款割地, 其高高在上,而安享富貴自若。既有責任, 亦對於更上之君權, 或對於其國之鄰敵。其于百姓,以法制言, 固無責也.)

> "갑오년의 패배로 인해 동쪽에 있는 왜(일본)에게 배상금을 내야 하고 경자년의 침입으로 인해 서쪽에 있는 유럽에게도 배상금을 내야 한다. 배상금은 십여 만만(萬萬)이기 때문에 향후 30-40 년 정도에 걸쳐 억조(億兆,국민)에게서 끊임없이 세금을 받아야 한다……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전제정부가 한 짓때문이다."[122]
> (甲午敗而東償于倭, 庚子亂而西償于歐, 為數十余萬萬, 為時三四十年, 輦億兆之膏脂……問所由然, 則專制政府之償事也.)

옌푸의 서구열강에게만 책임지고 자신의 국민에게 책임지지 않는 청나라 정부에 대한 비판은 혁명파의 "양인의 조정"[123]라는 표현으로 청나라 정부에 대한 비판과 공통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대서구의 자유민권에 관한 영향력의 확대에 따라 중국에서 전제정치에 대한 비판도 점점 심각해졌다. 그러나 장기적인 전제정치 환경 하의 사회적 심리는 자주 홀시되곤 하였다. 예를 들면 중국 역사 중의 청렴하고 공정한 관리(청관, 淸官)를 기대한 사상은 사회 하층이 통치계층에 대한 정치적인 바람이 담겨 있고 동시에 사회관리의 이상적인 행위규범도 포함되어 있다. 옌푸의 비판 중 뛰어난 것이 청관사상의 부드러운 가면을 벗기고 그 중 전제의 본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부모정부'라는

120 「法意按語」,『嚴複集』,p.974-975; "專制者, 奴使其眾, 虜用其民, 下有常供, 而上無幾微之報者."
121 「政治講義」,『嚴複集』,p.1287
122 「法意按語」,『嚴複集』,p.975
123 陳天華,『猛回頭』

것이 그의 국민을 유치한 어린이로 간주하며 정부에 대한 충성을 영위하고 복종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 운행하는 것이다"[124]라고 옌푸는 이렇게 해석하였다. 또 "부모정부"는 중국인의 의식 속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영어에서는 좋은 명분이 아니고 밀이 비판하는 전제정부나 세습정부(mild or paternal government)[125]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예리하게 지적하기도 하였다.

> "중국에서는 이러한 통치자를 받들어 천지신명과 같은 부모라 부르고 자신이 천재일우의 좋은 시절을 만났다고 한다. 그런데 서양인은 이러한 정부야말로 참으로 자신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고 자신의 생활은 참으로 노예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양에서 '부모정부'라는 말은 좋은 의미를 지닌 명칭이 아니다."[126]
> (此在中國或將奉其上以神明父母之稱, 以其身所遭, 為千載一時之嘉遇. 顧彼西民則以如是之政府, 為真奪其自由, 而己所居者, 乃真無殊于奴隸. 顧西語所謂父母政府者, 非嘉號也.)

이런 바탕에 "군주는 귀하고 민중은 천하다"(君尊民卑) 그리고 "군주는 주인이고 신하는 노예이다"(君主臣奴)라는 것이 바로 "부모정부"의 본질이라고 제시하였다.

> "대개 중국의 가장 해소하기 어려운 폐단은 "민지부모"(民之父母), "자녀처럼 민을 사랑한다"(愛民如子) 등의 말이다. 이런 "자녀를 대우하는 것처럼 민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존귀와 비천의 태세를 생기게 하고 관료의 발언권(官說)만 있고 민중의 발언권(民說)이 없다. 관설이 있고 민설이 없는 것은 상소나 심판을 듣는 것을 필히 허가하지 않는다. 상소나 심판을 듣는 권리조차 없는데 민명(民命)은 미지(未知)에 매달려 있기만 하다."[127]
> (大抵中國最難除之弊, 即在"民之父母","愛民如子"等話。斯惟其愛民如子, 故事使尊卑勢成, 有官說而無民說。有官說而無民說者, 必不准其用抱告與聽審也。無抱告, 聽審, 而民命遂懸于不可知.)

---

[124] 『群己權界論』, p.108, "父母政府者, 所謂視其民如童稚, 而行其保赤之檢制者也."

[125] John Stuart Mill (1806–73). *On Liberty*. Chapter V: Aplications, p.102 edited by Stefan Collini,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영문 원문: It is only because the institutions of this country are a mass of inconsistencies, that things find admittance into our practice which belong to **the system of despotic, or what is called paternal,** government, while the general freedom of our institutions precludes the exercise of the amount of control necessary to render the restraint of any real efficacy as a moral education.
"二者主義, 往往抵牾.察其政什八九立憲自繇矣.而二三專制之嚴威, 與夫父母政府之號令.猶雜行于其中, 不知既立憲自繇矣, 則行其專制父母之政令, 未有不為害端者也."

[126] 「政治講義」, 『嚴複集』, p.1282; 『정치학이란 무엇인가』, p.122

[127] 「沈瑤慶奏稿-批語」, 『嚴複集補編』 p.330

옌푸의 분석에 따라 청관사상의 본질은 자유민권을 박탈하고 민중의 지혜를 단속하는 것이다. “부형정제(父兄政制, Paternal Government)를 이용하고 관리의 모든 것을 듣게 하면 민권은 필히 망할 것이고 민지(民智)도 필히 속박될 것이다”[128]. 고대든지 근대든지 중국의 “요순우”와 같은 삼대정치(三代之治)는 항상 전제군주들이 숭상하는 본보기이고 사대부들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정치형태이기도 하다. 옌푸는 이런 소위 말한 “아름다운 정치”에 대해 다른 견해를 밝혔다.

> “천하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 요(堯)가 있으면 세상이 좋아지고 걸(桀)이 있으면 세상이 나빠진다. 걸(桀)같은 사람을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먼저 꼭 요와 같은 사람이 없어야 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군주를 칭찬할 때 “민지부모”라고 부르는 것을 최고의 칭찬이라고 간주되어 오곤 한다. 문명의 군(群)에게는 부모 정부와 난폭한 군(君)이 똑같은 것이고 다 무서운 정치라고 간주할 수 있다…”[129]
>
> (故使治天下有堯之可欣，斯有桀之致瘁矣。比欲無桀，其必先無堯而后可。是故吾國之頌君子，以為民之父母，至矣.而文明之群，畏父母政府與畏暴虐之君等者…)

자유민권의 시각에서 입각하여 분석한 그는 보통 중국사람의 관성사유와 다른 결론을 지었다. 즉 요왕와 걸왕이 역사상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아왔지만 옌푸에게 있어서는 다 전제정치를 실시한 장본인이며 요처럼의 부모정부라든지 걸처럼의 폭군정치라든지 본질적으로 똑같다. 즉 민권을 말살하고 군주권만 강조하는 전제사회이다.

옌푸는 삼대의 아름다운 정치의 성격을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화론의 시각에서 삼대정치의 허무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진나라 이후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전제정치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성장에 폐해를 끼치기만 하였다. 사회의 발전이 후퇴할 수 없는 진화론의 관점에 따라 요순우(堯舜禹) 시대의 정치는 절대로 후세의 정치보다 좋을 리가 없고 중국의 역대 학자가 삼대의 아름다운 정치를 이상적인 군주정체라고 보는 자체가 본질적으로 근거가 없는 억측일 뿐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

128 「沈瑤慶奏稿-批語」,『嚴複集補編』,p.320; “用父兄政制，則一切當聽上之所為，而民權必廢…用‘父兄政制’，民智決不能開.”

129 「莊子-批語」,『嚴複集』,p.1124

"걸왕과 주(紂)왕을 욕하고 요왕과 순왕을 칭찬하는 것을 비롯한 삼대정치를 숭상해 왔다. (그런데) 삼대에 대해 이제 이미 고증할 수 없고 옛사람 말한 것은 상상 중의 억측에 불과하다…소위 삼대, 소위 당우(唐虞)는 그냥 유자(儒者)백가가 억측을 통하여 만들어진 세상에 불과하고 이것은 어찌 사실이겠는가?"[130]

(詈桀紂, 頌堯舜, 夫三代以前尚矣, 不可考已, 則古稱先者, 得憑臆以為之說…向所謂三代, 向所謂唐虞, 祇儒者百家其意界中之製造物而已, 又烏足以為事實乎?)

3. 전제정치에 대한 비판과 수긍

1) 전제군주제에 대한 비판

역대의 군주는 자신의 통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각종 수단을 이용하고 전제정치를 영위하였다. 옌푸는 청나라의 사회발전을 전면적으로 저해한 전제정치에 대해 대대적인 비판을 가하면서 군대훈련, 무역개방을 비롯한 기계와 기술만 단순히 모방하는 양무운동은 뒤떨어진 중국을 구제할 수 있는 유효한 대책이 아니라고 보았다. 전제제도를 제거하고 서양문명의 정치제도를 도입해야만 부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옌푸의 생각에 따르면 중국사회의 모든 폐단은 전제군주제에 달려 있다.[131] 전제군주제는 중국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왔고 근대 중국이 세계에 뒤떨어진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당나라 한유는『도란무엇인가』(原道)에서 왕권신수설(君權神授, 신이 군주에게 권력을 수여함), 군주민노(君主民奴) 등 사상을 제시하였다. 옌푸는 서양의 정치이론을 동원하여『한유비판』(辟韓)이라는 글에서 한유를 비판하였다.

먼저 군주의 기원에 대해 한유의 관점 중 논리적인 잘못이 존재한다고 옌푸는 생각하였다. 한유의 관점에 따라 깃털과 비늘이 없는 사람이 성인의 교화를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면 "성인" 자신은 인간이 아니고 깃털과 비늘이 있는 괴물이어야 하다.[132] 다음으로 군민관계에 대해 군주가 그냥 발호시령하는 사람으로 간주되라면 하걸, 은주, 진시황 등 폭군과 요, 순, 우 등 훌륭한 군주가 차이점이 없다. 만약

130「法意按語」,『嚴複集』,p.940

131「梁啓超致嚴復書」,『嚴複集』,p.1568;"先生謂黃種之所以衰, 雖千因萬緣, 皆可歸獄于君主."

132「辟韓」,『嚴複集』,p.33

모든 일은 성인의 가르침을 통하여 습득된다면 인류가 벌써 멸망했을 것이다.[133] 이어 군주가 위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래부터 생겨난 결과물을 비롯한 사회분업이론을 이용하여 군주가 민중에서 선출되는 주장과 민중이 군주를 폐지할 수 있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군주의 역할은 그냥 민권을 보호하는 데에 있고 민중이야말로 천하의 주인이다.[134] 동시에 그는 맹자의 "민귀군경설(民貴君輕說)" 인용하여 "한 사람만 알고 억조(민중)를 모른다"[135]는 한유를 심각하게 반박하였고 진나라부터 역대의 군주가 모두 다 민중에게서 국가의 정권을 찬탈한 도적이라고 감탄하였다.[136] 그는 전제군주제 및 국민의 수준 높과 낮음과 국가의 운명 간의 관계를 이렇게 밝혔다.

> "(군주가) 국가를 훔친 지 오래되고 원래의 주인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러 올까봐 모피처럼 여러가지의 법령을 세웠다. 쉽게 논하자면 이런 법들은 십중팔구 민의 재능을 파괴시키고 민의 힘을 분산시키며 민의 도덕을 손상시켰다. 민은 그야말로 천하의 진정한 주인이다. 군주가 각종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통치를 영원히 영위할 수 있도록 민을 어리석게 만들고 스스로 각오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서양은 공공적 재산과 이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전투하는 것이고 중국은 노예주를 위해 전투하는 것이다."[137]
>
> (既已竊之矣, 又惴惴然恐其主之或覺而復之也, 於是其法與令蝟毛而起, 質而論之, 其什八九皆所以壞民之才, 散民之力, 漓民之德者也. 斯民也, 固斯天下之真主也, 必弱而愚之, 使其常不覺, 常不足以有為, 而后吾可以長保所竊而永世. 設有戰鬥之事, 彼其民為公產公利自為鬥也, 而中國則奴為其主斗耳.)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옌푸의 한유 비판이 성인의 이상에 바탕을 둔 유교적 군주론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옌푸는 군주제도가 이론적으로 없어질 수 있다고 했지만 당장 중국의 군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민중이 자치하는 능력을 가져야만 군주제를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서양의 훌륭한 나라조차도 능히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중국은 할 수 있겠는가![138] 그의 참뜻은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바꿔야 하는 데에 있었다.

---

133 위와 같은 글, p.33

134 위와 같은 글, p.34; "民之自由, 天之所畀也."

135 위와 같은 글, p.34; "知有一人而不知有億兆也."

136 위와 같은 글, p.35; "秦以來之君, 正所謂大盜竊國者耳.國誰竊？轉相竊之于民而已."

137 위와 같은 글, pp.35-36

138 위와 같은 글, p.34; "然則及今而棄吾君臣, 可乎？曰：是大不可. 何則？其時未至, 其俗未成, 其民不足以自治也. 彼西洋之善國且不能, 而況中國乎！"

2) 우민(愚民)정책에 대한 비판

전제정치 하의 우민정책은 엄격한 사상 통제를 통하여 실시되어 왔다. 삼강오상(三綱五常)을 핵심으로 삼는 송나라의 성리학은 그 후 천년 동안 전제정치의 사상적 기둥이 되었다. 옌푸는 전제적 권위성을 영위하는 성리학을 국가를 망치는 생억지라고 간주하였다.

> "도학(道學)이 흥해진다는 이야기는 필히 조송(趙宋) 때에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 후 난신적자(亂臣賊子, 나라를 어지럽히는 불충한 사람들)는 참으로 우려할 만하다. 그러나 중국이 망한 원인은 (이러한 내부요인 때문이 아니라) 외국(외부요인)때문이다…이족(異族)이 중국을 차지하게 된 원인은 바로 명교(名敎)의 흥성에 힘입는다."[139]
>
> (必逮趙宋而道學興, 自茲以還, 亂臣賊子乃真懼耳。然而, 由是中國之亡也, 多亡于外國……異族之得為中國主者, 其事即興于名教.)

옌푸의 생각에 의해 성리학(즉 명교) 중의 여러 윤리적 약속은 난신적자의 나쁜 거동을 저지함으로써 내부에서 전제왕권에 대한 위협을 줄일 수 있었지만 사회의 활기도 심하게 억눌렀다. 그 결과 국가는 가난하고 약하게 변하고 외부의 도전에 잘 대비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북송이 금나라에 멸망되고 남송이 원나라에 멸망되며 그 후 명나라가 청나라에 멸망되었듯이 한 나라의 멸망은 자주 외부 세력때문이다. 아편전쟁 후 이미 여러 번 서구열강의 침략을 받아 온 청나라는 국토가 거의 분할될 정도의 괴롭힘을 당해 왔다. 노예화교육이 전제정치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고 또 인간의 정신문명을 크게 손상시켰다고 옌푸는 생각하였다.

> "군주의 교육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 똑똑하도록 촉진시키는 반면 전제의 교육은 (사람의 마음을) 점점 비열하게 만들었다. 대개(전제)교육이란 사람들에게 굴복하도록 시키는 것이다……전제 하의 민은 가족을 단위로 하여 각각 관리하고 서로 협력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교육은 무리를 통하여 실시된 것인데 전제사회에서 무리가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설령 교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민에게 무서움을 인식시키기 위할 따름이고……그러므로 전제 하의 민은 교육에 대한 중요시가 거의 없고 교육이 안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의 덕(德)이 된다. 이런 덕의 형성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다 무시해 버리며 결국 덕이 없는 노예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국민을) 노예로 만들려면 꼭

139 「法意按語」,『嚴複集』,p.949.

먼저 어리석은 민을 만들어야 한다."[140]

(君主之教育, 猶足進人心于高明也, 乃若專制, 則相與趨於卑陋而已。蓋其為教也, 勖人人以屈扶……專制之民, 家自為政而不相謀者也。顧教育之道, 則基於合群, 專制無群, 故專制無教育也。即有之, 不過使民知畏而已……是故, 專制之民, 本無所事于教育也, 將成其一德, 則盡其一切德而褫之, 彼將使之為奴才也, 必先使之終於為愚民.)

청나라 전제정치 환경에서 살고 있었던 옌푸는 군주와 관료들은 국가와 사회를 다스리는 권리가 너무 큰 반면 보통 국민은 국사(國事)에 참여하는 권리조차 없는 상황에 실망이 컸다.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국민이 본분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될 것이고 엄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민중들은 다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게 되었다. 반면에 전제군주의 횡포뿐만 아니라 자기자신을 노예로 간주하는 것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민중의 생각도 사회 발전의 한 장애이라고 하는 점을 옌푸는 강조하였다. 이러면 사회 전체가 외부의 위협에 직면할 때 국민이 굳게 결속하지 못하고 심지어 공덕(公德)이나 애국에 관한 개념조차 머리 속에 형성되지 못하는 지경이었다. 이어 그는 노예주를 위해 삯품을 파는 사람(중국)은 스스로 애국심을 가지는 사람(서양국가)과 대결하면 당연히 이길 리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온 나라의 민은 공덕(公德)이 무엇인지 또 애국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서의 각국은 다 지나(支那)를 고력(苦力, 삯품을 팔다)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다. 왜냐하면 (유럽국가의 국민은) 부진런히 행동하면서 국가의 보전을 스스로의 이익을 보전하는 것과 똑같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삯품을 파는 사람은 애국자와 싸우면 결코 이길 리가 없다."[141]

(而最病者, 則通國之民不知公德為底物, 愛國為何語,遂使泰西諸邦, 群呼支那為苦力之國. 何則？終身勤動, 其所恤者, 舍一私而外無余物也. 夫率苦力以與愛國者戰, 斷斷無勝理也.)

3) 사상 및 언론 자유에 대한 주장

옌푸의 생각에 따르면 자유의 유무는 중국문화와 서양문명 간의 제일 근본적인 차이점이자 중서간의 격차를 끊임없이 확대하는 주요

[140] 위와 같은 글, pp.942-943;商務印書館『法意』,pp.49-50
[141] 위와 같은 글, p.985

원인이기도 하다. 자유는 국가부강 및 사회발전의 근본적인 동력이다.

> "증기 터빈, 병기, 기계 등은 다 거친 겉이다. 아무리 천산격치(天算格致, 자연과학)가 소용이 있고 훌륭하더라도 명맥이 아니다. (서양문명의) 맹맥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학술은 가짜를 제거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형정은 이기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처음으로 중국의 도리와 다름이 없다. 서양이 항상 성공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것은 자유의 여부에 달려 있다."[142]
> (如汽機兵械之倫, 皆其形下之粗跡, 即所謂天算格致之最精, 亦其能事之見端, 而非命脈之所在. 其命脈云何？苟扼要而談, 不外于學術則黜偽而崇真, 于行政則屈私以為公而已. 斯二者, 與中國理道初無異也. 顧彼行之而常通, 吾行之而常病者, 則自由不自由異耳.)

그는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진리를 창조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간주하였다.『군기권계론』중에 언론자유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였다.

> "언론자유라는 것은 그냥 사실대로 말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옛 사람의 말에 속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권세가 높은 사람에게 굴종하지 않아야 하기도 한다. 올바른 도리가 담겨 있는 말에 대해서는 설령 원수가 말하더라도 등한시하면 안되고 터무니없는 말에 대해서는 설령 군주나 아버지가 말하더라도 따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이다."[143]
> (須知言論自繇, 只是平實地說話求真理, 一不為古人所欺, 二不為權勢所屈而已, 使理真事實, 雖出之敵仇, 不可廢也；使理謬事誣, 雖以君父, 不可從也, 此之謂自繇.)

옌푸의 생각에 따르면 여론(Public Opinion)의 자유는 입헌제 아래의 국민에게 중요한 권리이자 자유국가로 되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국민은 정부의 행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으며 여론은 신문과 잡지를 통하여 형성된다. 이와 동시 정부는 언제나 여론의 동향에 따라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144]

전제정치를 영위시키는 주요수단은 엄격한 형벌과 감독을 통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무력으로 국민의 반항을 탄압하면서 문자의

142「論世變之極」,『嚴複集』,p.2
143「群己權界論. 譯凡例」,『嚴複集』,p.134
144「政治講義」,『嚴複集』, p.1289; "立憲之民, 于政府所為, 皆可論議, 著之報章, 以為國論 public opinion, 政府常視之為舉措, 凡此皆俗所謂自由之國也."

옥(文字獄)[145]을 통하여 사상과 언론 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는 것이다. 청나라 시기 문자의 옥이 극심하였다. 청나라의 전제군주는 보통사람이 규정한 기준에 거의 못 달할 정도로 민중의 언론을 엄격히 통제했다. 옌푸의 주장에 따르면 언어가 범죄의 구성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상과 언론으로 인해 사람을 처벌한다면 그것은 바로 전제적 폭정이다.

> "국가의 법에 관해 그의 적용범위는 반드시 사람의 실제적 행위에 있다. 이것은 법가(法家)의 요점을 찌르는 명언이다. 사상이나 언론이나 다 형벌이 적용되는 분야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사상과 언론은 자신을 수양하는 사람이 엄하게 하는 바이지만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문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상과 언론에) 문책한다면 그의 통치가 전제로 전락되면서 국민의 자유도 없어진다."[146]
>
> (國法之所加，必在其人所實行者，此法家至精扼要之言也。為思想，為言論，皆非刑章所當治之域。思想、言論，修己者之所嚴也，而非治人者之所當問也，問則其治淪于專制，而國民之自由無所矣.)

곧이어 옌푸는『법의』의 안어(按語)에서 사상·언론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무술정변 시기의 한 예를 들어봤다. 1898 년 6 월 유신파의 산동 도감찰어사(道監察御史)인 宋伯魯와 楊深秀가 같이 변법을 저지하는 예부상서인 許應騤를 "범속하고 교만하며 황제의 성지(聖旨)를 비방하는 음모가 있다(庸妄狂悖，腹誹朝旨)"라는 명분으로 탄핵하려고 하였다.[147] 옌푸는 유신파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소위 말한 "성지를 비방한다"는 이유로 정적을 공격하는 것이 입헌군주제를 달성하려는 변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전제적 수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옌푸에게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가로 국가의 부강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전도하는 잘못된 방식이다. 유신파의 주장을 지지하는 그가 이렇게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원칙을 버리지 않았다는 남다른 정치적 식견을 나타냈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점은 밀, 젠크스(Jenks), 실리, 그리고 루소 등 서구학자들이 전제정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영향을

---

145 문자의 옥: 왕조시대에 황제의 이름에 들어간 한자를 쓰거나 황제가 싫어하는 글자를 사용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 관직을 박탈하거나 비판적 지식인을 사형까지 시킨 필화 사건이다. 사상통제정책의 하나이고 특히 청나라는 가장 흥했다.

146「法意按語」,『嚴複集』,p.973

147『戊戌變法檔案史料』,p.5

깊이 받았던 옌푸도 전제정치의 여러 폐해를 지적하면서 사실을 근거로 바르게 처리하는 태도로 전제정치 원래의 정당성을 밝혔다는 것이다.

> “전제가 성립되는 것은 반드시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 원인을 추궁해 보면 약한 백성을 보호하여 강포한 자의 어육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다. 예컨대 어떤 나라에서 크고 작은 호걸과 제후들이 임립하면 반드시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지위가 높고 존귀한 천왕이 전제를 시행해야 비로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148]
>
> (蓋專制之立, 必有其所以立者. 究其原因, 起於卵翼小民, 不使為強暴所魚肉. 如一國之中, 強桀小侯林立, 必天王專制于上, 尊無與并, 而後其民有一息之安.)

옌푸의 관점에 따르면 전제정치가 특정한 상황 하에 많은 귀족의 압박을 피할 수 있도록 민중을 보호해 줄 수 있으며 전쟁 시와 혼란스러운 시기 때 안정된 질서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 민주정치보다 전제정치를 더 효율적이다. 그는 전제제도를 가려서 대해야 하면서 개명전제의 장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 “한 제도가 좋거나 나쁘거나 구분하는 기준이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제도의) 변화가 빠르거나 느리거나 하는 기준이 없고 적당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전제라는 제도는 정치가에게 비판을 받은 지 꽤 오래되었다. 전제를 실시하는 사람에 따라 전제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전제를 하는 이유는 국과 민을 위해 신경을 썼기 때문인가? 아니면 자기와 자기의 자손을 위해 신경을 썼기 때문인가? 국과 민을 위해서라면 프로이센(Prussian)은 최선을 다해서 시도해 본 적이 있는 반면 자기와 자기의 자손을 위해서라면 중국의 진시황과 수나라 황제인 양광(楊廣)은 해 본 적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개명전제는 중국에 제일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을 어떤 사람은 강조하고 있다.”[149]
>
> (制無美惡, 期于適時；變無遲速, 要在當可。即如專制, 其為政家詬勵久矣。然亦問專此制者為何等人？其所以專之者, 心乎國與民乎？抑心乎己與子孫乎？心夫國民, 普魯士之伏烈大力嘗行之矣.心夫己與子孫, 中國之秦政, 隋廣嘗行之矣, 此今人所以有開明專制最利中國之論也.)

옌푸는 전제군주제의 유래를 객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전제정치에 대해 일정한 정당성을 수긍하지만 전제정치를 진행하려면 집권자는 반드시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하고 자기자신의 이익이

148 「政治講義」, 『嚴複集』, p.1305
149 「憲法大義」, 『嚴複集』, p.240-241

아닌 사회민중의 이익을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현실생활 중 이런 미덕과 재능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지도자가 항상 드물기 때문에 전제정치를 위험한 정치와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라고 내내 간주해야 한다고 옌푸는 생각하였다.[150]

> "이러한 전제가 일단 세워진 뒤에 시세가 변천하더라도 그 권(權)을 해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한다. 처음에는 (국가를) 멸망에서 구하는 역할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언제나 민에게 피해를 입혀 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야말로 천고에 걸쳐 비판을 받는 원인이다."[151]
>
> (當知此等專制一立之後, 雖事勢變遷, 其權無由解散. 雖其始有救亡之用, 而其終常為殃民之資, 此其制所以為千古之詬厲耳.)

> "민권기관은 장기적인 이행단계를 거치지 않고 민지가 높아지지 않으면 제대로 수립될 수 없다. 성립하기 전에 땅이 넓고 인구가 조밀한다면 강한 호족의 횡포를 면하고 안정된 세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권위를 한 사람의 손에 모아 주어 그것을 억누르도록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위험한 제도이며 장구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아니다.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전제정치를) 부득이하게 차선책이라고 간주한 것이다."[152]
>
> (當其未立, 地廣民稠, 欲免于強豪之暴橫, 勢欲求治, 不得不集最大之威權, 以付諸一人之手, 使鎮撫之. 此其為危制, 而非長治久安之局固也, 然在當時, 則亦不得已而思其次者矣.)

실제적으로 옌푸가 청나라의 전제적 통치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뚜렷한 사실이다. 1904 년, 그는 점점 망할 막바지에 이르는 청나라에 대해 이렇게 제자에게 말하였다. "나는 평소에 할 일이 없고 그냥 번역하는 일만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 전제적 종이호랑이에 구멍을 뚫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으면 그것도 재미있는 볼거리이다." [153] 신해혁명 발발 후 옌푸가 강한 지도자기 이끌고 나가는 정치를 바라보는 경향은 강해지면서도 때로는 전제적 수단을 통하여 혼란스러운 사회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

150 「政治講義」, 『嚴複集』, p.1311; "雖其始有救亡之用, 而其終常為殃民之資, 此其制所以為千古之詬厲耳."그(전제 정치)가 망할 국가를 살릴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항상 민에게 폐해를 주고 말았다. 이 제도는 옛부터 오랫동안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151 위와 같은 글, p.1311

152 위와 같은 글, p.1306

153 「與熊季廉書」, 『嚴復集補編』, p.247; "吾在此無事,亦唯以譯事自娛.親見一專制紙老虎被人戳破,亦一樂也."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적으로 보면 옌푸가 전제정치에 대해 극히 증오하고 비판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사실은 여전히 분명하다. 그는 서구정치학 이론을 활용함으로써 자유와 민권을 취지로 삼고 전제정치의 본질과 수단에 대해 깊이 분석하였다. 옌푸의 전제정치를 바라보는 견해는 그 때 살았던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현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깊은 사색과 반성을 할 여지를 제공해 주었다.

IV. 옌푸의 입헌군주제 구상

1. 입헌구국의 제기

청일전쟁 발발 전 두번의 아편전쟁을 겪었던 중국은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적 일등강국에 졌지만 여전히 제국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었다. 청일전쟁에 대해 어떤 서양사람은 청나라의 북양함대가 일본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청일전쟁 후 당시 영국의 청국 주재 공사인 토머스 웨이드(Thomas Francis Wade)는 즉시 이와 상반되는 의견을 밝혔다. "이런 근세의 큰 전쟁은 중일간의 전쟁이 아니라 태서(신제도)와 태동(구제도) 간 신구(新舊)교화의 전쟁이다." [154] 전쟁의 결과는 이 공사의 예측을 검증하였고 당시의 많은 중국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도 주었다. 그 후 많은 중국인들은 변법구국을 제창하기 시작하였다.

또 1904 년 러일전쟁 발발 시 어떤 지식인들은 "이것이 러일간의 전쟁이 아니라 입헌과 전제간의 전쟁이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155] 전제적 러시아의 패배에 따라 러시아 민중들은 입헌요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식인들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자극하기도 하였다. 옌푸를 포함한 입헌파는 러일전쟁을 입헌과 전제의 제도간의 대결이라고 간주하면서 러시아의 실패를 거울삼고 입헌군주제를 하루빨리 실시하라고 청나라 정부에 독촉하였다. 이리하여 청나라 정부는 폭력적 혁명을 막기 위해 1906 년 예비입헌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환경 속에 옌푸는 입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통하여 입헌군주제를 고취하였다. 1905 년 상해 중국기독교청년회(YMCA)의 요청을 받은 그는 실리의 저작인 *An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에 의거하여 서구정치학을 8 차례에 걸쳐 강연하였다. 그 중 그의 연설문인『정치강의』는 입헌운동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큰 영향을 발휘하였다. 1906 년 말 옌푸가『법의』를 부분적으로 번역하고 출판하면서『헌법대의』,『영국헌정은 양권분립이 아님을 논함』(論英國憲政兩權未嘗分立) 등 논문을 발표하였다. 훌륭한 학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옌푸는 입헌운동의 진행을 위한 튼튼한 이론을 제공했고 입헌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으며 청나라 정부 내부의 입헌개혁의 관료로 임명되었다.

---

[154]「論國家于未立憲以前有可以行必宜行之要政」,『嚴複集補篇』,p.42
"此近世莫大之戰爭也, 此非中日之戰, 乃泰西東新舊而教化之戰也."

[155] 위와 같은 책, p.42, "此非俄日之戰也, 乃立憲專制二治術之戰也."

『국부론』을 번역함으로써 옌푸는 입헌국가가 전쟁 중 두 가지의 장점을 차지하였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하나의 장점는 서양이 전쟁에 관한 강대한 군사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스페인 등 국가는 지금까지 여전히 오염을 받지 않는 술잔처럼 잘 존재하는(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는다)이유는 민주정체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하였다.[156] 그리고 『황제께 올리는 글』(擬上皇帝書)에서 그는 “진정한 민주국가의 군사력이 왜 그렇게 강하냐면 대개 이런 국가에 대해 공공적인 전쟁이라기보다 실제로 사적 전투와 다름이 없다.”[157]라고 해석하였다. 즉 그 원인은 서구국가는 군주가 그리 귀하지 않고 국민이 그리 천하지 않으며 그의 병사도 공적 재산과 이익을 위해 마치 자신의 재산을 위해 전투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과 같은 전제국가는 노예가 노예주를 위해 전투하는 것 같다. 이것은 바로 중국과 서양 간 군사전투력의 차이를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다. [158]

다른 하나의 장점은 서양이 군사비용을 모집하는 능력이 강한 것이다. 유럽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원인은 “이적처럼 혹독한 정치”(夷狄之厲政)가 아니고 민주공화제가 실시된 후 유럽의 민중이 이런 국가와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생명과 재산을 아끼지 않고 지키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국과 같은 전제국가에서는 노예가 무상으로 군주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꺼려 왔다. 민중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서구국가처럼 먼저 민권을 활용해야 하고 정치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옌푸는 전제적 중국이 입헌국가인 서구와 대결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예측하였다. 즉 “이 세상의 국가들 중 비(非)입헌국가와 입헌국가가 대결하면 비입헌국가의 땅이 많든지 적든지, 인구가 많든지 적든지 이길 리가 없다.”[159] 러일전쟁의 결과는 이런 결론을 더욱 잘 설명하였다.

옌푸의 생각에 따르면 입헌의 실시가 중국의 생존과 경쟁에 대한 시급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정체가 가일층 진화된 결과이기도 하다. “정치라는 이 분야에서 전제가 먼저 생기고 그 후 입헌이 생긴 것을

156 『原富』, p.753; “荷, 西之所以存, 而金甌不玷者, 亦恃其爲民主政制也.”

157 「擬上皇帝書」, 『嚴復集』,p.73; “眞實民主之國,其兵所以最强者,蓋其事雖曰公戰, 實同私爭.”

158 「辟韓」, 『嚴復集』,p.36;“夫如是則西洋之民, 其尊且貴也, 過於王侯將相, 而我中國之民, 其卑且賤, 皆奴產子也.設有戰鬥之事, 彼其民為公產公利自為斗也, 而中國則奴為其主斗耳.夫驅奴虜以斗貴人, 固何所往而不敗？”

159 「法意按語」, 『嚴復集』,p.996 “今世之國, 以非立憲, 以與立憲者角, 即以大蒞小, 以眾蒞寡, 將萬萬無勝理.”

보면 입헌은 바로 천연 및 진화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160] 이런 원리에 따라 중국의 정치체제도 반드시 전제에서 입헌까지 변화할 것이라고 옌푸는 판단하였다. 세계 민권운동의 발전, 서학의 전파 및 개방 수준의 확대에 따라 중국국민이 점점 "자유, 평등, 민주, 인권, 입헌, 혁명" 등 여러 개념을 수용하였고 중국과 서구간 거대한 정치체도의 격차도 깊이 있게 알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정치개혁이 불가피한 것이고 통치자가 세계적 대세의 변화에 의해 전제제도를 바꿔야 한다.

청나라 정부가 만약 역사의 흐름에 잘 순응하고 영국식의 입헌군주제를 세운다면 혹시라도 짧은 동안에 서양의 수준에 달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가장 좋은 결과이다. 만약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며 역사발전의 흐름에 거슬리고 각종 강압의 수단으로 전제정치를 영위하려면 서양과의 격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폭력혁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도 생길 수 있고 이것은 최악의 결과이다. 민권을 심하게 억압하면 통치자의 통치를 위협하는 폭동만 일으킬 수 있다.

> "만약 국가의 권력을 차지하는 현황에 의지하여 거리낌없이 감금하거나 토벌하는 권력을 남용하면 마치 흙탕으로 맹진[161](孟津)을 막는 것처럼 필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 후 이와 같은 유혈의 큰 재앙에 대해 책임을 질 사람이 있을 것이다."[162]
> (若乃據一時之國柄, 而逞其禁錮剿絕之淫威, 則無異持丸泥以塞孟津, 勢將處以必不勝, 而後此流血滔天之禍, 有其屍之者矣.)

그 외에 중국처럼 전제체제를 실시하는 러시아에 대해 "러시아는 진정한 전제국가이고 그의 국민은 자유가 없다. 언론을 제한하고 종교를 가식하며 국민에게 그 정책은 시비를 가리지 못하게 하고 낡은 습속을 고집하였다.…러시아의 황실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제도의 변화가 생기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163] 라고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에 대한 비판은 중국 전제제도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고 그 핵심적 목적은 청나라 정부에 다른 나라의 교훈을 받으며 스스로 빨리 입헌을 실시하라는 데에 있는 것이다.

---

160 「論國家于未立憲以前有可以行必宜行之要政」, 『嚴複集補編』, p.42
"夫政治之界, 既專制先有, 立憲后成, 則可知立憲乃天演之大進之世局."

161 孟津:고대의 한 지명이고 주무왕(周武王) 은나라를 멸망할 때 각 제후와 회맹(會盟)하던 곳이다.

162 「主客平議」, 『嚴復集』, p.118

163 「法意按語」, 『嚴復集』, p.984; "若夫俄, 真專制之治耳, 其民固無自由. 禁昌言, 飾宗教, 其政策純以塗民耳目、篤守舊俗為宗. 皇室傾絕, 特須時耳."

2. 입헌구상의 내용과 특징

20 세기 초기에 입헌을 통하여 국가를 살리는 것은 많은 지식인들의 공통된 목표가 되었으면서 입헌운동도 동시에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 때 학술적인 차원에서 입헌의 본질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잘 알고 있는 지식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훌륭한 학술적 소양을 가진 옌푸는 입헌운동 중 한 중요한 이론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입헌제라는 정치체제를 상세히 해석하였다.

옌푸는 먼저 입헌의 본질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입헌이라는 것은 문자의 표상에 나타난 뜻대로 해석하면 바로 "입법"이라는 뜻이다. 사실 "헌법"이라는 뜻은 중복된 뜻이고 "헌"이라는 것은 법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의 법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옌푸는 강조하였다.

> "입헌은 법을 세우는 것이지, 민을 다스리기 위해 형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법은 입헌을 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였다. 입헌이란 것은 즉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날마다 군(君)과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전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이른바 입헌이라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다."[164]
> (立憲者, 立法也, 非立所以治民之刑法也.何者？如是之法, 即未立憲, 固已有之.立憲者, 即立此吾儕小人所一日可據以與君上為爭之法典耳.其無此者, 皆無所謂立憲.)

뿐만 아니라 "입헌"이라는 개념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전통적 입헌의 의미와 구분하기 위해 옌푸는 고대의 소위 말한 입헌과 현재의 정치적 입헌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 "오늘날의 입헌은 옛사람이 말한 입헌과 다르다. 오늘날의 입헌은 홀로 다스리는 명목을 빌려서 실제적으로 귀족정치나 민주정치를 실시하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 고대의 입헌은 한 사람의 다스림을 위해 헌장을 정하는 것이다."[165]
> (今之所謂立憲者,亦與古殊.今之立憲,用獨治之名,而雜之以賢政庶建之實也.古之立憲,以一人獨治,而率由憲章者也.)

이상의 해석을 통하여 보면 입헌국가의 법과 전제국가의 법의 차이점을 지적해 냈다. 즉 "전제는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지만

[164] 「政治講義」, 『嚴復集』, p.1284
[165] 「法意按語」, 『嚴復集』, p.950

민중은 법을 지켜야 하는 법이고 군주는 항상 법을 지켜야 하는 범위 밖에 있어서 안 지켜도 된다."[166] 옌푸는 진나라 재상인 이사(李斯)의 저작인『독책서』(督責書)를 인용하여 이렇게 비판하였다. "독책서 중 소위 말한 법이라는 것은 형벌에 불과하다. 그래서 신하와 국민을 압박하거나 속박할 수 있지만 군주는 법의 위에 있기 때문에 법에 제한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법을 이용하거나 바꿀 수도 있다. 사실 이런 법은 전제에 불과하다"[167]. 그러므로 "입헌"의 법은 일반적인 법이 아니라 군주와 민중이 같이 지켜야 하는 법을 뜻한다. 그리고 옌푸의 생각에 따르면 입헌은 본질적으로 보면 국민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된 민주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이다. 중국이 입헌을 실시하려면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근대 주요 서구 강대국의 정치제도를 본보기로 삼아 전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옌푸는 생각하였다.

> "소위 입헌이라는 것은 깊거나 정밀하거나 특별한 입각에서 보면 여러 구미(歐美) 문명나라의 법제를 우리 정치적 개량을 추구할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입헌이라는 것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의 정체를 통하여 중국의 정체를 변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168]
> (其所謂立憲者, 乃自其深者, 精者, 特別者而言之, 乃將采歐美文明諸邦所現行立國之法制, 以為吾政界之改良。故今日立憲云者, 無異云以英,法,德,意之政體, 變中國之政體.)

옌푸는 입헌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에 대해 깊이 있게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입헌을 세우기 위해 몇 명의 신하를 외국으로 보내고 요령을 바로 습득할 수 있는 그리 쉬운 일이 절대 아니고 복잡한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중국에서 입헌군주제를 실시하면 서구국가의 일련된 민주제도, 헌법, 의회 등을 구축하는 것을 무조건 모방해야 하면서 대의제(代議制), 정당제(政黨制) 등 관련된 제도조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에 맞는 수준이 있는 군주와 국민도 필요하다. 옌푸의 언론을 통하여 본 입헌 특징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의원(議院)의 설립

166「憲法大義」,『嚴復集』,p.240; "專制非無法度也, 雖有法度, 其君超于法外, 民由而已不必由也."

167「法意按語」,『嚴復集』,p.938;"『督責書』所謂法者, 直刑而已, 所以驅迫束縛其臣民, 而國君則超乎法之上, 可以意用法易法, 而不為法所拘. 夫如是, 雖有法, 亦適成專制而已矣."

168「憲法大義」,『嚴復集』,p.240

옌푸는 서구 입헌국가 중에도 입헌의 형식이 다양하다고 생각하였다. 군주제를 보유한 국가가 있고 군주제가 폐지된 국가도 있으며 민권을 나눠서 행사하는 경우가(民權參用) 있고 민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民權獨用) 경우도 있다. 요컨대 입헌은 고정된 형식이 없고 그의 핵심은 민권이다.[169] 옌푸는 보수파에게 "민권을 망치면 안된다. 반드시 망치려면 전권(專權)이 커지고 큰 재화가 될 것이다. 민권을 망치는 사람이야말로 천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170] 라고 맹렬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민권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형식은 여론을 선포·전달·측정·감시하는(宣達測視輿論)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를 파괴하는 의원을 설립하는 것이다(建立破壞政府).[171] 의원의 유무는 전제정부와 입헌정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고 또 정치학에서 중요한 법칙이다.

> "전제와 입헌 이 두 가지가 아래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추대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한다면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론이란 추대하는 의견이 드러나는 것이다. 전제정부는 여론을 전달하고 측정할 있는 기관이 없지만 입헌정부는 그것을 갖고 있다. 하나의 법령을 시행하더라도 하나의 관직을 설립하더라도 여론의 향배가 또렷이 드러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과의 숫자까지도 분명하다. 여론의 향배와 다과는 모두 의원의 투표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여론의 향배와 다과는 의회라는 기관을 통해 전달되고 측정된다. 이는 국민이 의회를 가지면 정부를 건립하고 유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기관을 갖게 된다는 말이다."[172]
>
> (然則專制、立憲二者, 其為群下所擁戴既同, 而二者不同安在？應之曰：輿論者, 擁戴之情之所由宣也. 專制之政府, 無以為宣達輿論之機關, 而立憲之政府有之. 一令之行, 一官之立, 輿情之向背, 不獨顯然可見也, 而多寡之數, 亦至著明. 其向背與多寡, 皆于議員之出占投票而得之. 此謂與情向背多寡, 有議院以為宣達測視之機關者, 即無異言國民得此, 而有其建立維持破壞政府之機關也.)

옌푸는 근대 영국, 프랑스 등 자유민주국가의 정치경쟁의 초점이 의원의 권력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유럽의 민주정치가 발전해 온 경험에 따라 입헌정치의 핵심기관인 의회는 반드시 민중이 참여하고

169 「法意按語」,『嚴復集』,p.1006; "蓋立憲之國, 雖有朝進兮退之官吏, 而亦有國存在與存之主人.主人非他,民權是也."

170 『原富』,p.930; "民權者不可毀者也, 必慾毀之, 其權將橫用而為禍烈者也. 毀民權者, 天下之至愚也."

171 「論英國憲政兩權未嘗分立」,『嚴復集』,p.219

172 「政治講義」,『嚴復集』,p.1313

추진함으로써만 수립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는 의회와 자유 국가 및 의회와 국가 부강 간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서양인이 가리키는 자유국이란 반드시 입법기관으로 삼는 의회가 있어야 한다. 정부의 행사(行事)는 반드시 의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의 행사는 반드시 의회로부터 감찰을 받아야 한다. 만일 정부의 행사이 민심에 부합하지 않으면 의회는 정부를 바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자유국이라는 것은 이와 같다."[173]
(西人所稱之自由國, 必其有議院以為立法成賦之機關. 政府行事, 必對於此而有責任, 凡其所為, 必受察于議院, 設行事為民心所不附, 議院有權以易置之.其所謂自由國者, 義蓋如此.)

"서정(庶政)이 날로 흥하고 국이 날로 강하고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국민의 다수가 다스리는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174]
(庶政日興, 國日強富. 無他, 有機關焉, 以達此國民眾治之力故耳.)

반면에 옌푸는 한 비유를 빌려서 의회가 없는 위험을 해석하면서 의원의 역할 및 청나라 정부에 대한 적용성을 생동적으로 설명하였다.

"(의회기관이 없으면) 바깥에 압력계가 붙어있지 않는 보일러와 같아서 조만간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폭발이란 무엇인가? 난리이다. 폭발이란 무엇인가? 혁명이다. 이러한 혁명과 난리는 모두 여론을 전달하고 측정할 기관이 없기 때문이요, 국회나 의원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175]
(此如汽箱, 外無汽表, 早晚炸耳. 炸者何？亂也. 炸者何？革命也. 此革命而亂者, 皆坐無以為宣達測驗輿情之機關耳, 皆坐無國會議院耳.)

"기관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정부를 지지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권력의 용사(用事, 사용)가 언제나 경솔하게 결정된다. 이는 치란이 반복되는 국면이 생기는 까닭이며 황실이 결국 무너지는 이유이다. 기관이 갖추어지면 지지자의 권력이 군주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예측도 가능하다. 때에 맞게 처방할 수 있게 되어 난리가 생길 수 없다. 이것이 입헌국가에 혁명이 없고 대표하는 황실이 무너지지 않는 까닭이다."[176]
(機關未具, 則扶傾政府之權利, 其用事也, 常至於橫決. 此一治一亂之局之所以成, 而皇室無不終於傾覆之理. 機關既具, 前之權利, 不但宣達有從, 又可測

[173] 위와 같은 글, p.1284
[174] 위와 같은 글, p.1314
[175] 위와 같은 글, p.1314
[176] 위와 같은 글, p.1315

視, 得以及時, 為之劑泄, 而亂無由作. 此立憲之國所以無革命, 而代表之皇室所以不傾.)

그는 청나라 말기에 황제가 주도하여 의원을 설립하는 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진보적 사대부들에게 경고하였다. 즉 "무릇 황제, 국왕이 설립한 의원이 진정한 의원이 아니고 그것은 쓸데없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177], "정부 자신의 추진으로 인해 의원이 설립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원이 아니라고[178] 옌푸는 생각한다." 즉 의원은 반드시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하여 세워져야 한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2) 대의제, 정당제 및 다수통치

옌푸의 생각대로 의원의 설립, 수상의 선출 및 권력배분에 대한 제도는 입헌의 체(體)이고 대표(代表) ·종중(從衆)·분당(分黨)은 입헌의 용(用)이다.[179] 이 3 가지의 특징은 입헌정치가 순조롭게 운행되는 데에 필수적인 것들이다. 대의제는 대표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대표를 뽑음으로써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은 가장 이상적인 정치방식인 자치와 여전히 상당한 거리가 존재하는데[180] 인구의 요인과 선거권의 제한으로 인해 항상 대의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옌푸의 생각에 따르면 대표제는 국가가 부강해진 주요 원인이다.

"시행되고 난 뒤에 불가사의할 정도로 (정치발전을) 신속히 발달하게 하는 것은 바로 대표제때문이다. 만일 정치의 영역에 대표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서양의 국가가 꼭 이렇게 성대하게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거의 단언할

177 「沈瑤慶奏稿.批語」, 『嚴複集補編』,p.326;"須知凡皇帝, 國王所立議院, 便非議院, 毫無用處."

178 『原富』, p.328; "議院由國家立者, 未見其為真議院也."

179 「憲法大義」, 『嚴復集』,p.244; "經緯其間, 其制乃行."

180 옌푸는 자치 및 자치와 대표제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논술하였다. "자치라는 것은 내가 준수하는 법령과 규칙이 내가 자발적으로 정한 것이며 타인의 압제와 강압에 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제 돌이켜 보면 의회가 설립되어 다수결의 원칙과 대표제라는 두 제도가 생겨나면 이는 자치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첫째 법률은 다수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다수에는 나라고 하는 개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둘째 법률은 대표자에 의해 정해지지만 대표자는 결국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自治云者, 吾所遵守之律令章程, 乃吾所發心自定, 而不由他人所壓制強逼之謂也. 乃今返而觀之, 以所立議院, 有從眾代表之二制, 其去自治, 尚隔兩塵. 何以言之? 法出於眾, 所謂眾者, 吾之小己, 不必即在其中, 一也; 法定於代表人,是代表者, 畢竟非我, 二也."「政治講義」, 『嚴復集』,p.1303

수 있다."[181]
(既行之後, 其發達神速, 不可思議, 則代表一事是也. 使政界而無代表, 西國演進必無如是之盛, 殆可決言.)

대표제를 통하여 국민에게 부여된 권력은 미미해 보이고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완전한 대표도 아니지만 입헌정치의 핵심이자 영국처럼 민권이 크게 신장되는 관건이다.[182] "한 국민의 정치권력은 극히 적지만 포기할 수 없다. (국민의 권력은) 잃으면 죽어버리고 얻으면 살아나는 것이다."[183] 종중은 즉 다수통치의 원칙을 가리키며 이것은 공리(公理)와 상관없이 그냥 다수의 의견에 따라 정치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다수의 의견은 합리적인 방안을 뜻하는 것이 아닐 수 있고 전체적인 민의(民意)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옌푸의 관점에 따라 입헌은 다름이 아니라 다수의 통치(衆治)이다. 다수의 통치는 다수결과 대표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184] 분당은 즉 정당제를 가리키며 이것은 중국 역사 중의 붕당간의 싸움과 비슷한 폐단이 생길 수 있어서 옛 사람의 미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황제의 증오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정치는 여야를 서로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입헌정치 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분당(分黨)에 대해 옌푸의 말로 표현하면 "승리자는 조정에서 집권하고 패자는 밑에서 감시한다".[185]

3) 입헌에 맞추는 국민수준

국민수준은 옌푸정치주장 중 핵심적인 요인이다. 정치제도의 수립은 국민수준에 맞아야 그 자체의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 옌푸에게 영향을 끼친 대부분 서구 사상가들은 좋은 정치 제도에는 반드시 높은 국민수준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스펜서의 지적에 따라 "좋은 제도는 그냥 흥해질 수 없고 반드시 국민의 좋은 도덕과 지혜가 필요하다. 대개 좋은 제도가 흥해질 수 없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국민의 수준이 나쁘기 때문이다."[186] 그러므로 옌푸는 입헌의 달성을 위해 국민수준을 입헌제에 부합하도록 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181 「政治講義」, 『嚴復集』, p.1302
182 위와 같은 글, p.1304; "其所代表, 雖有缺漏不完, 而民權則因之大立, 此英國所以獨享自由之號也."
183 위와 같은 글, p.1303; "一民之政權, 雖極微而不可棄, 幾于失之則死, 得之乃生."
184 위와 같은 글, p.1311; "立憲非他, 即是衆治. 衆治則不得不用從衆代表一制."
185 「說黨」, 『嚴復集』, p.302, "勝者在朝主政柄, 而負者在野而職監視."
186 『群學肄言』(北京:商務印書館,1981)pp.187-188; "善制不能徒興也, 必有民德, 民智為之基. 蓋善制不行, 其故無他, 坐民窳耳."

"입헌 제국(制國)을 하려면 우선 입헌 (수준에 맞는) 군(君)이 있어야 하고 또 입헌(수준에 맞는) 민(民)도 있어야 한다. 입헌(국가)의 군은 자신을 천하의 공복(公僕)이라고 간주해야 하고 자기의 일거일동이 천년 동안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한 사람이나 한 성(姓)의 사적 이익을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 입헌(국가)의 민에게는 사람마다 국가사상이 있어서 애국을 가장 중요한 천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동시에 애국을 위해 관련된 보통 지식도 배워야 한다. 이런것들이 다 문명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187]

(慾為立憲制國, 必先有立憲之君, 又必有立憲之民而後可。立憲之君者, 知其身為天下之公僕, 眼光心計, 動及千年, 而不計一姓一人之私利。立憲之民者, 各有國家思想, 知愛國為天職之最隆, 又濟之以普通知識, 凡此皆非不學未受文明教育者之所能辨明矣.)

3. 지방자치

정치의 최고 경지는 자치라고 옌푸는 생각하였다.[188] 자치의 개념에 대해 그는 이렇게 해석하였다.

"대개 민에게 자치를 하게 하면 일민(一民)의 몸이 두 가지 절(節)로 나뉘어 논할 수 있다. 하나는 개인에게 있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바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분자(分子, 사회구성원)에게 있어 사회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하게 되면 곧 자치이며 통치를 받더라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강요당하는 것은 아니다."[189]

(蓋使民自治, 則一民之身,將有兩節可論. 一以個人言, 其心所懷之願望為何等; 二以分子言, 其餘社會所祈響者為何等. 使二者近其如意,便是自治,便是雖受治而非強其所不欲為.)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정치모델이 과거의 도시국가에만 적용할 뿐이고 현재의 방역국가에서는 국민 모두가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실현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하는 자치는 모두 사람이 다 동의한다는 자치이 아니라 대수결의 원칙을 통하여 지방정부마다 스스로 관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군기권계론』을 번역함으로써 지방자치가 한 국가가 헌정을 실시하는 기초수단이고 교육과 같이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능력과 국민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경로라는 것을 옌푸는 강조하였다. 다른

187 「憲法大義」, 『嚴復集』, pp.245-246

188 「政治講義」, 『嚴復集』, p.1300; "政界之境詣, 至於自治而極."

189 위와 같은 글, p.1800

한편으로는 중국에 있어 예로부터 진정한 지방자치가 없고 그로 인한 피해도 생겼다고 옌푸는 강조하였다.

> "지방자치라는 제도는 중국에 원래 없는 것이다. 삼대의 봉건제도는 특수한 시기일 뿐이고 진정한 자치가 아니다. 진, 한나라 이래 군현제는 점차적으로 흥성해진다. 비록 지위가 높지 않은 작은 관료라도 다 리부(吏部)에 통솔된다. 인재의 등용은 재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의 나이와 경험에 달려 있다. 행정은 임시응변에 능하지 못하고 예전에 정해진 관습에 따라 진행된다."[190]
> (地方自治之制, 為中國從古之所無. 三代封建, 拂特之制耳, 非自治也. 秦漢已還, 郡縣之制日密, 雖微末如薄尉, 澹泊如學官, 皆總之于吏部. 其用人也, 以年格而非以才；其行政也, 守成例而非應變.)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보면 중국의 군현제와 서구의 지방자치간의 차이점에 대해 옌푸가 잘 파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구 지방자치의 관료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것이고 중국 군현제의 지방관료는 위에서 아래까지 선택·임명된 것이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지방자치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임명이 아니라 그 곳에 살고 있는 민중의 선거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그는 "지방자치는 서구국가가 부강을 영위하는 비밀이고 신중하고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191] 라고 특별히 강조하였다.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 "지방자치가 없고 간신히 입헌을 실시하는 국가의 제도를 보면 순식간에 (세워진 헌정도) 없어짐을 볼 수 있으니 그런 이유를 깨달았을 것이다[192]…지방자치가 잘 진행된다면 민기(民氣, 국민의 기세)가 이에 따라 혼란해지지 않을 것이고 국가를 다스리는 데에도 작은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치자는) 민이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담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쓰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민의 어리석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다".[193]
> (觀于國無地方自治之制, 而勉為立憲者, 其轉眴消滅, 可以悟其所以然矣… 使為之得其術, 民氣不必緣此而逐囂, 而于國家剛舉目張之治, 豈曰小補, 上無曰民愚不足任此事也, 今之為此正以癒愚.)

---

190 「社會通詮按語」, 『嚴復集』, p.932
191 『群己權界論』, p.128; "此段乃西國所以持保盛強之秘, 慎勿忽之."
192 『群己權界論』, p.115
193 「法意按語」, 『嚴復集』, p.982

옌푸의 생각에 따라 현재의 방역국가가 예전의 도시국가와 달리 가지고 있는 한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분이다. 도시국가에서는 영토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가 성립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방역국가에는 지방자치가 있어햐 하는 점은 필수적이다. 지방정부는 즉 지방정치이다. 또한 지방마다 천시(天時)와 지리(地利), 인화(人和)는 각각 다르므로 반드시 각 지방과 관련되는 일이 있다. 지방과 관련되는 일은 언제나 복잡하지만 중앙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상으로 언제나 자치권을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194] 다른 한편 과학성을 더 갖는 지방자치제도는 국가가 진화함에 따라 도시국가부터 방역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 점점 생겨난 결과라고 옌푸는 생각했다.

> "방역국가가 도시국가로부터 단결하여 생겨난 것이고 도시국가를 거치지 않고 성립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미 방역국가가 되면 영토가 광대하고 인민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필히 도시국가의 정치제도를 그대로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제도가 그 중간에 생겨난다."[195]
> (邦域國家有由市府而團結者, 有不由市府而成立者. 顧既成為邦域國家, 則以幅員廣遠, 人民眾多之故. 勢不能複守市府政治之制, 而中央政府、地方自治之制, 生於其間.)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국민의 수도 가장 많고 땅도 매우 넓은 국가인 중국에게는 지방자치가 더욱 빼놓을 수 없는 입헌정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옌푸는 강조했으며 심지어 국회를 세우는 것보다 지방자치의 수립이 헌정절차 중에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옌푸는『사회통전안어』(社會通詮按語)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개념과 장점을 소개하였다.[196]

지방자치의 장점은 지방의 경쟁을 격려하고 정치적 활발력을 잘 유지할 수 있고 국가를 위한 능력 있는 정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천편일률식 변화가 없는 단조로운 행정을 막고 지방자치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는 대량적이고

---

194 「政治講義」,『嚴復集』,p.1275;"於是凡國, 莫不有兩政府焉：一曰中央政府, 一曰分治政府. 分治政府者, 即地方自治也. 蓋此廣土眾民, 夫既以為一國矣, 則事之利害, 必有關於全體者. 又以天時地利人情物產之各殊, 必有系于其分地者."

195 위와 같은 글, p.1277

196 「社會通詮按語」,『嚴復集』,p.932;
주된 내용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지방의 지도자는 반드시 지방 민중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둘째지방 정부의 행정은 사사건건 중앙정부의 훈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 셋째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지방 정부의 행정권은 중앙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번거로운 프로그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외 옌푸는 역주를 통하여 중국의 구체적 상황에 관해 두 가지의 장점을 따로 추가하였다.

> "(지방자치가) 우리 나라의 관리에 있어 스스로 살고 있는 땅을 다 조상의 묘가 있는 고향과 후손이 번성하는 장소라고 국민들은 간주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리한 관료가 있으면 꼭 추천하고 불리한 관료가 있으면 꼭 제거할 것이다. 그러므로 임직된 장소를 임시적인 집이라고 보고 선출된 유동적인 관료와 같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다섯번째의 장점이다. 그 지방의 민중부터 선출된 관료의 행동은 꼭 치밀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선택한 관료보다 더욱 공정하다. 이것은 여섯번째의 장점이다".[197]
> (若對於吾治而言, 則人視其地皆祖宗墳墓之鄉、子孫蕃殖之所,故有利必為之舉, 有害必為之除, 不若銓流之官, 視所居如傳舍,其便五也. 為其民之所舉, 耳目必周, 無措直擧枉之可慮, 其便六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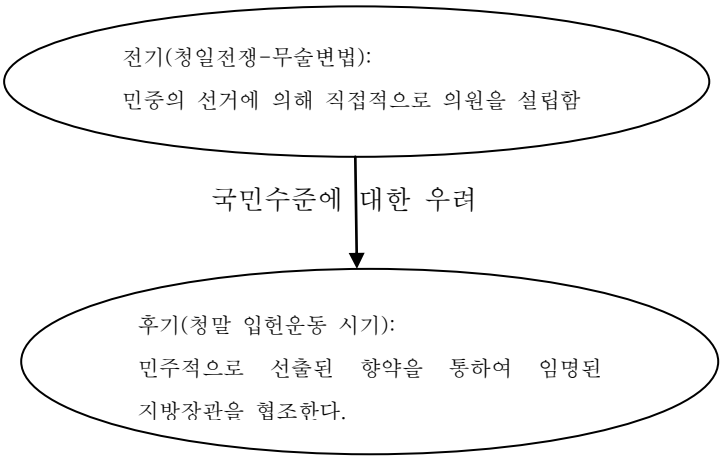
주목할 만한 점은 옌푸가 평생토록 주장한 지방자치는 그 전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청일전쟁 때 그는 북경에서 의원(議院)을 세우고 천하의 각 군현에 각자의 지도자를 공동적으로 추천해 달라고 제의했다.[198] 그러나 입헌운동의 발전에 따라 지방민중에 의한 지방장관 선거가 중국에 있어서는 이상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옌푸는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중국이 예로부터 자치가 없다는 관점을 바꿨고 역사상 군현제를 통하여 관리해 온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라고 해석함으로써 지방자치에 적용하는 캐리어를 제공하고 입헌운동을 순조롭게 추진하려고 하였다. 옌푸가 입헌운동 기간 때 주장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오늘날 중국의 변법에 대해 빠르게 의원을 세워야 하는 것을 대신하여 향읍(鄉邑)마다 향국(鄉局)을 먼저 설립하는 것이 더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 합격한 민(격식이 있는 사람)을 지방대표로 추천하고 국가가 임명한 지방 관료를 협조해 주는 식으로 바꾼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기초이다.[199]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민권참용(民權參用)일 뿐이다. 지방의 향약공국(鄉約工局)은 국가의 의원내각에 해당한다."[200]
> (竊計中國即今變法, 雖不必遽開議院, 然一鄉一邑之間, 設為鄉局, 使及格之民, 推舉代表, 以與國之守宰相助為理, 則地方自治之基礎矣……吾國居今而言地方自治, 篤而論之, 亦只是參用民權而已.地方之有鄉約工局, 猶國家之有議院內閣.)

---

197 위와 같은 글, p.932
198 「附：原強修訂稿」, 『嚴復集』, p.32;"設議院于京師, 而令天下郡縣各公舉其守宰."
199 「法意按語」, 『嚴復集』, p.982
200 「政治講義」, 『嚴復集』, p.1276

"향약"이란 지현장관이 임명한 작은 관료인데 정령을 전달하거나 동네의 분규를 해소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선출된 향약을 지방대표로 삼음으로써 국가의 의원처럼 지방 입법기구를 이룬다고 옌푸는 주장하였다. "공국"은 국가의 자치기관(corporation)에 해당하다. 옌푸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가 임명한 지방 장관을 협조해 주는 향약을 민주적으로 추천함으로써 공동적으로 지방사회를 다스리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초이다. 이렇게 보면 후기에 가서 "민주적으로 향약을 추천하는 것"을 지방자치의 핵심내용이라고 간주할 수 있고 그의 핵심은 여전히 민권을 확대한다는 데에 있다.



<그림 4-3>지방자치 주장의 전후변화

4. 입헌군주 구국론에 대한 성찰

1) 영국식 입헌군주제에 대한 선호

옌푸에게 정치의 최고 경지는 입헌이 아니라 자치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방역국가에 있어 이런 완벽한 정치모델이 국토규모, 인구 및 국민의 자질 등 제한으로 인해 실현되기 불가능하다.[201] 그래서 입헌은 합리적인 차선책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근세에 현행되고 있는 정치체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인이 다스리는 전제(the personal government of an individual)이며 또 하나는

[201] 「政治講義」, 『嚴復集』, p.1302; "假使雅里驟得今日國家治之, 恐其術且無從出.何者？其所論政體, 固專為市府之用也."

자치의 민주제(the self-government of all the citizens)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이며 일인이 다스리는 전제가 있고 다수가 소수를 다스리는 입헌이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다수가 소수를 다스리는 제도는 정치영역에서 최고의 경지인 자치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입헌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정체가 되었다."[202]

(有謂近世現行有兩種政制：一為獨治之專制，一為自治之民主者．此其言非也．當云有獨治之專制，有以眾治寡之立憲．以眾治寡之制，雖不足當政界極詣之自治，而立憲則舍此殆無他術，故為今日最要政體.)

옌푸는 입헌제를 구체적으로 입헌군주제와 입헌민주제로 구분하였다. 그 중 입헌군주제의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 일본 등이 있고 입헌민주제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프랑스 등이 있다. 그러면 "왜 옌푸는 영국식의 입헌군주제를 그렇게 선호했던 건가?"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유의 관성으로 인해 당시 빅토리아(Victoria)시대의 영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한 국가이고 그의 정치제도도 군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혁을 도모하고 있었던 중국에 맞고 또 옌푸가 영국에서 2 년 동안 유학생활을 보냈을 때 입헌군주제의 여러 가지의 장점을 깊이 실감하였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런 답이 일리가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록 옌푸가 영국의 제도를 "오대주 최고의 정제"(五洲最良之政制) [203] 라고 평가한 적이 있지만 2 년 동안의 짧은 유학경험은 그냥 그에게 입헌정치의 장점을 피상적으로만 인식하게 할 수 있고 영국의 정치제도에 대한 선호는 영국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 정치제도도 가장 훌륭하다는 간단한 논리로 도출된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은 옌푸의 주장에 따라 근대 중국이 만약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채택한다면 주기적으로 최고 원수인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으므로 그가 입헌군주제를 선호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 장훈이 청나라의 폐위된 황제 부의를 추대하여 왕위에 다시 복위시킨 것에 대해 옌푸는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다. "국가의 원수가 고정되면 계속적으로 대통령을 선거하는 번거로움은 없어지고 혼란을 초래하는 기미를 억지할 수 있다." [204] 사실 이것은 그냥 입헌군주제의 일반적인 특징이지 옌푸가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선호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입헌군주제를 채택하면 대통령 선거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혼란을 불러일으키는

202 「政治講義」,『嚴復集』,p.1301

203 「續論英國憲政兩權未嘗分立」,『嚴復集』,p.236

204 「與陳寶琛書」,『嚴復集』,p.504;
"使元首之位定於一尊,而無繼續選舉總統制煩擾,于以休養生息,遏亂萌."

빌미를 막는다는 옌푸의 주장을 잘 생각해 보면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입헌군주제는 비록 대통령 선거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지만 실권이 있는 내각수상을 둘러싼 경쟁이 여전히 치열하다. 입헌군주제를 채택한다든지 민주공화제를 채택한다든지 민권을 중심으로 한 민주정치를 채택하기만 하면 선거를 통한 경쟁방식은 피할 수 없다. 『법의』와『정치강의』의 내용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영국의 정치제도가 군주가 보유되는 전제 하에 관료와 민중간의 분권에 대한 균형을 잘 해결할 수 있고 사회혼란도 가급적 피할 수 있다는 것, 국민자유의 최대화, 또 국체논쟁이 없는 안정된 양당정치 국면 등 여러 원인은 그가 영국의 입헌군주제를 선호하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몽테스키외의 지적에 따르면 입법, 행정, 사법, 이 세 가지의 권력은 개인의 손에 잡힌다든지 한 계급의 손에 잡힌다든지 다 전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관점을 받은 옌푸는 "전제의 군주는 삼권이 한 사람에게 속하고 전제의 민주는 삼권이 민중에게 속한다"[205]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국가기관 분업에 대해서 몽테스키외의 분권 관점이 영국의 정치제도와 다르다고 옌푸는 생각하였다. 사실상 영국의 수상은 행정적 주역뿐만 아니라 입법의 주역이기도 하다. 동시에 영국의 의회도 입법의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영국의 입법권과 행정권은 뚜렷하게 분립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겹친다고 말할 수 있다.[206]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분권의 시각에서 보면 영국이 권력분배의 난제를 잘 해결하였다고 옌푸는 생각하였다. 입헌군주제의 이탈리아는 계급적 분권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인 반면 영국은 상대적으로 이상적인 권력을 배분하는 국가라고 그는 평가하기도 하였다. 영국과 같은 경우는 귀족과 평민은 동시에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귀족은 의안(議案)을 세우는 권리가 있고(議立之權利, the power of resolving) 평민은 반박하는 자유가 있다(準駁之自由, the power of rejecting)[207]. 군주는 행정권만 가진다.[208] 옌푸는 몽테스키외가 분석한 영국의 계급적 분권제도를 극히 칭찬하였다.

"몽테스키외의 말에 따르면 군주와 상의원(上議院)에 대한 약정한 입법

[205] 『法意』,p.222; "專制之君主, 其三權萃于一人, 專制之民主, 其三權集于一眾."
[206] 「論英國憲政兩權未嘗分立」,『嚴復集』,pp.218-229
[207] 위와 같은 책, p.228
[208] 물론, 몽테스키외의 저작인『법의』출판 후 영국의 정치 제도는 큰 변화가 생겼다. 국왕의 행정권이 점점 수상을 비롯한 내각에 옮기게 되었으며 향후의 관례가 된다.

권한의 구분은 영국에서 가장 명확하다. 영국의 입헌이 오랫동안 안정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분권에 대한 해결)에 있다".[209]

(此段孟氏所詮, 于英國君主及上議院所約立法權之分限最為精湛明確. 夫英之立憲所以久行不敝而上下相安者, 其秘在此.)

세계의 헌정발전의 길과 진화이론에 익숙하던 옌푸는 영국의 정치제도를 "제국이 흉내내야 할 본보기"[210], "영국의 자유는 천하의 으뜸"[211]이라고 간주해 오기 때문에 근대 중국이 개혁 중의 분권문제에 직면했을 때 영국의 경험에서 응당 배워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다. 옌푸의 생각에는 중국 정치제도의 결함이 "(권력은) 군주에게 너무 의존하고 민중에게 의지하는 것이 거의 없다"[212] 라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영국식 입헌군주제는 먼저 근대 중국의 군주와 민중 사이의 권력배분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다. 한편은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주권원칙을 확정하고 평화롭게 정부를 바꿈으로써 유혈혁명을 피할 수 있다. 다른 한편은 청나라의 이익도 보장할 수 있다. 황제는 지대한 권력을 더 이상 갖지 못할 것이지만 국가 최고원수의 명예를 계속 누릴 수 있으며 황실도 영원히 안정하게 지속될 수 있다.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옌푸가 선호한 영국식 입헌군주제는 객관적으로 청나라 귀족이 입헌운동에 대한 저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계급적 대립도 완화시킬 수 있다. 동시에 중국 고전인『논어』를 잘 알고 있는 옌푸가 "상지하우"[213](上智下愚)라는 관념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국민의 수준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러므로 군주의 권력을 제한한다고 주장할 때 민권이 독자적으로 행사되면 폭민정치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도 항상 경계하고 있었다. 이것을 통하여 옌푸는 엘리트 정치를 지향한 스타일을 잘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옌푸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민권을 활용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추천된 능력자가 독자적으로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평민과 귀족간의 정치권력을 균형시키는 것이다.

옌푸가 영국의 정치제도를 선호하는 다른 한 중요한 원인은 여야가 모두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양당정치의 구조에 있다. 영국은 장기적인

209『法意』, 상무인서관본, 1981 년, p.229

210「憲法大義」,『嚴復集』,p.244; "爲諸國之所師."

211「法意按語」,『嚴復集』,p.984; "英之自由, 爲天下爲首."

212「憲法大義」,『嚴復集』,p.245; "其有待于君者過重, 其有待于君者過輕."

213「論世變之極」,『嚴復集』상지하우: 지위가 높은 사람은 똑똑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어리석다. 즉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야만 사람을 잘 다스릴 수 있다; "上智有必不得之憂, 下愚有或可得之慶."

정치 변화를 거쳐서 경쟁세력이 거의 비슷한 두 개의 정당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정책을 결정할 때 다당제 국가처럼 여러 주장을 제기하기보다는 민중의 주요 여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또 다른 국가에서는 국체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정당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영국만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옌푸는 지적하였다.

> "헌법국가인 영국이 가장 훌륭한 원인은 그 국내에 양당만 존재하는 것에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는 보수적이고 하나는 진보적이다. 다른 국가는 그렇지 않고 민주를 주장하는 정당이 있고 군주제를 주장하는 정당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사회파벌이 있다. 이런 세력들의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정당이 생겨났다. 국론(國論)에 관해 혼동해서 파악되기 어렵다. 이것은 영국만 못하는 원인이다."[214]
>
> (憲法英之所以為最優者, 因其國中只有兩黨, 渾而言之, 則一主守舊, 一主開新. 他國則不盡然, 有主張民主、王制、社會諸派, 宗旨既邑, 門戶遂分, 而國論亦淆而難定, 此其所以不及英也.)

2) 입헌파 간의 차이

여기에 주목할 만한 점은 생겼다. 주지했듯이 당시에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옌푸를 제외하고 캉유웨이와 량치차오는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면 "왜 입헌파를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인물간에 정치적인 협력을 내내 이루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 만하다.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사람들 간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할 수밖에 없다.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인물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함으로써 옌푸가 주장하는 입헌군주제의 주된 특징을 측면에서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옌푸는 군사, 재정, 외교라는 외부적 개혁을 주창한 점에서 캉유웨이와 량치차오 등과 같았으나 "중국의 전통에 대한 그의 개혁제의는 전반적 사상변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중국인의 마음이 변화하여 특별히 투쟁의 가치를 강조하는 지적·도덕적·육체적 모든 면에서 표명되는 인간의 에너지의 쪽으로 지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옌푸가 캉유웨이와 량치차오과 다른 사상주장을 가진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215] 헥슬리의『진화와 윤리』를『천연론』으로

[214]「憲法大義」,『嚴復集』,p.244

[215] 장현근,『옌푸의 자유주의 이해』,용인대.『정치사상연구』2 집, 2000 년 봄, p.121

번역했던 진화론자인 옌푸는 그 자신 영국 해군학교 유학 시의 동창들이 청일전쟁의 결과 전원 수몰되는 충격을 바탕으로 망국 위기의식에서 민도(民度)론을 전개하고 유교사상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216] 그는 패전이라는 현실에서 그 원인을 "중국의 민도, 즉 민력, 민지, 민덕의 부족"에서 찾았고, 중국의 민도가 쇠락한 원인은 유교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중국이 부강으로 나아가는 진화의 도상에서 최대의 적은 서구열강의 침략이 아니라 유교의 가르침이라고 설파했던 것이다.[217]

반면에 캉유웨이는 중국고대의 경전인『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의 삼세설(三世說)을 응용하여 "거란세(據亂世), 승평세(昇平世), 태평세(太平世) 의 단계를 거쳐서 대동(大同)의 사회를 향해 진보한다고 생각한 소박한 진보주의자였다. 중국 고대경전에서 제기된 이런 삼세를 "전제군주제-입헌군주제-공화제"의 정치제도와 각각 연결시키면서 현재 중국의 수준에서는 입헌군주제만이 채택 가능한 유일한 정치체제임을 그는 역설하였다.[218] 그리고 인간의 발전을 중심으로 국민수준이 먼저 향상되도록 교육시키면서 아래에서 위까지 점진적으로 변혁을 해야 하는 옌푸의 주장과 달리 캉유웨이는 위에서 아래까지 민권을 대대적으로 제창하면서 황제를 둘러싼 집권자에 의하여 전국 곳곳에서 의회원을 즉시 설립함으로써 전면적으로 정치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 "변함이 없으면 그냥 놓아 두고 변하기로 하면 응당 전변적인 급변이어야 한다.[219]…황제가 이미 변법의 중요성을 깊이 알고 계시니 신하로서의 나의 생각에는 지금 변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이고 작게 변하면 또 해(害)가 될 것이기 때문에 크고 전면적이며 급변하는 방식을 쓰지 않으면 국가를 세울 수 없다."[220]
>
> (不變則已, 一變則當全變之, 急變之…皇上已深知變法, 而臣幽為此言者, 以方今不變固害, 小變仍害, 非大變, 全變, 驟變, 不能立國也.)

량치차오는 또한 일찍이『군정과 민정의 상호변화를 논함』(論君政民政相嬗之理, 1896)에서 "多君為政之世"(여러 군왕이 같이 집권을 하는 세대)를 "酋長之世"(추장의 세대)와 "封建及世卿之世"(봉건세경의 세대)로, "一君為政之世"(한 군주가 집권을 하는 세대)를 "君民共主之世"(군주와 국민이 같이 집권을 하는 세대)로,

---

216 李曉東,『近代中国の立憲構想:厳復・楊度・梁啓超と明治啓蒙思想』,pp.31-37

217 위와 같은 책, pp.33-37, 42-43

218 王德志著,『憲法概念在中國的起源』,(山東:人民出版社,2005) ,pp.28-29

219『康有為早期遺稿評述』(廣州:中山大學出版社, 1988),p.321;

220 清華大學歷史系編『戊戌變法文獻資料』, (上海:書店出版社, 1998), p.315

"民為政之世"(국민이 집권을 하는 세대)를 "總統之世"(대통령이 있는 세대)와 "無總統之世"(대통령이 없는 세대)로 각가 분류한 삼세육별(三世六別)의 정치체제 진화론을 주장한 바 있고 이러한 진화론적 관점은 이후『국가사상 변천이동론』(國家思想變遷異同論, 1901) 및 『중국전제정치진화사론』(中國專制政治進化史論, 1902)까지 이어진다.[221] 삼권분립에 대하는 면에서 량치차오는 옌푸와 같이 민권의 확대를 주장하지만 입헌군주제의 입법권 쪽으로 현저히 기울었고 국회에 과도한 권력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에 옌푸는 입법권보다 사법권의 독립 쪽으로 기울어졌다.[222] 게다가 전제정치와 대립적인 개념을 제기할 때 옌푸는 자유를 자주 강조하고 량치차오는 민권을 자주 강조하였다. 왜 그러냐면 옌푸는 영국의 고전자유주의에서 깊은 영향을 받아서 개인적 자질과 수준을 중요시하는 자유관을 형성하였고 량치차오는 유교사상, 대동사상 및 서구의회제도에 대한 관심 등의 측면에서 영향을 받고 서로 절충해서 민권의 사용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223]

다른 한편으로는 량치차오가 1898-1912 년간 입헌군주제와 민주공화제에 대한 변화무상한 태도[224]를 살펴보면 입헌군주제에 평생동안 충실했던 옌푸와 달리 량치차오는 입헌군주제 이 정체 자체에 대해 그리 충실하지 않고 입헌군주제보다 헌정(憲政)체제를 더 중요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국가정권을 국체(國體, 입헌군주제와 민주공화제)와 정체(政體, 전제와 헌정)로 나누고 국체를 형식이라고 보면서 정체를 본질이라고 생각하였다. 량치차오에게는 입헌군주제나 공화제에 대한 논쟁이 초점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헌정체제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초점이다.

> "혁명이라는 방식을 국가와 국민들에게 이익과 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나는 들어 본 적이 없다. 나는 내내 공화제에 반대한 적이 없고 군주제에도 반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든지 폭력혁명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혁명보다 국가에게 큰 불행을 초래할 수

221 梁啟超著『梁啟超全集』, (北京出版社, 1999), pp.96,455,771

222 신우철,『근대입헌주의 성립사 연구-청말 입헌운동을 중심으로』,『법사학연구』 제 35 호, p.277; 李曉東,『近代中国の立憲構想: 厳復・楊度・梁啓超と明治啓蒙思想』(東京:法政大學出版局, 2005) p.72

223 小野川秀美著, 林明德、黃福慶譯,『晚清政治思想研究』,p.282

224 량치차오는 1898 년 전에 그의 스승인 캉유웨이를 따라 입헌군주제를 지지하고 일본으로 망명한 후에 점점 급진적으로 변해지고 공화제를 지지하기 시작하였다. 1903 년 미국 방문 후 공화제에 실망한 그는 다시 입헌군주제의 주장으로 돌아왔다. 청나라 멸망 후 즉시 입헌군주제를 포기하였고 다시 공화제를 지지하게 되었다.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225]

(謂革命可以求國利民福，吾未之前闻。是故吾自始未嘗反對共和，吾自始未嘗反對君主，雖然吾無論何時皆反對革命，謂國家之大不幸莫過於革命也.)

이렇게 비교해 보니 같이 입헌파에 속한 캉유웨이, 량치차오 및 옌푸는 각자가 주장하려는 중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캉유웨이는 정치제도의 변혁을 통하여 사회를 개조하는 것에 대해 치중하면서 국민의 교육을 상대적으로 홀대하였다. 옌푸는 의원의 설립을 비롯한 정치제도의 변혁보다 국민의 계몽교육에 대해 더욱 우선시하였다. 량치차오는 비록 국민의 계몽교육도 중요시하면서 정치제도의 변혁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지만 그의 불안정한 정치주장과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스타일[226]은 입헌군주제에 충실하고 노련하고 신중한 스타일을 가진 옌푸와 제휴하는 데에 지장이 되었다. 각자 주장하려는 관점과 입장 및 성격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입헌파 중 중요한 이 3 사람이 무술변법 시기에서뿐만 아니라 향후의 어떤 시기에서도 서로 협력하는 장면이 내내 이뤄지지 못하고 말았다. 중화민국 성립 후 옌푸는 옛일을 뒤돌아보면서 캉유웨이와 량치차오 사자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였다.

"오늘 청나라 260 년의 사직(社稷)을 망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캉유웨이와 량치차오이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덕종(德宗, 광서제)이 원래 의향이 있는 유망한 군주이었는데 만약 캉유웨이와 량치차오가 서태후와 황제 모자 간에 부추기지 않으면 그 모자간에 갈등이 없었을 것이고 서태후가 죽은 후에 광서제가 자연스럽게 집권할 수 있고 그 때 점점 경장개혁을 진행함에 따라 4 백조(百兆) 인민의 큰 복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캉유웨이는 자신의 지위를 생각하지 않고 직면할 저항도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군주를 추대하여 변법을 진행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가 얼마나 일을 경솔하게 한지 그가 얼마나 사납게 날뛰었는지 이제 알 수 있다. 군주가 구금되면서 유신파는 어떤 사람은 살해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해외로 탈출하였다…보황(保皇)이라는 명분으로 인력과 돈을 모집한다는 것을 들었으니 참 뻔뻔스럽다. 오늘 보호할 대상(즉,군주)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려고 한다!"[227]

(今夫亡有清二百六十年社稷者，非他，康,梁也. 何以言之？德宗固有意向之人君，向使無康、梁，其母子固未必生釁，西太后天年易盡，俟其百年，政權獨攬，徐起更張，此不獨其祖宗之所示憑，而亦四百兆人民之洪福. 而

225「梁任公與英報記者之談話」『梁啟超文集』1915 년 9 월 4 일

226「嚴幾道與熊純如書札節鈔」二十五,『學衡』,第十二期,民國十一年十二月
"大抵公（梁啟超）操筆為文時，其實心救國之意淺，而俗諺所謂出風頭之意多."

227「與熊純如書」,『嚴復集』,p.632

康乃踵商君故智，卒然得君，不察其所處之地位何如，所當之沮力何如，鹵莽滅裂，輕易猖狂，馴至於幽其君而殺其友，己則逍遙海外，立名目以斂人財，恬然不以為恥.夫曰“保皇”試問其所保者今安在耶！）

V. 국체논쟁에 대한 옌푸의 주장

1. 혁명공화제에 대한 반대

신해혁명 발발 전 옌푸는 입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폭력혁명을 통하여 청나라를 뒤집는 것에 명확하게 반대하였다. 중화민국 성립 후에도 옌푸는 여전히 공화제를 배척하면서 입헌군주제에 고집하였다. 홍헌제제(1916)와 부의복귀(1917) 2 차의 군주제로 복귀한 사건에 대해 그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범인"이라는 죄명을 책임지기 싫어했기 때문에 행동하는 데에 관한 한 당사자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지만 사상적으로는 일치하였다. 옌푸는 위안스카이와 부의의 개인적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마음 속에 "입헌군주제"라는 이상을 품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입헌군주제를 주장하였다.

1902 년 옌푸가 발표했던『주객평의』(主客平義)라는 글에서 보면 중국의 수천년동안 전제정치 영향 하에 국민에게 형성된 사상관념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고 억지로 혁명을 주장하면 민중간의 의견불화로 인해 유혈충돌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1903 년 그는『군기권계론』의 서론에서 "전사(前史, 프랑스혁명)의 경험을 감안하면 혁명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혁명은 우리 나라에 이득이 없다"[228]라고 하였다. 1904 년 그는『사회통전』의 역주를 통하여 맹목적으로 만주족을 배척하는 민족주의를 좁고 과격한 종족주의라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폭력혁명이 국가의 부강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05 년 런던에서 옌푸는 손문과 만날 때 중국의 해결책은 교육개량에 있고 국민수준이 부족한 상황 하에 혁명주장을 반대한다고 확실하게 주장했다.[229]

옌푸는 혁명주장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는 동시에 어떤 입헌파의 언론이나 행동으로 혁명의 기세를 조장하고 청나라의 멸명을 가속화시켰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진영의 량치차오도 비판한 적이 있다. 무술변법이 실패한 후 일본으로 도망간 량치차오는 1903 년 미국을 방문하기 전 4 년 정도(1899-1902)의 짧은 기간에 혁명을 통하여 공화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방문 후부터 청나라 멸망까지 입헌군주제를 확고히 지지하던 주장을 다시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옌푸는 량치차오가 그때 혁명공화제를 지지한 언론과

[228]『群己權界論』서론. "不佞鑒於前史, 竊愿公等勿言革命, 革命絕非吾國之利也."

[229]「侯官嚴先生年譜」,『嚴復集』,p.1550;"中國民品之劣, 民智之卑, 即有改革, 害之除于甲者將見於乙, 泯于丙者將發於丁。為今之計, 惟急從教育上著手, 庶已逐漸更新也."

행동을 여전히 마음에 두고 있고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임공(任公, 량치차오)에게 있어서 해외로 도망간 뒤 항상 정부를 정벌하거나 뒤집거나 하는 것은 그가 유일하게 잘했던 일이었다. 그가 주최하던 신문지인『청의』,『신민』『국풍』중의 언론은 까다롭고 정부를 흉악무도한 대상으로 간주하고 마치 국민과 불공대천적 원수인 것 같다. 그가 신학(新學)을 조금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제도에 대해 다 용서하지 않고 비판한 것은 참 거만스럽다, 그가 말했던 말이 다 찾을 있기 때문에 내가 어찌 거짓말을 하겠는가!…신해(1911), 임자(壬子,1912) 때 량치차오가 후회하는 마음을 약간 보여주었다. 이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전의 내 논의는 황실을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만 비판하려고 할 뿐이었다. 그가 중국의 체제와 서양의 체제과 다른 실정을 잘 몰라서 그랬던가?…중국의 경우 황실과 정부가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고 말했던 그는 참 서학을 헛되게 공부해 온 것 같다."[230]

(至於任公, 則自竄身于海外, 常以摧剝征伐政府, 為唯一之能事.『清議』、『新民』、『國風』, 進而彌厲, 至於其極, 詆之為窮凶極惡, 意若不共戴天, 以一己至於新學, 略有所知, 遂若舊制, 一無可恕, 其辭俱在, 吾豈誣哉！…蓋至辛亥、壬子之交, 天良未昧, 任公悔心稍萌見矣. 由是薰穴求君, 恩及朱明之恪孫, 及曲阜之圣裔, 乃語人曰:'吾往日論議, 止攻政府, 不詆皇室.'夫任公不識中國之制與西洋殊, 皇室政府, 必不可分而二者, 亦可謂枉讀一世之中西書矣.)

"량치차오가 주최한『시무보』, 무술변법 후의『청의보』,『신민종보』 그리고 마지막의『국풍보』 모두 다 정부를 비난하는 게 아니지 겠는가? 정부가 난폭한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단 하루도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머리가 간단한 소년들 및 민약론에 심취한 양학생(洋學生,유학생), 및 유행을 탄 옛 관료, 다 량치차오의 유도를 받아서 탕무천리에 순응할 줄 알았던 채 혁명을 시작하였다".[231]

(梁所主任之『時務報』, 戊戌政變后之『清議報』,『新民從報』及最後之『國風報』, 何一非與清政府為難者乎？指為窮凶極惡, 不可一日復容存立. 於是頭腦簡單之少年, 醉心民約之洋學生, 至於自命時髦之舊官僚, 乃群起為湯武順天應人之事.)

신해혁명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옌푸는 민족간 좁은 종족혁명에 명확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공화국이 수립되는 것에도 반대하였다. 경자사변(庚子事變) 후 옌푸가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위안스카이와 일부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냈는데 신해혁명 후

230「與熊純如書」,『嚴復集』,p.632
231「與熊純如書」,『嚴復集』,p.645

위안스카이가 북경에서 새로운 내각을 수립하면서 전국의 정세를 안정하게 통제할 수 있기 위해 옌푸에게 찾아갔다. 1911 년 12 월, 위안스카이의 임명을 받고 파견된 옌푸는 혁명당과 평화로운 협상을 진행하려 남방으로 내려갔다.[232] 그 때의 옌푸는 여전히 중국국민의 수준이 공화제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혁명파를 반복하여 설득하려고 노력하였다. 남북회담 기간에 청나라가 신민에게 자유로운 이발을 이미 허락했지만 옌푸는 이때 공화제를 반대하는 의향을 보여주기 위해 여전히 땋은 장발을 보유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윤(伊尹)이 다섯 번이나 탕왕을 떠나고 걸왕에게 귀순하였다는 이야기를 빌려서 "오늘의 정부는 반드시 걸왕과 같지 않고 혁명당은 반드시 탕왕과 같지 않다"라는 이유로 자신이 청나라 정부를 완전히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속마음을 위해 변명하기도 하였다.

중화민국 초기부터 위안스카이가 죽을 때까지(1902-1906) 중국내 정치적 정세는 혼란스럽고 복잡하였다. 옌푸는 참중양원 (참의원과 중의원)의 수많은 의원들이 자신이나 자신이 소속된 당의 이익만 챙기고 의원 개인의 수준도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사회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 "참.중 양원의 수백명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랫자리에 있었고 먹고 사는 일은 이런 당인(黨人)이 유일한 관심사이다. 국가의 존망문제에 대해 문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논쟁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당의 이익을 위해서이고 너무 심하다! 이런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의 지혜로운 단체를 이룰 수 없고 또 이런 많은 재능과 도덕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의 재능과 능력이 있는 단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대표성도 많이 떨어졌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이런 국세는 꼭 오래갈 수 없고 내부의 붕괴와 외부의 침입도 가미하여 언젠가 혼란을 꼭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런 혼란은 공화제의 시말을 수반할 것이고 (나는) 오늘 손문, 황흥, 위안스카이 등 사람으로 인해 널리 퍼진 이 화근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233]
>
> (參、眾兩院數百人，什九皆為下駟，黨人飯碗是其唯一問題，即詰旦國亡，今日所爭，依然黨利，甚矣！會眾愚不能成一智，聚群不肖不能成一賢，所言之無以易也．總之，此局必不可長，內潰外侵，遲速必見亂，且與共和相終始，今乃嘆孫，黃，洹上流毒之無窮也.)

232 신해혁명 후 남방의 많은 성(省)이 청나라에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혁명당은 중국 남방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했다. 청나라는 주로 북방 몇 개의 성만 대해 통제하였다. 남북대결의 국면이 잠시동안 떠올랐다.

233「與熊純如書」,『嚴復集』,p.650

위의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 원인은 국가 정치체제에 폐단이 있다고 옌푸는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가 운명에 관해서 여러 가지의 중차대한 영향이 있는데 가장 우려하게 만드는 것은 공화제의 수립에 있다.”[234]. 또한 그는 “나의 어리석은 관점에 따라 공화라는 국체는 내내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다” [235] , “공화제는 중국에 절대 맞지 않는다”[236]라고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 1916 년 홍헌제제를 시작하였을 때 옌푸는 양도(楊度)에게 공화제나 입헌군주제, 이 두 가지의 정치체제 중 어느 것이 더 중국에 맞느냐에 대해 아예 토론할 필요가 없고 어려운 것은 군주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였다. 위안스카이가 황제로 추대된 후에 그는 “국체에 대한 논쟁이 막 시작할 때 공화제를 포기하고 입헌군주제를 취해야 한다고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하였다. 이러면 비록 진행하는 걸음은 좀 빠르지만 큰 잘못이 없을 것이다” [237] 라고 주장하였다. 홍헌제제의 문제는 위안스카이를 비롯한 도당이 전국이 모두 다 제제를 찬성한다는 거짓의 상황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민심을 잃어버린 위안스카이가 어쩔 수 없이 제제를 취소한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탄핵을 당할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옌푸는 남의 생각과 달리 반대를 표하였다.

> “만약 국을 보존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안씨가 외롭고 겁날 때를 잘 이용하고 마침 그와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더욱 온건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절호한 시기다. 약법(約法)을 개정하고 위안씨의 권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입헌을 기초로 삼으며 앞으로 국세(國勢)가 안정되고 국민도 진화해짐에 따라 국가가 진(進)은 공화를 이룰 수 있고 퇴(退)는 복벽을 도모할 수 있다.”[238]
>
> (使國有人，而以存國為第一義者，值此袁氏孤危之時，正可與之為約，公選穩健之人，修約法，損其政權，以為立憲之基礎使他日國勢奠安，國民進化，進則可終於共和，退則可為其復辟.)

위안스카이가 죽을 때까지 옌푸는 여전히 “군주의 복귀에 대한 논의가 너무 좋다”(復辟之議甚佳)고 생각하면서 위안스카이가 실패한 원인이 국내의 반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반대에 있다고

234「與熊純如書」,『嚴復集』,p.610; “至於國命所關,則尙有其深且遠者,其最足憂,在用共和.”
235「與熊純如書」,『嚴復集』,p.611; “終覺共和國體，非吾種所宜.”
236「與熊純如書」,『嚴復集』,p.635; “夫共和之萬萬無當于中國.”
237「與熊純如書」,『嚴復集』,p.629; “國體之議初起，時謂當棄共和而取君憲，雖步伐過驟，尙未太差.”
238「與熊純如書」,『嚴復集』,p.629

지적하였다.[239] 그 후 옌푸는 홍헌제제를 회상할 때 위안스카이에 대해 동정을 표하였다.

> “위안스카이가 저질렀던 큰 죄는 제제를 도모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종(즉, 품행의 일관성)을 관철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홍헌제제가 실패했던 것은 강도의 무리가 (오히려) 몸가짐이 단정한 무리가 되었다. 비적과 같은 사람이 성공했지만 국민의 고통을 극히 가중시켰다.”[240]
>
> (袁世凱大罪不在歸圖帝制, 在於不審始終, 至於事敗, 轉使強盜群稱守正, 匪人皆居成功, 而國民之苦痛遂極.)

일본의 21 개조 요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위안스카이에게 크게 실망한 옌푸는 그가 군주를 담당하는 품행수준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동상 주안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사상적으로 “군주복벽”이라는 활동에 반대하지 않고 군주제에도 반대하지 않았다. “총통부와 국무원의 싸움”(府院之爭)[241]이 벌어진 후 옌푸는 사회 내의 “군주복벽”의 사조가 농후해졌다고 판단하였다. 1917 년 상반기에 그의 제자에게 보낸 편지인『與熊純如書』의 내용에서도 적어도 4 번(1917 년 1 월 24 일, 2 월 28 일, 4 월 26 일, 5 월 30 일)이나 정치체제를 언급하고 두번이나 일말의 생존 기회가 군주복위에 달려 있다고[242] 말하면서 3 번이나 중국이 공화제를 세우는 것에 반대했다. [243]

군주복위의 주장:

> “중국은 땅이 넓고 민도 많기 때문에 공화제는 특히 적합하지 않다. 현재 일말의 생존 기회가 복벽에 있다.”
>
> (至於中國, 地大民眾, 尤所不宜共和, 現一線生機, 存於復辟.)
>
> “지금 국(國)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참으로 당신이 말한 것처첨 일말의 생존 기회가 복벽에만 있다.”
>
> (國事危岌, 誠如吾弟所云：“一線生機, 僅存復辟”.)

239「與熊純如書」,『嚴復集』,p.639; “此番洹上之死, 亦死於日本人耳, 南北諸反對, 皆不成問題, 須知.” (이번 위안스카이의 죽음은 일본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도 있다. 전국이 다 반대하더라도 이런 사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240「與熊純如書」,『嚴復集』,p.658

241 1916-1917 년 중화민국의 총통부(總統府)와 국무원간의 권력투쟁이다. 즉 대통령과 내각총리간 제 1 차 세계대전에 대한 참전 문제 및 제헌문제를 둘러싼 권리분쟁이다.

242「與熊純如書」,『嚴復集』,pp.662,669

243「與熊純如書」,『嚴復集』,pp.662,663,667

공화제를 반대하는 주장:

"총괄적으로 말하면 구미(歐美) 제방의 공화국체는 알맞는 군(君)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의 멕시코와 남미주처럼 공화제가 수립되었지만 혼란을 계속 겪고 있다. 이것을 거울삼을 수 있다."

(總之, 共和國體即在歐美諸邦, 亦成于不得已.必因無地求君, 乃行此制, 而行之亦亂弱其常, 治強其偶, 墨西哥, 南美諸邦, 可以鑒矣.)

"오늘날 민국이 세워진 지 벌써 6 년이 되었다. 그러나 시사를 보면 해마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혼란스러운 경우가 반복하여 생긴다. 지금 공화와 일련의 자유평등의 논조를 뱀과 전갈로 삼아 미워하는 언론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다시 뒤돌아보면 그 때의 주장이 너무 급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今之民國已六年矣, 而時事如此, 更復數年, 勢必令人人親受苦痛, 而惡共和與一切自由平等之論如蛇蝎, 而後起反古之思, 至於其時, 又未必不太過.)

"그러므로 모든 학설법리가 오늘날 금과옥조로 간주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무용지물로 되고 말았다. 예를 들면 평등, 자유, 민권 등 여러 주의 백년 이래로 현재에게 진정으로 제 2 의 복음과 같다. 오늘에 이르러 그 폐해가 날로 나타나서 판단을 바꾸지 않는 자는 어지러움과 멸망의 재앙이 생길 것이다."

(故一切學說法理, 今日視為玉律金科, 轉眼已為籧廬芻狗, 成不可重陳之物. 譬如平等、自由、民權諸主義, 百年以往, 真如第二福音；乃至於今, 其弊日見,不變計者, 且有亂亡之禍.)

1917 년 7 월 1 일 장훈이 청나라의 폐위된 황제 부의를 추대하여 왕위에 다시 복위시켰다. 평소에 장훈을 무시했던 옌푸는 이번에 "혈성남아(血性男兒)의 충효지사(忠孝之事) [244]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918 년부터 1920 년까지 남북군벌이 혼전을 벌였을 때 옌푸는 국내의 정세를 더욱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여러 번 정치체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중 또 공화제를 분명하게 반대하였고 심지어 그 때의 공화제가 전제보다 폐단이 더 많다고 생각하였다.

"대개 우리나라 사람의 공통적인 결함은 낡은 법의 폐단을 보면서 서양의 새로운 제도를 따르기만 하면 바로 폐단이 없는 완벽한 제도를 습득할 수

[244]「與熊純如書」,『嚴復集』,p.671;"獨至最後一舉, 則的是血性男兒忠臣孝子之事."

있다는 사유에 있다. 사실 그렇지 않다. 전제의 폐단에 대해 물론 가증하지만 공화라는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간주한다면 전제보다 그 피해가 더 클지도 모른다는 것을 방심할 수 있다."[245]

(大抵吾人通病, 在矚舊法之弊, 以為一從夫新, 如西人所為, 即可以得無弊之法, 而孰意不然, 專制未流, 固為可痛, 則以為共和當佳, 而熟知其害乃過於專制.)

"나는 여태까지 공화가 중화에 잘 맞는 정치체제가 아니라고 고수하고 있다. 공화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4 만만(萬萬, 억)국민의 죄인이다. 오늘날 초래된 일련의 고통은 공화민주를 하고 싶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에 연유한다. 그래서 난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고 수수방관을 할 수밖에 없다. "[246]

(鄙人自始洎終, 終不以共和為中華宜采之治體, 嘗以主張其制者, 為四萬萬眾之罪人, 九幽十八重, 不足容其魂魄。然今之所苦, 在雖欲不為共和民主而不能, 則亦如來諭所云, 惟有坐視遷流, 任其所之而已.)

1920 년말에 질환의 고통에 시달린 옌푸는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하나님이 염황(炎黃)운명이 다한 것을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다. 인간세계에 언제 육비(六飛)가 또 나타날 수 있겠는가? [247] "여기에 "육비"란 여섯 마리의 말이 끄는 고대 제왕이 타는 마차를 가리킨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보면 옌푸는 죽을 때까지 여전히 입헌군주제를 잊지 않았다. 그가 평생토록 입헌군주제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입헌군주제에 고수하는 원인 분석

무술변법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옌푸는 평생토록 입헌군주제에 대해서는 고수하고 충실하면서 공화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배척해 왔다. 이런 일관성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입헌군주제에 대한 옌푸의 고수는 청나라에 대한 유민(遺民)의 집착과 똑같은 성격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본질적으로 보면 이 양자간에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질문도 생각해 볼 만하다. 본문에서 어학적, 사상적, 외부환경적 등 여러 가지의 측면에 입각하여 분석함으로써 관련된 답을 제공하도록 시도한다.

245 「與熊純如書」, 『嚴復集』,p.680

246 「與熊純如書」, 『嚴復集』, pp.711-712

247 「陽崎尚書廟扶乩, 有羅真人者降, 示余以丹藥療疾, 賦呈四絕」, 『嚴復集』,p.412
"天公應惜炎黃盡, 何日人間有六飛？"

1) 공화에 대한 다른 해석

청나라 말기부터 민국초기까지 신문계에서 활동하던 한 언론인의 지적에 따라 옌푸가 공화제를 반대한 이유는 주로 다음과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하나는 "공화는 주나라 황실에서 정치를 의논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고 여러 대신들이 정령을 따르고 집행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민주적 정치제도가 아니다."[248] 다른 하나는 공화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적이고 『한서·외척전』(漢書·外戚傳)의 기록에 의하면 공화가 소의(昭儀, 고대여성의 관료직칭) 중 제 14 등에 있고 그의 지위가 비천하기 때문에 국호(國號)로 존칭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화제 국가인 미국의 자유신(自由神)도 여성이다.[249] 그러므로 공화라는 이름이 비천한 여성관료의 명칭이기 때문에 국호에 잘 맞지 않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 관해 고증할 수 있는 사료가 없기 때문에 그의 신빙성 여부는 고증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250] 이상의 원인이 설령 이 설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옌푸가 공화제를 반대한 근본적 원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공화"제가 민주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옌푸의 사상과 비슷한 점이 있다.

정치적으로 공화라는 것은 선거를 통하여 국가 권력기관과 국가원수가 선출되는 국가 체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공화제는 최초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 등 노예제 국가에서 생겼으며 민주공화제와 귀족공화제로 나뉘어진다. "공화"라는 단어로 영어의 "republic"을 번역하는 것은 근대 일본에서 시작되었다.[251] 옌푸는 1898 년 출판된 『천연론』에서 "공화"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

> "이른바 주치(主治)란 홀로 전권을 가진 군주이거나, 혹은 옛날의 공화처럼 몇몇 성현들이 같이 나라를 감독하거나, 혹은 금일의 민주와 같이 온 나라의 민권을 통합한 것이다."[252]
>
> (夫所謂主治者, 或獨具全權之君主；或數賢監國, 如古之共和；或合通國民權, 如今日之民主.)

"수현감국"(數賢監國)이란 표현은 공화주의 (republicanism)의

---

248 劉成禹著,『洪憲紀事詩三種』,(上海:古籍出版社,1983), p.267
"共和起於周室之議政, 亦不過諸大臣行政而已, 非民主也."

249 위와 같은 책, p.268

250 林志鴻,『民國乃敵國也-政治文化轉型下的清遺民』(臺北:聯經出版事業股份有限公司, 2009) , p.209

251 劉正琰著,『漢語外來辭辭典』,(上海:辭書출판사,1984), p.122

252 「天演論」,『嚴復集』,p.1353

함의를 보여주면서 고대와 당시 공화라는 개념의 차이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1900 년 후 일본에서 경유하여 수입된 서학적 저작의 양이 급증함에 따라 일본을 깔보는 경향이 있는 옌푸는 점점 "동학(東學)"의 범람에 반감을 들게 되었고 "공화"가 포함되는 일련 일본식의 번역어를 경시하곤 하였다.[253] 결국 "공화"라는 표현조차 꺼려 쓰게 되었다. 옌푸의 해석에 따르면 고대 중국어 "공화"는 신하가 잠시 군주의 권력을 대신하여 집권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고 서구역사 중의 민주정치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 "민주는 두가지가 있다. 서민간의 평등을 통하여 세워진 진정한 민주 및 여러 귀족과 성현들이 세운 현정(賢政, 귀족정치)이 있다. 요약하면 이 두 가지의 형식은 아시아에서 다 흔히 보일 수 있고 동쪽(일본)은 이것들을 공화로 잠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라는 것이 최초에 주나라 시대 때 처음으로 나온 것이고 그의 뜻은 제왕이 출생하기 전에 신하를 대신하여 국가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사실 이것은 태서의 공치(公治, 공공정치)의 제도와 전혀 같지 않다."[254]
>
> (民主有二：別用其平等，則為庶建，真民主也；用其貴貴賢賢，則曰賢政. 要之，是二者于亞洲皆不少概見者也，東譯姑以為共和. 然共和見於周，乃帝未出震之時，大臣居攝之號，此與泰西公治之制，其實無一似者也.)

> "공화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희주(姬周)시대의 중엽 때 처음 나타난 것이고 그것은 원래 제도가 아니고 오늘날의 공화와 같지도 않다. 오늘날의 공화는 동방의 원래 있는 공화가 아니고 서구국가인 그리스나 로마처럼 국가의 일을 다스리는 제도를 가리킨다."[255]
>
> (夫共和之號，見於吾國姬周之中葉，其為制本無，異乎今之共和；今之共和非東方所舊有也，西國希臘、羅馬之代尚已.)

그는『국부론』,『법의』 등의 유명한 저작을 번역할 때 republic, republican, commonwealth 등 단어를 자주 "민주", "민주공치(民主公治)", "공치(公治)", "공산(公産)", "공산지치(公産之治)", "공산민주(公産民主)", "공산제(公産制)", "합중공산제(合衆公産制)", "공산지제(公産之制)"로 번역하여 거의 "공화"라는 번역어를 쓰지 않았다.[256] 그가 번역한『군학이언』에서 republic 와 republican 이 두 개의 단어를 생략하거나 바꿔서 번역한 경우가 보인다. 예를 들면 그는

253『嚴復大轉』,pp.234-235

254『法意』, p.21

255「砭時」,『嚴複集補篇』,p.128

256 李承貴著『中西文化之會通』(江西:人民出版社,1997), p.226

원작 중의 republican assembly(공화제 의회)를 의원(議院)으로 줄여 번역하였다. 스펜서의 이 원작에서 republic 와 republican 이라는 단어가 총 7 번 나왔지만 공화라는 단어가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257] 뿐만 아니라 옌푸가 번역한『사회통전』(A History of Politics)에도 "공화"라는 단어가 비록 몇 번 나타났지만 이것에 대응하는 원문은 공화(republic)가 아니라 연방(federation)이었다. 예를 들면 federalism(共和合邦之制), the federal type of state or government(共和之制) 등 있다.[258]

옌푸의 번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서양 학문을 한자언어로 변역한 초기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유교적 전통의 토양에서 배양된 중국의 지식인이 서양의 문명의 토대를 이룬 서적을 번역하는 작업은 문명과 문명의 대화이며 문명의 교환 과정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참고할 만한 사전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당시의 번역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번역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259] 학문적인 태도가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중국사회가 이미 일본에서 수입된 번역어인 "공화"를 보편적으로 수용한 상황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옌푸는 자신의 견해를 지키면서 점점 가끔 자기자신의 글이나 서신 중에 "공화"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의 어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옌푸는 일본의 번역어인 "공화"에 대해 이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그가 정치적으로 공화제를 반대하는 그럴듯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옌푸의 원작 및 그와 관련된 많은 저작을 정리함으로써 그가 공화를 반대하는 이유로서 사상적인 원인 및 현실적 원인을 재구성할 수 있다.

2) 진화사상에 대한 집념

옌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쳐 준 스펜서는 막론하고 다른 유명한 서구학자인 몽테스키외, 밀, 실리 등의 사람도 전부 모두 정치제도에 변천의 규칙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화론적 방법에 따르면 국가나 사회는 생물과 마찬가지로 인위적 수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에 순응하여 국가가 처한 자연적 조건, 지리적 형세, 국민의 자질 등이 어떠한가 하는 조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60] 『정치강의』및『사회통전』에서 옌푸는 국가와 정치를

257『嚴復評傳』,p.477

258 위와 같은 책, p.149

259 양일모,『옌푸의 근대성 인식』,p. 51,『동양철학연구』제 52 집,2007

260「政治講義」,『嚴復集』,p.1290; "蓋天演途術, 是國家所為, 有非人所得主者, 內因外緣, 合而成局…天演自然之事, 視其國所處天時地勢民質何如."

천연(天演)의 결과로 간주하였고 [261] 인간의 사회가 토템사회에서 시작하여, 종법사회를 거쳐, 군국(국가)사회로 들어가는 3 단계로 나뉘어진다고 이해했다. [262] 토템의 변형된 형태로서 유목단계가 있고 종법의 변형된 형태로 봉건사회가 있다. 이러한 단계는 자연계의 현상 속에 사계절이 바뀌듯이 인간이 유년에서 청소년기와 장년기를 노년기로 나아가듯이 늦고 빠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절대로 순서가 바뀔 수 없는 것이었다. 옌푸에게는 우주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은 국가의 형성을 비롯한 만물의 변화가 모두 점진적이며 돌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263]

또 옌푸는『법의』를 번역할 때 이렇게 지적하였다. "국가의 좋은 운은 항상 다스리는 제도가 바뀌고 문명과 사물이 변천할 때마다 생긴다. 변화가 없을 때보다 새로운 제도가 이미 생겼을 때 더 자주 보인다." [264] 그리고 실리의 관점대로 "무릇 국가 법제의 변화는 반드시 급진적이 아닌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도리가 분명하고 이해하기도 쉽다. (정치제도가) 발전할 때 빠르거나 느리거나 하는 차이가 있지만 단계를 뛰어넘는 때가 없고 공공의 도리에 따라 만물의 변화가 점진적이고 급진적일 때가 없다." [265]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옌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쳐 준 스펜서는 더욱 조직과 관념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하는 진화론의 학자이었다.

옌푸는『군학이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였고 정치제도의 변천도 천연(진화)의 범위에 속한다고 분명히 제기하였다. "정치제도의 결정자가 군주에 달려 있든 국민에 달려 있든, 종교의 규정이 새롭든 낡았든 내가 배운 것으로써 보건대 다 천연과정의 일부분일 뿐이다." [266] 스펜서의 이런 논리에 따라 옌푸는 인간사회의

261「政治講義」,『嚴復集』,p.1250; "國家是天演之物, 程度高低, 皆有自然原理."

262「政治講義」,『嚴復集』,p.1245;『정치학이란 무엇인가』, 양일모 옮김, pp.42-43
토템사회: totemistic society 혹은 savage society 의 번역어이다. 『사회통전』에서는 인류의 사회 발전 단계를 야만, 종법, 국가로 설명하였다. 토템사회는 곧 야만사회이다. 종법사회는 patriarchal society 이다. 젠크스의『정치학사(A History of Politics)』를 번역하면서 militrary society 를 군국, 군국사회, 군국구가, 혹은 국가사회로 번역하였다. 젠크스는 military society 를 modern society, political society 로 명명하기도 했다. 이는 토템이나 종법과는 사회 성립의 동기가 다른, 근대적 정치체제로서의 국가를 의미한다.

263「政治講義」,『嚴復集』,p.1245;『정치학이란 무엇인가』,p.87; "宇宙有至大公例, 曰 "萬化皆漸而無頓."

264「法意按語」,『嚴復集』,p.971;"國家之景運, 往往見於治制更張、文物蛻變之際, 以比守成不變, 與乎新制即成之後, 常為多也."

265「續論英國憲政兩權未嘗分立」,『嚴復集』,p.235;"凡國家法制之變也, 必以漸而無頓, 此其理至易明也. 其演進也, 有遲速之異, 而無超躍之時, 故公例曰：萬化有漸而無頓."

266『群學肄言』,p.311;"政制之主于君民, 宗教之標夫新舊, 自吾學以觀之, 要皆天演之一時已耳."

발전과정을 제시하게 되었다. “위세를 떨치는 것은 처음에 주인을 둘러싼 노예제에서 시작했고 이어서 군주를 둘러싼 전제가 있다. 다음으로 권력제한이 있는 군주제가 이어지고 그 후 입헌의 정권이 이어진다.”[267] 또 몽테스키외의『법의』를 번역할 때 “민주라는 것은 천하에서 가장 훌륭한 제도이다”(民主者, 天下至精之制也) [268] 라고 평가하면서『원부』를 번역할 때도 “민주제도는 국민의 지혜가 가장 깊고 국민의 도덕이 가장 좋을 때 생긴 일이다. 기왕 민주제가 된 바에야 다시 군주제로 변할 리가 없다. 군주는 민주로 바꿀 수 있는데 민주는 군주로 바꿀 수 없다”[269]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옌푸가 국가 정치체제의 변천에 대한 규칙을 쉽게 추출해 낼 수 있다. 즉, 전제군주제-입헌군주제-민주공화제이다. 교육과 지방자치를 통하여 국민을 교육시키고 점진적으로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바꾸고 입헌군주제를 민주공화제로 바꾼다는 것은 그의 기본적인 관점이다.

옌푸는 점진적으로 정치적 개혁을 꾸준히 주장하면서 정치제도 변천의 점진성과 장기성을 반복하여 강조하였다. “좋은 제도의 수립, 좋은 풍속의 형성이, 천 백여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생긴건데 왜 하필이면 원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장차 잘 모르는 것에 경솔하게 기대하는 것인가?”[270]이런 기본적 관점에 의하면 근대중국이 폭력혁명을 통하여 갑자기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까지 뛰어넘는다면 사회발전의 점진적인 진화규칙을 분명히 위반한다고 옌푸는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신해혁명 발발 전 근대이래 영국과 프랑스의 혁명의 사례를 빌려서 폭력혁명의 준비부터 끝날 때까지의 반복성, 장기성 및 커다란 코스트를 강력하게 논증하였다. 즉 영국과 프랑스의 혁명 또한 진화의 과정이지만 이 또한 혁명의 기운이 숙성되어 혁명이 일어난 것이며, 혁명 후에도 다시 혁명의 고통을 극복하는 오랜 기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예전 영국의 혁명은 때마침 청나라가 가장 흥성할 때에 발생하였고 프랑스의 혁명은 최근 건륭·가경 때에 발생하였다. 현재에 이르러 영국과 프랑스의 역사를 파고 들여다보면 그 혁명의 준비시간이 다 백여 년 걸렸다. 사후(事後)에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내의 원망을 해소하기 위해 또 백여 년이 걸렸으며 그 후에야 결국 문명의 복을 받았다. 이 과정은

267『群學肄言』,p.149; “威服之事, 始奴虜之於主人, 繼之以專制之君上, 又繼之以有限之君權, 又繼之以立憲之政柄.”

268「法意按語」,『嚴復集』,p.965

269『原富』, p.578; “民主之制, 乃民智最深民德最優時事. 且既為民主, 亦無轉為君主之勢. 有君主轉為民主可, 由民主而轉為君主不可.”

270「憲法大義」,『嚴復集』,p.246; “一善制之立, 一美俗之成, 動千百年而后有, 奈之何棄其所故有, 而昧昧于來者之不可知耶！

험난하다."[271]

(昔英之革命也，實當勝代之季，法之革命也，近在嘉之間.至今考其國史，其醞釀之也皆百餘年，而事後之創夷，國之唸呻吟者又百餘歲，夫而后文明之終福獲焉，則其難有如此者.)

신해혁명 발발 후 옌푸는 중국이 전제군주제에서 직접 공화제로 들어가는 것이 진화규칙에 잘 맞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이 개명전제를 통하여 입헌군주제라는 이행 단계를 거쳐 공화제국가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하였다. 1912 년 중화민국이 공식적으로 성립된 뒤에도 그는 여전히 중국이 공화제를 채택한 것은 단계를 건너뛴 일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나라가 군주부터 직접 공화제에 들어가면 계급을 넘어가는 것이다." [272] 라고 직접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는 동시에 약간 빈정거리는 말투로 공화제를 수립한 사실에 자신의 불만을 표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20 세기 초기에 우리중국이 전제의 법부터 헌정법군을 거쳐 직접 민주까지 들어갔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일이랴!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치 죽을 늙은이가 운이 좋게 잠시동안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 같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숙성된 덕화(德化)때문이다. "[273]

(今何意當此二十世紀之初，吾中國由專制之法，越憲政法君而直成于民主，猗敔盛哉！人間何世，老朽乃幸須臾無死，及見此德化之成也.)

3) 국민수준에 대한 우려

국민수준을 둘러싼 문제는 옌푸의 정치사상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슈워츠의 관점대로 옌푸의 정치사상의 핵심적 목적은 중국이 어떻게 부강을 찾느냐는 질문을 해결하는 데에 있다. [274] 부강을 찾기 위해 옌푸는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부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민을 이롭게 하는 것임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치를 민을 이롭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백성이 자신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백성 각각이 스스로를 이롭게 할 수

271「主客平議」,『嚴復集』,p.120

272「說黨」,『嚴復集』,p.305; "吾國由君主徑入共和，越躐階級."

273『論國會議員須有士君子之風』,『嚴復集』,p.325

274『尋求富强-嚴複與西方』,p.91

있는 것이 역시 모두가 자유를 얻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백성이 모두 자유를 얻었다는 말을 듣고자 한다면 또한 반드시 백성 각각 능히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생각하건대 백성이 능히 자신을 다스리고 자유로운 것은 민력, 민지, 민덕 모두 진정으로 우월할 때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요정(要政, 중요한 정치임무)은 총괄적으로 요약하자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고민력(민력을 북돋운다)이고 둘째로 개민지(민지를 일깨운다)이고 셋째로 신민덕(민덕을 새롭게 한)이다."[275]

(夫所謂富強云者, 質而言之, 不外利民云爾. 然政欲利民, 必自民各能自利始;民個能自利, 又必自皆得自由始; 欲聽其皆得自由, 尤必自其各能自治始; 反是且亂. 顧彼民之能自治而自由者, 皆其力、其智、 其德誠優者也. 是以今日要政, 統于三端：一曰鼓民力, 二曰開民智, 三曰新民德.)

즉 민덕(民德), 민지(民智), 민력(民力)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민이 자치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수 있고 국민이 자치능력이 있으면 자유를 받을 수 있고 자유가 확보될 수 있으면 스스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스스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면 국가도 부강해질 수 있다고 옌푸는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국민수준이라는 변수는 그의 정치주장 중에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옌푸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쳐 준 대부분의 서구학자는 정치제도가 반드시 국민의 수준과 잘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펜서의 사회유기체론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유기체이다. 이런 유기체 중 전체의 특성은 각 부분의 특성에 달려 있다. 국가는 국민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간의 생존경쟁은 결국 국민 경쟁의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276] 밀의『자유론』에 따르면 자유체제가 문명적(civilized) 세계에만 적용하고 그 중 문명에 있어 한 중요한 지표는 그 나라에 자립적이고 자치적 능력을 갖추는 국민이 있다는 것이다. 즉 "격식이 있는 인간"(合格的人)에게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277] 자유는 민주정치의 핵심이라고 간주하는 옌푸는 이런 관점을 잘 받아들여 덕, 지, 력 측면에서 일정한 수준을 갖추어야만 민주제도에 적용할 수 있고 그래야만 민주제도가 전면적으로 수립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수준의 향상이 느리고 점진적인 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제도의 변천도 느리고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275「原强修訂稿」,『嚴復集』,p.27

276 Spencer, *The Study of Sociology*, New York: D.Apleton and Company, 1914. p.43,45; "The character of aggregate is determined by the character of the unites."

277 Mill.John Stuart,*On Liberty and Other Writing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13

틀림없는 과정임을 결정하였다.

옌푸는『군학이언』에서 "다스림이 엄격하거나 너그럽거나, 제도의 본질이 민주에 있거나 전제에 있거나, 모두 인간의 힘으로 능히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제에 맞는 백성을 전제적 환경에서 살게 하면 편안하지 않고 전제에 맞는 백성을 입헌적 환경에서 살게 하면 다스려지지 않는다. 대개 모두가 백성이 스스로 취한 것이다."[278] 라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고 근대 그리스, 멕시코, 남미주의 각국 및 프랑스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폭력혁명을 통하여 국민수준보다 높은 정치제도를 무리하게 실시하면 급격한 사회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정치제도의 변덕스러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옌푸는 스펜서의 말을 이렇게 번역하여 기술하였다.

> "만약 민의 품행과 실시하고 있는 법도(法度)가 절대 부합하지 않으면 만약 혁명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민주공화제를) 수립하거나 아니면 변법을 통하여 변혁하거나 함으로써 헌법의 수준을 많이 높일 수 있으면 민의 품행이 (여전히) 심히 낮기 때문에 정치제도와 풍속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입법의 취지가 좋더라도 이로움이 별로 없을 것이다."[279]
>
> (假令民品与所行之法度，绝不相谋，若革命一时之所立，抑变法更始之所为，宪法固甚高，民品则甚下，将视其政俗相睽之程度，终于回循故辙而后已，立法良固无益也.)

"민주라는 것은 진화 과정 중의 가장 훌륭한 정치제도라고 보게 되었다. 민주제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영위시키려면 반드시 그 때의 국민의 도덕과 품행수준을 이것에 맞추게 해야 한다."[280] 라고 옌푸는 반복하여 강조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비록 옌푸는 "전제군주제-입헌군주제-민주공화제"의 순서대로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전제군주제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고 민주공화제가 반드시 좋은 제도는 아니어서 민주공화제가 반드시 전제군주제보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그의 관점대로 한 정치제도의 좋고 나쁨은 진화단계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국민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수준에 맞는 정치제도가 바로 제일 적합한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군주권력의 많고 적음도 국민의

278『群學肄言』,p.151;"治之寬猛，制之眾專，非人力之所能為也.宜民主者為之專制則不安，宜專制者為之立憲則不治，大抵皆民所自取者."

279『群學肄言』,p.208

280「法意按語」,『嚴復集』,p.965; "民主者，天下至精之制也，然欲其制之有立而長久，必其時上下之民德足以副之."

지혜와 밀접하다고 주장하였다.

> “군권의 경중은 민지(民智)의 깊이와 비례한다. 어떤 논자(論者)가 툭하면 중국에서 응당 군권을 줄이고 의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말을 하곤 한다. 오호라! 오늘날의 민지가 아직 많이 성숙되지 않은 중국에서 태서처럼 군민이 같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정치를 모방한다면 이것은 크게 어려워지는 길이다.”[281]
>
> (夫君權之重輕, 與民智之淺深為比例. 論者動言中國宜減君權、興議院, 嗟呼！以今日民智未開之中國, 而欲效泰西君民并主之美治, 是大亂之道也.)

옌푸의 글을 통하여 보면 그가『군기권계론』을 번역함으로써 밀의 주장을 인정하고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명사회에서 사는 데 적합한 국민이 되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282]는 밀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옌푸는 이를 향후 자신의 관점으로 수용하였다. 즉 수준에 적합한 국민에게 민주제가 바로 가장 알맞는 제도이다. 그러나 야만적인 무리한테는 민주제가 아니라 전제정치가 가장 알맞는 방식이다. 어떤 제도나 다 좋고 나쁨이 있고 국민수준에 맞는 제도가 옳은 제도이다.[283] 옌푸는 정치제도를 마치 “사람의 옷”이라고 간주하면서 이 옷의 사이즈에 맞아야만 사람이 행동하기 편하다고 생각하였다.

> “무릇 다스리는 제도가 원래 좋고 나쁨의 구별이 없고 민의 수준과 제도가 어울리는 정도에 달려 있다. 민은 몸과 같고 제도는 옷과 같다. 어린이에게 용사가 입는 큰 옷을 입게 한다면 걷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넘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국민수준의 우열을 무시하고 다스리는 제도에만 신경을 쓰면 결국 농담으로 되고 말 것이다.

---

281 「中俄交誼論」,『嚴復集』,p.475

282 *On Liberty*, Chapter1 Introductory, pp.13-14

It is, perhaps, hardly necessary to say that this doctrine is meant to apply only to human beings in the maturity of their faculties. We are not speaking of children, or of young persons below the age which the law may fix as that of manhood or womanhood…Despotism is a legitimate mode of government in dealing with barbarians.

Liberty, as a principle, has no application to any state of things anterior to the time when mankind have become capable of being improved by free and equal discussion. Until then, there is nothing for them but implicit obedience to an Akbar or a Charlemagne, if they are so fortunate as to find one.

283 『群己權界論』,서론, p.10;“待野蠻之眾, 舍專制之治, 且無可施. 而辨所為之台義與否者, 必從其後效而觀之.”이것은 옌푸가 향후 점점 보수적인 사람으로 변했다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중화민국의 혼란스러운 현상과 국민수준에 대해 극히 실망한 옌푸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제정치를 다시 주장하는 사상적 원인으로 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역사학자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다."[284]

(蓋治制本無優劣, 視與其民程度相得何如. 民如軀幹, 制如衣服, 以童子而批賁育之衣, 決其不行而蹶耳, 何可用乎？故不察國民優劣, 而徒于治制爭之, 只成戲論, 此治歷史學者所共明也.)

그러므로 옌푸는 "고민력(鼓民力). 개민지(開民智). 신민덕(新民德)"-이런 국민 수준의 향상을 중심으로 하는 구국 해결책을 제기하면서 정치제도와 국민수준의 관계를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조정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민주정치가 국민의 덕(德), 지(智). 력(力) 각 면의 수준이 기본적으로 평등한 바탕 위에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삼자가 같은 수준에 달하면 아름다운 정치제도가 온다"[285] 그러지 않으면 설사 혁명의 수단으로 강제로 훌륭한 민주공화제도를 세우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고[286] 원래 있는 빈부격차를 말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파괴할 수도 있고 받으려는 성과를 오히려 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추론함으로써 옌푸가 혁명을 통하여 공화제를 수립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 중국 국민수준이 낮는 상황을 감안하여 판단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군학이언』에서 제기한 "민덕의 변화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기대해야 한다"[287] 라는 말을 옌푸는 깊이 믿고 이렇게 칭찬하였다. "스펜서의 말이 옳다! '국민은 진화는 진화할 수 있으면 진화는 끝이 없을 것이다. 다만 급진적인 변화로 이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288] 이와 같이 민중수준의 향상은 하나의 점진적인 과정이고 수천년을 거쳐 전제정치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사상관념이 단기간에 결코 바뀔 수 없다고 옌푸는 생각하였다. 근대중국의 군주나 국민의 수준은 민주공화제는커녕 입헌군주제의 수준에조차 미달되었기 때문에 폭력혁명을 통하여 갑자기 공화제 국가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 그는 신해혁명 전에 혁명을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발 후에도 혁명의 방식을 책망하고 중국 국민수준의 진화가 적어도 몇 십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설사 민주공화제를 주장한 중화민국이 성립되더라도 중국국민이 낮은 수준으로 인해 몇 년에 한 번씩의 대통령

284 『社會通詮』,p.144

285 「法意按語」,『嚴復集』,p.957; "必其力平, 必其智平, 必其德平. 使是三者平, 則郅治之民主至矣."

286 「法意按語」,『嚴復集』,p.957; "民主者, 治制之极盛也.使五洲有郅治之一日, 其民主乎？虽然, 其制有至难用者. 何则？斯民之智德力, 常不逮此制也."

287 『群學肄言』,p.94; "民德可移, 期之以漸."

288 「原强修訂稿」,『嚴復集』,p.25; "善夫斯宾塞尔之言曰：'民之可化, 至於無窮, 惟不可期之以驟'."

선거를 담당할 수 없고 또 그 때에 잘 맞는 대통령 후보자까지도 없다고 옌푸는 확신하였다. 동시에 몇 년에 한번씩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는 남미주에 있는 몇 개의 공화제 국가를 반증할 수 있는 예로 삼고 겉으로는 공화제를 실시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주기적 혼란을 야기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멸망한 청나라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 중국의 공화제를 반대한 유민(遺民)과 달리 옌푸가 공화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공화제 그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화제를 현실 생활 중 가장 좋은 국체[289]로 간주해 왔지만 중국 국민의 수준이 잠시 동안 이런 훌륭한 제도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심지어 옌푸는 민국초기 정치사회의 혼란이 공화제에 대해 나쁜 명성을 가져올 것에 우려하였다.

> "오늘날 민국이 세워진지 벌써 6 년차이다. 그러나 시사를 보면 해마다 사람들을 고통시키는 혼란스러운 경우가 반복하여 생긴다. 지금 공화제와 일련의 자유,평등의 논조를 뱀과 전갈로 삼아 미워하는 언론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다. 그 후 다시 뒤돌아보면 그 때의 주장이 너무 급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290]
> (今之民國已六年矣, 而時事如此, 更復數年, 勢必令人人親受苦痛, 而惡共和與一切自由平等之論如蛇蝎, 而後起反古之思, 至於其時, 又未必不太過)

사실 옌푸가 국민의 낮은 수준으로 인한 폭민정치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통하여 계속 추궁하면 그가 엘리트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밀의 다수의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291]의 영향을 받은 옌푸는 한편으로는 정부가 격식이 있는 국민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격식이 있는 국민들 중에 지혜와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니 국가정책을 정할 때 더 지혜롭고 능력이 높은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국민수준이 낮을 경우에 "한 무리의 횡포"는 "한 사람의 횡포"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옌푸는 한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관점을 설명하였다.

> "나라가 물음이 생길 때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복리(福利)와 관련된 것은 꼭 공민(公民)의 수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항상 한 무리의 전횡은 한 사람의 독재보다 더 위험하다. (개인의) 전제자가 꼭 자신의 이익만 위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289 「與熊純如書」, 『嚴復集』,p.627;"顧民意之於吾國, 乃至難出現一物,使不如是,則共和最高國體, 亦無所謂不宜者矣." (여기에 공화제를 최고 국체라고 간주하는 말이 있다.)

290 「與熊純如書」, 『嚴復集』,p.663

291 다수의 횡포: 대부분이 합의한 의견도 잘못된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 개인적인 옳은 생각을 억압할 수 있으니 사회발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젊었을 때 해군에서 복역한 적이 있어서 항해와 관련된 일을 다소 알고 있다. 만약 파도가 거세고 날씨가 흐릴 때 모든 선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리사나 아궁이에 나무를 때는 노동자까지도 불러서 같이 항해를 논의한다면 이 배의 항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는 항해보다 더 많이 복잡하고 엘리트와 보통사람의 격차가 더 분명하니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이 평등이라는 이유로 (전제정치를) 비난하는 것을 보면 평등(이라는 표현)을 신중하게 쓰면 좋을 듯한다고 생각한다."[292]

(然須知國有疑問, 以多數定其從違, 要亦出於法之不得已. 福利與否, 必視公民之程度為何如. 往往一眾之專橫, 其危險壓制, 更甚於獨夫, 而亦未必遂為專者之利. 不佞少嘗于海軍, 稍知御舟之事. 假使波興云譎之際, 集舟中水手, 乃至廚役火工, 使之議決帆針向之事, 則此舟前路, 當為何如？夫政海風波, 過於瀛海者千萬, 顧可爭出手眼, 輕心掉之也？然則平等非難, 亦惟吾人慎用此平等已耳.)

이렇기 때문에 옌푸는 입헌제(입헌군주제나 입헌민주재)를 달성하기 전에 위험하더라도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결되어 있는 이행단계(즉 개명전제)를 거쳐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국민으로 이뤄진)민권기관은 장기적인 민지의 향상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수립될 수 있다. 수립하기 전에 땅이 넓고 사람도 많은 중국에 있어서 포악한 통치를 피하고 잘 다스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장 큰 권위를 한 사람에게 집결시켜야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위험한 제도이고 오랫동안 태평스럽고 평안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만 당시 속절없는 가장 좋은 차선책이었다."[293]

(須知民權機關,非經久之過渡時代,民智稍高,或因一時事勢會合,未由成立.而當其未立,地廣民稠,欲免於強豪之暴橫, 勢欲求治,不得不集最大之威權,以付諸一人之手,使鎮撫之.此其為危制,而非長治久安之局固也,然在當時,則亦不得已而思其次者矣.)

옌푸는 민력(民力), 민지(民智), 민덕(民德)을 다 갖춘 국민을 통하여 민권을 실시하는 것이야말로 오랫동안 태평스럽고 평안한 방책이라고 했다. 그 전에 "권위주의"적 체제는 "민주주의"적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 중에 "개명전제" 라는 위험한 단계를 겪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다. 1911 년 신해혁명 발발 후 옌푸는 혁명이 가져온 일련의 혼란상태를 본 후에 탄식하였다.

"천하가 전제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강은커녕 질서의 회복까지

292 「民約平議」, 『嚴復集』, p.337
293 「政治講議」, 『嚴復集』, p.1306

불가능하다."[294]
(天下須定於專制, 不然, 則秩序恢復之不能, 尚何富強之可跂乎.)
"대외적으로 강할 수 있고 대내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기만 한다면 사용하는 방법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295]
(其對外能強, 其對內能治, 所用方法皆其次也.)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보면 옌푸는 엘리트주의의 경향을 잘 보여주면서 심지어 목표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 수단까지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패권"적 색채를 띠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국의 형세를 보면 한편으로는 외부적인 위협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적인 혼란이 있으며 게다가 낮은 국민수준의 상황도 같이 고려하면 그 인생의 말기에 전제를 지향한 원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제를 주장하고 민주제를 반대하는 반동후퇴적인 인물로 단순히 간주하면 안 되고 사상언론 및 그와 관련된 시대적 배경도 같이 고려해야 그의 사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4) 지리조건의 제약

정치제도 및 인구와 국토규모의 관계에 있어 몽테스키외, 루소, 실리 등의 서구학자는 민주공화가 땅이 좁고 사람도 적은 나라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몽테스키외는 정치체제와 품행,도덕의 시각에 입각하여 공화제가 땅이 좁은 나라에 적합하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큰 공화국에는 재부가 많지만 절약하는 기풍을 이루기가 어려워서 이기심의 팽창으로 인해 국가이익의 손해를 초래하기 쉽고 사회복지도 항상 경시되곤 한다. 반면에 작은 공화국에는 재부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공공이익이 분명해지며 국민개인의 이익과 더 밀착될 수 있기 때문에 공화제가 보호받기가 쉬워지고 폐단도 상대적으로 적다.[296] 또 군주제는 부유한 국가에서 더 많이 보일 수 있고 민주제는 땅이 메마른 국가에서 더 많이 보일 수 있다고 그는 지적한 적이 있다.[297]

몽테스키외와 달리 루소는 인구의 시각에서 민주공화국이 사람이 적은 국가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논증하였다.『사회계약론』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만약 다른 국가에서 최고 행정관의 수가 국민의 수와 반비례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민주정부는 작은 나라에 적합하고

294 「與熊純如書」,『嚴復集』,p.603
295 「與熊純如書」,『嚴復集』,p.646
296 孟德斯鳩著,孫立堅譯,『論法的精神』(陝西:人民出版社 2001),p.124
297 위와 같은 책, p.280

귀족정부는 중간 나라에 적합하고 군주정부는 큰 나라에 적합하다."[298] 루소의 구체적인 논증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권이 신민(臣民)에 대한 비율은 크다. 이와 같이 정부가 행정장관에 대한 비율도 크다. 행정장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의 권력이 약하다. 그러나 국민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스리는 권력은 커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장관의 정부에 대한 비율과 신민의 주권자에 비율은 정반대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가 크면 클수록 정부권력의 분산이 축소되어야 한다. 결국 정부관료의 수가 국민 인구의 많아짐에 따라 비례로 감소해야 한다."[299]

실리의 지적대로 세계적 역사에서 보면 고대 그리스, 로마의 도시국가만 땅이 좁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진정으로 직접적인 민주제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근대 이래 도시국가의 확대와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직접적인 민주제를 실시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을 대신하여 간접적인 대의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의제는 이상적인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인 자치(self-government)와 여전히 일정한 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각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옌푸는『정치강의』에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 "종중, 대표 이 두 가지의 제도는 자치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첫째는 법이 대중에서 나오는데 개인이 소기(小己)로써 꼭 대중의 일부분에 있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법이 대표자에 달려 있지만 결국 내가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300]
> (從眾、代表之二制, 其去自治, 尚隔兩塵. 何以言之？法出于眾, 所謂眾者, 吾之小己, 不必即在其中, 一也；法定于代表人, 是代表者, 畢竟非我, 二也)

옌푸는 부분적으로 몽테스키외의 관점에 동의하며 몽테스키외의 관점이 어느 정도 중국고대 약소국의 민주적 상황을 해석할 수 있지만 근대 미국과 프랑스처럼 큰 나라가 공화제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을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301] 그리고 루소의 반민주제의 경향을 잘

---

298 盧梭著, 徐强譯,『社會契約論』(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9),p.87

299 위와 같은 책, p. 84-85

300「政治講義」,『嚴復集』,p.1303

301 黃克武著,『嚴複晚年思想的一個側面：道家思想與自由主義會通』,(臺北:允晨文化,1996), p.48

알고 있는 옌푸는[302] 인구의 시각에서 논증한 민주가 약소국에 적합하다는 주장을 인정하였다.『헌법대의』에서 루소가 주장한 민주제는 국민이 다른 사람을 선거하여 대의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정치를 논의하는 권력을 가리킨다[303]고 옌푸는 지적하면서 "루소가 또 말하기를 민주제가 작은 나라에 적합하고 군주제는 큰 나라에 적합하다. 즉 이런 규칙을 도출하였다. 다스리는 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수는 반비례해야 한다"[304]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4 억의 인구가 있고 땅도 넓은 중국에 있어 입헌군주제가 맞는 방식이라고 옌푸는 역설하였다."[305] 게다가 다른 국가에 비해 중국에서 대의제를 실시하면 국민의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기 어렵고 법의 개정, 대통령 선거 등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그는 예상하였다.

옌푸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중국이 공화제에 맞지 않다는 것을 논증할 뿐만 아니라 이미 공화제를 채택한 국가의 실제적 상황을 고찰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을 입증하기도 하였다. 멕시코, 남미주의 여러 국가 및 프랑스, 미국 등 강대국이 공화제를 실행하는 과정에 많은 폐단을 드러냈다고 생각한 옌푸는 『군학이언』에서 이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고 비판하였다. 그는 스펜서의 논술 자료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멕시코, 남미주의 많은 국가가 공화제를 실행한 후 급진적인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사회혼란을 일으키면서 국가도 약해졌다고 역설했다.

"공화국체는 구미(歐美)제방에서 수립된 이유는 그곳에 들어맞는 군주를

302 옌푸의 분석에 따라 루소의 생각에는 민주제를 실시하는 데에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보면 국가가 너무 크지 말아야 하고 국민도 너무 많지 않아야 하며 국민이 아름다운 풍속을 가져야 하고 그들간 빈부의 격차가 적어야 하고 또 집회하기가 쉬워야 한다는 등 일련의 조건이 필요하다. 진정한 민주제는 대의제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마다 입법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요구조건이 상당히 높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짚어보면 예전에는 진정한 민주제가 존재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루소는 생각한다. 「憲法大義」,『嚴復集』,p.242; "國大民眾,而行憲法,代議所不能不用者也.而盧梭氏則不甚喜此法, 故嘗謂英民自由為虛語.…真民主制, 人人自操立法之權, 不由代議；然由謂其制過高, 非尋常國民程度所及. 蓋不用代議, 必幅員褊小, 戶口無多, 民人大抵相識, 而風俗敦厚簡易, 開口見心, 民之地望財產相若, 而不足以相淩駕者而後能之."

303「憲法大義」,『嚴復集』,p.242; "盧梭之所謂民主者, 直接而操議政之權, 非舉人代議之制."

304「憲法大義」,『嚴復集』,p.242;"故其又言曰：民主之制, 利用小國, 猶君主之制, 利用大邦, 是故有公例焉, 曰：至尊出治人數與受治人數之多寡為反比例."

305「憲法大義」,『嚴復集』,p.242;"由盧梭之說言之,吾國向者以四萬萬而戴一君,正其宜耳."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화제를 채택한 후에 가끔 다스림으로 강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혼란을 야기해서 약해짐을 초래하였다. 멕시코, 남미주 제방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중국은 땅이 넓고 국민도 많기 때문에 특히 (공화제에)맞지 않는다."[306]

(共和國體即在歐美諸邦, 亦成于不得已, 必因無地求君, 乃行此制, 而行之亦亂弱其常, 治強其偶, 墨西哥、南美諸邦, 可以監矣。至於中國, 地大民眾, 尤所不宜.)

이와 동시에 옌푸는 프랑스와 미국 등 큰 나라가 공화제를 채택함으로써 실력이 강해지고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부분적으로 자신의 남다른 의견을 여전히 지켰다. 프랑스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여러 번의 혁명을 겪은 후에야 공화제가 점차 안정되었다.『군학이언』에서 스펜서가 프랑스 혁명에 대해 심각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겉으로 말하기는 민주라고 하지만 낡은 전제정치 제도가 사실은 은은히 작용하고 있다."[307] 미국의 경우는 옌푸가 스펜서의 비판에 동의하였다. "미국의 다스림, 말하기는 공정한 대동(大同)세계와 같지만 실제로는 공평하지 않은 폐단이 은연중에 숨어 있다."[308] 청일전쟁 때 그는 "미국 워싱턴의 입법이 훌륭하지만 그중 뇌물수수를 하는 기풍을 오늘날까지 철저하게 해소할 수 없다."[309] 옌푸에게는 미국정부가 자주 출입국의 외국인을 제한하거나 일부러 곤란하게 하는 상황을 "공화제와 간사스러운 이익과 결합하는 증거"[310] 로 연결하여 간주하였다. 특히 프랑스 대혁명의 유혈사태, 링컨을 비롯한 여러 번의 미국 대통령 암살 사건이 나타나던 공화제 사회의 혼란한 모습은 모두 옌푸의 편견을 심화시켰다. 그러므로 옌푸는 중국이 프랑스와 미국을 본받아 혁명을 거친 후 바로 공화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기대한 적이 없다.

5) 중화민국 초기 국내외 정세의 영향

중화민국 초기에 국내의 정치정세는 어두워서 계속 사회혼란이

306「與熊純如書」,『嚴復集』,p.662

307『群學肄言』,p.208; "陽號民主, 而舊日專制霸朝之政, 實陰行夫其中."

308『群學肄言』,p.209; "美國之治, 名為至公大同, 而不公不平之弊, 陰伏其中."

309「原强修訂稿」,『嚴復集』,p.25;"美國華盛頓立法至精, 而苞苴賄賂之風, 至今無由盡絶."

310「與熊純如書」,『嚴復集』,p.663;"美為崇拜自由之國,顧外人出入其國,所有官吏必加種種之.無謂刁難限制, 甚至放行收受賄賂, 亦時有所聞.共和政體與姦利常結為緣, 可知其非虛語矣."

이어졌다. 국내의 혼란과 군벌의 할거에 직면한 옌푸는 이렇게 탄식하였다.

"천하가 여전히 전제로 복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를 회복시키기가 불가능한데 하물며 부강을 도모할 수 있으랴?."[311]
(天下仍須定於專制, 不然, 則秩序恢復之不能, 尚何富強之可跂乎？)

무엇보다도 국가의 질서와 기강이 확립된 이후에야 발전과 부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던 옌푸는 혁명을 통하여 수립한 공화제에 대해 회의를 심화시켰다. 중화민국 성립 후 그는 민국초기의 혼란에 대해 실망스럽게 말하였다.

"민국이 세워진지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다른 효과가 보이지 않고 다만 네 번이나 국가의 법도(法度)를 파괴하고 세 번이나 국가의 법강(法綱)을 파기하는 것만 보였다. 간사스러운 관리(官吏)가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많고 민의 이익을 경시하고 자신의 이익만 늑대처럼 노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걱정거리가 이어진다."[312]
(民國之建亦有年矣, 他事未效, 徒見四維弛, 三綱隳, 吏之作奸, 如猬毛起, 民方狼顧, 有朝不及夕之憂.)

"소위 공화, 행복이라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다. 위험한 현상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은 청나라 말기처럼 극렬하다. 가난한 민중이 도둑으로 되고 병변도 자주 들리며 경성에서든지 다른 도시에서든지, 공적 재부나 사적 재부가 다 탕진되고 적자를 냈다. 부(府), 주(州), 현(縣) 성도 소재지에 돈을 상납할 수 없고 성도 소재지가 경사(京師)에 돈을 상납할 수 없다. 재정의 어려움은 전에 있은 적이 없다. 그리고 외교가 어려움에 닥친 지 벌써 몇 개월이 되었다. 강대한 러시아가 틈을 노려 몽골지역을 침략하고 중국과 맺으려고 하는 협약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사악하다."[313]
(所謂共和、幸福, 均未見也. 而險象轉以環生, 視晚晴時代猶烈. 民窮為盜, 病變時聞, 京外公私, 掃地赤立. 府、州、縣無所供于省會, 省會無所供于京師, 財政之難得未曾有. 且數月以來, 外交尤為棘手. 強俄乘隙抵巇以收蒙庫, 其協約至惡, 若使人忍無可忍.)

옌푸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모두 다 공화제가 불러일으킨 나쁜

311「與熊純如書」,『嚴復集』,p.603
312「太保陳公七十壽序」,『嚴復集』,p.351
313「砭時」,『嚴複集補篇』,p.128

결과로 간주하였다. 그는 빈정거리고 불만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하였다. “혁명공화라는 큰 효용이 오늘에야 나타나기 시작한다. (역시)민중을 괴롭혔다.” [314]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 중화민국에 대한 실망감을 가진 옌푸는 민국초기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논문들 중에 공화제에 대해 논의할 때 종종 부정적안 표현이 나왔다. 예를 들면 “소위공화”(所謂共和)나 “소위 공화문명의 제도”(所謂共和文明之治) 등의 반대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 흔히 보일 수 있고 개인적 서신에서 더욱 강한 “무모한 공화”(鹵莽共和)[315]라는 부정적인 표현까지 사용하였다.

청나라 멸망 전에 옌푸는『법의』에서 불안정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국군의 자유 (즉, 국가의 생존과 죽음)는 소기의 자유(즉, 개인적 자유와 다수의 정치를 특징으로 하는 민주제)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여러 번 주장하였다.[316]

> “서구국가가 그의 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할 때 자유를 유일한 취지로 삼아 왔다.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민이 자유를 획득하려고 노력한 것은 바로 수백여 년 동안의 폭군의 탄압과 귀족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세를 살펴보면 소기의 자유는 급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외족의 침입을 막고 독립적인 자세로 천지간에 서 있느냐는 바로 진정으로 급한 일이다. 그러므로 급한 것은 소기의 자유가 아니라 국군의 자유이다.”[317]
>
> (西士計其民幸福, 莫不以自由為惟一無二之宗旨. 試讀歐洲歷史, 觀數百年百餘年暴君之壓制, 貴族之侵陵, 誠非力爭自由不可. 特觀吾國今處之形, 則小己自繇尚非所急, 而所以祛異族之侵橫, 求有立于天地之間, 斯真刻不容緩之事. 故所急者乃國群自繇, 非小己自繇.)

청나라 멸망 후, 중화민국 초기의 혼란스러운 국면에 직면해

314「與熊純如書」,『嚴復集』,p.713; “革命共和, 其大效至今日始見, 群然苦之.”

315「與熊純如書」,『嚴復集』,p.708

316 옌푸의 자유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옌푸는『정치강의』에서 자유의 법칙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였다. “영토가 광활하고 비옥하여 삶이 풍족하고 또 외적의 침임이 없는 국가에서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커질 것이다. 만약 사방을 경계해야 하거나 전쟁의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다면 이 나라 정부의 명령은 틀림없이 복잡할 것이고 국민의 자유 또한 작을 것이다. 이것은 법칙이다.” 즉 국가 통치권의 경중과 이로 인한 자유의 다과는 언제나 국가의 내우외환과 비례하여 정해진다는 것이다. 중화민국 초기 당시, 국내에서는 공화제의 헌법과 국회를 자행하는 행위가 속출하고 국외에서는 외세의 간섭과 위협도 너무 심한 상황 하에 옌푸는 국민이 자유와 민주권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강력한 통치자를 통하여 (개명전제의 방식)국가의 생존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치학이란 무엇인가』,p.140

317『法意』,『嚴復集』, p.981

국가의 안정한 질서에 대한 염려는 옌푸의 마음 속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되었다. 1914 년의 <민약평의>이라는 글에서 다시 국군의 자유가 소기의 자유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오늘날 급히 할 일은 자유가 아니라 개인이 자유를 줄임으로써 나라와 사회를 좋게 만드는 것을 책임으로 여기는 일이다."[318]
> (今之所急者, 非自由也, 而在人人減損自由, 而以利國善群為職志.)

옌푸의 생각에 따르면 당시의 중국사회에 있어 민주공화제를 추구하고 보완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고 급선무도 아니다. 특히 1917 년 8 월 북양정부가 공식적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중국도 제 1 차 세계대전에 말려 들고 말았다. 민주공화제가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에 유리하지만 군사전쟁을 실시하는 데에 불리하다고 생각했다.

> "전쟁의 시대가 되면 중치(衆治, 다수의 정치)를 버리고 전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특별히 많다. 이 때 (국가의) 존립이 급선무로 되며 모든 국민의 이익을 나중에 도모할 일로 미룬다. 군(群, 사회)이 전쟁에서 적을 공격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따르곤 한다."[319]
> (乃至戰爭之世, 其黜衆治, 而用專制者尤多. 蓋當此之時, 以求存立為先, 一切國民利益, 衆皆視為後圖, 而群附于戰勝攻取之能者.)

전쟁을 위해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민주국가까지 일련의 개혁을 통하여 정부조직을 개편하였고 전시내각을 수립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잠시동안 민주공화제를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말아야 하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정치체제에 대해 임시변통의 방식을 통하여 수시로 적당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옌푸는 특별히 강조하였다.

> "두 개의 교전국은 설령 문명의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정치의 풍속이 실로 크게 다를 수 있다. 독일과 러시아는 비록 의원이 있지만 다 무(武)를 숭상하는 전제국가이다. 반면에 영국과 프랑스 같은 민주국가는 군사전쟁을 대비하는 데 불리하다. 그러므로 선전 포고를 한 후 그들의 정부가 다 개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다. 섬나라로써의 일본은 그의 변법은 영국을 배운 것이 아니라 순전히 독일만을 모범으로

318 「民約評議」,『嚴複集』,p.337
319 「政治講義」,『嚴復集』,p.1311

삼았다. 왜냐하면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 이러하다는 것을 신중히 고찰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설령 영국과 프랑스를 배우더라도 강해짐을 도모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형세, 수준, 습관 등 여러 면에서 공화제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경솔하게 이것을 실행함으로써 생존을 다루면 반드시 다행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320]

(兩宗交戰國, 固是文明程度相若, 而政俗實大不同：俄、德雖有議院, 然皆尚武而專制; 而英、法實皆民主, 民主于軍謀最不便, 故宣戰後, 其政府皆須改組, 不然敗矣; 日本以島國, 然其變法不學同形之英, 而純以德為師資者, 不僅察其國民程度為此, 亦以一學英、法, 則難以圖強故也. 吾國形勢程度習慣, 于共和實無一合, 乃貿然為之, 以此爭存, 吾決其必無幸也.)

"모든 학설, 법리가 오늘날 금과옥조로 간주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무용지물로 되고 말았다. 예를 들면 평등, 자유, 민권 등 여러 주의가 백년 이래로 현재에게 진정으로 제 2 의 복음과 같다. 오늘날 그 폐해가 날로 나타나서 판단을 바꾸지 않는 한 어지러움과 멸망의 재앙이 생길 것이다. 몇 년 동안 영국, 프랑스 등 국가 정부가 한 것을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 그러나 몽매한 사람은 남이 버린 법을 모범으로 삼고 소중한 보배로 간주하고 있다. 예를 들면 터키, 중국, 러시아는 이런것들을 모두 변법진보라고 간주한다. 터키는 실패했고 장차 망할 것이고 중국은 이미 패배의 길에 점점 올랐다. 러시아는 만약 정말 공화제를 채택한다면 향후의 화(禍)를 면할 수 없으며 패하고 약해지는 일이 조만간 닥쳐올 것이다."[321]

(一切學說法理, 今日視為玉律金科, 轉眼已為蘧廬芻狗, 成不可重陳之物. 譬如平等、自由、民權諸主義, 百年以往, 真如第二福音; 乃至於今, 其弊日見, 不變計者, 且有亂亡之禍. 試觀于年來, 英法諸國政府之所為, 可以見矣. 乃昧者不知, 轉師其已棄之法, 以為至寶. 若土耳其、若中國、若俄羅斯, 號皆變法進步. 然而土已敗矣, 且將亡矣；中國則已趨敗軌；俄羅斯若果用共和, 后禍亦將不免, 敗弱特早暮耳.)

3 루소사상에 대한 비판

옌푸가 혁명공화제를 반대하는 주요 원인은 격렬한 폭명혁명이 그가 주장해 온 온화하고 점진적인 개혁이념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생성된 결과이다. 더 깊이 있게 사상적인 측면에서 착수하여 추궁하고자 하면 영국식 고전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옌푸는 "루소"식의 민주사상을 근본적으로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320 「與熊純如書」,『嚴復集』,p.660
321 「與熊純如書」,『嚴復集』,p.667

루소사상의 인기가 한창 많았던 1906 년부터 옌푸는 혁명파의 이론적 초석인 루소사상의『사회계약론』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하고 그 후 "천부인권" "국민자치"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인간평등을 강조하는 민주개념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이런 유토피아적인 민주사회가 좋지만 실행되면 많은 폐단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루소사상에서 야기된 폭력혁명의 주장이 끝없는 빌미를 일으킬 수 있고 혁명수단을 통하여 국민주권을 중심으로 한 정부를 수립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 "루소의『민약』이 유행한 뒤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피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런 주장을 실천에 옮기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를) 다스리는 데에 도움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이런 주장의 본원(本源)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사회에 끼친 이런 해독을 고치기 위해 내가 바로『민약평의』를 기초하였다."[322]
> (自盧梭『民約』風行, 社會被其影響不少, 不惜喋血捐生以從其法, 然實無濟於治, 蓋其本源謬也. 刻擬草『民約平議』一通, 以藥社會之迷信.)

『군기권계론』과『천연론』등의 저작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영국전통의 자유주의 사상의 관점에 따라 국민개인의 지혜를 높이고 개인의 도덕을 향상시킴으로써 개인인격의 최적 발전을 얻을 수 있으면서 민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목적에 있다. 즉 영국 자유주의는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개인능력의 발전을 충분히 살리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루소의『사회계약론』중의 민주주의는 개인적 자유를 단속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있다. 한 중국의 저명한 학자가 옌푸의 사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유"를 강조하는 "영국파 자유주의 정치사상"과 "평등"을 강조하는 "프랑스파 민주주의 정치사상"간의 차이점을 지적해 냈다. 즉 옌푸의 생각에 따라 민주정치가 "자유"의 산물이라고 그는 말하면서 "전자는 입헌파가 주장하는 관점이고 후자는 혁명파가 신봉하는 이념이다. 옌푸와 혁명파가 서학에 대해 소개를 할 때도 대립적인 정치노선을 가지고 있었다. 혁명파가 추앙하는 루소와 천부인권, 민주공화 등의 이론에 대해 옌푸는 내내 반대해 왔다. 이에 대비하여 진화론의 관점을 이용함으로써 천부인권을 비롯한 루소의 주장이 역사규칙을 위반하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평등은 생길 수 없고 평등, 인권, 민주라는 개념은

[322]「與熊純如書」,『嚴復集』,p.614

다 역사가 진화된 산물이라고 옌푸는 생각하였다"[323] 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옌푸는 청나라 말기부터 루소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중화민국 성립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꾸준히 지켰다. 신해혁명 후 혁명으로 인해 야기된 혼란스러운 국면은 옌푸에게 프랑스혁명과 관련된 폭민정치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하게 하였다. 1913 년『당을 말하기』(說黨)라는 글에서 루소와 프랑스혁명의 모델대로 혁명을 일으키고 과거의 모든 안 좋은 것을 뒤집기만 하면 바로 아름다운 정치가 다가올 수 있다는 국민의 천진한 생각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렇게 하면 끝없는 재앙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였다.

> "아아! 18 세기 프랑스 사람이 불러일으킨 혁명은 전국 수백명 열광적인 민중에게 한 자리에 모이게 하며 단 하루의 크나큰 개혁을 통하여 몇 천년에 쌓아온 불평등을 제거하고 내일부터 바로 아름다운 성세를 수립할 수 있도록 믿게 하였다…이것은 논자(論者)가 그의 민이 대의(代議)정체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고 단지 루소의 그릇된 도리와 주장에 빠지기만 하는 것을 이용하여 말한 것이다,..겉으로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는데 실제로는 향후의 60-70 년 국가의 원기를 많이 손상시킬 것이다…프랑스혁명 발발 당시 세계각국의 힘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국의 액운을 면할 수 있었다. 백여 년 후 오늘날의 중국이 오주(五洲)의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경솔하게 내정경장을 하면 앞으로 인과변천의 규칙에 따라 비록 순,우 등 훌륭한 인재가 있더라도 그 앞날을 불가측할 것이다."[324]
>
> (嗟夫！當十八稘法民之起為革命也，飆起霆發，舉國若狂，聚數百之眾于一堂，意若一夕措注，可以劃數千年之載不平，而明旦即成于郅治…乃論者謂其民于代議政體毫無經驗，而但詆于盧梭詖淫虛造之辭…名求國利民福，實則六七十稔之中，板蕩元黃…賴當列強幼穉之秋，而競爭不逮今茲之烈，得輕喪敗，危以復安…今吾國尋法故轍于百余年之後，五洲形勢大異昔時，而內政更張者，無慮皆無民所不習，而姑自贊曰能，則繼今以往，其因果遞嬗之所演成，雖有舜，禹之圣，莫能豫推而前畫也.)

옌푸가 루소사상을 비판한 것에는 복잡한 원인이 있다. 예를 들어보면 진화론의 역사관, 스펜서 등의 영국 경험주의자의 귀납법에 대한 중요시, 몽테스키외의 역사를 통하여 정치를 논의하는 습관, 전통 성리학에 대한 비판, 실학을 중요시하는 태도, 옌푸 자신 성격의

323 李澤厚著,『中國近代思想史論』,pp.260,281
324「說黨」,『嚴復集』,p.302

보수주의 등의 여러 요인이 있다.[325]『민약평의』의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옌푸가 생각한 루소의 정치사상을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326]

하나는 천부인권론이다. 즉 민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다른 하나는 사회계약론이다. 천부의 권리가 똑같고 서로가 침범할 수 없다. 공공의 재산에 대해 개인은 횡령할 수 없다. 민약은 정치의 기초이며 국민이 국가주권을 비롯한 지상한 권력을 가진다. 민약을 거르고 형성된 정권은 불법적이고 민권을 바탕으로 두고 형성된 국가만 합법적이다. 대다수를 중심으로 한 국민자치는 국가전체의 발전에 유리하고 합리적이다. 힘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있으면 정당한 도덕과 행위를 통하여 힘으로 빼앗아도 된다.

1) 천부인권론에 대한 반대

사실 옌푸의 초기사상을 살펴 보면 원래 루소의 천부인권론에 대해 찬성한 태도를 표하였다. 1895 년의『辟韓』(한유 비판)의 논문 중에서 "민중의 자유는 하늘이 주는 것이다"[327]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또 같은 해『論世變之極』(세계 변화의 빠름을 논함)의 논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 "서양인이 말하기는 민이 태고난 자질이 있고 그 때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자유가 있으면 각국도 자유를 얻는다. 그런데 반드시 서로 간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남의 자유를 침해하면 천리에 어긋나는 짓이고 인도(人道)를 위반하는 짓이다."[328]
>
> (彼西人之言曰：唯天生民,各具賦畀, 得自由者乃為全受. 故人人各得自由, 國國各得自由, 第務令毋相侵損而已. 侵人自由者, 斯為逆天理, 賊人道.)

이렇게 보면 적어도 1903 년『군기권계론』출간 전에 루소의 천부인권론에 동의한 듯하다. 옌푸가 천부인권론을 비판하기 시작한 시간은 대략 1902 년쯤이었다. 그 해 루소의 천부인권 사상을 반박하는 헉슬리의 글을 봤기 때문에 비판적인 태도로 변하게 되었다.[329] 헉슬리와

325『自由的所以然-嚴複對約翰彌爾自由思想的認識與批判』,p.278

326「民約平議」,『嚴復集』,p.335;"民生而自繇者也, 于其群為平等而皆善, 處於自然, 則常如此. 天賦之權利皆同, 無一焉有侵奪其餘之權利. 是故公養之物, 莫之能私. 群之權利, 以公約為之基. 凡物之以力而有者, 義得以力而奪之." 원문에서 옌푸가 요약하는 것과 루소의 주장에 비해 "주권이 국민에 있다"라는 내용을 뺐다.

327「辟韓」,『嚴復集』, p.35; "民之自由,天之所畀也."

328「論世變之極」,『嚴復集』, p.3

329『自由的所以然-嚴複對約翰彌爾自由思想的認識與批判』,p.218

밀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바로 자유롭고 평등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보면 신생아에게 자유라는 것이 없고 좀 자라나면 사람과 사람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경쟁도 심해진다. 성년 후 지혜롭거나 어리석거나 부지런하거나 게으르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등 다양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평등한 일은 전혀 없다. 옌푸는 이런 관점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330] 『군기권계론』과 『법의』에서 다천부인권론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다.

> "루소의 민약은 첫머리에 이런 요지를 분명히 설명했다. 즉 국민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은 후세의 많은 성현들에게 비난을 당하였다.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 죽거나 살거나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갓난아이에게 자유가 있다고 결코 경솔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331]
> (盧梭民約, 其開宗明義, 謂斯民生而自繇, 此語大為后賢所呵, 亦謂初生小兒, 法同禽獸, 生死飢飽, 權非己操, 斷斷乎不得以自繇論也.)

> "예전 루소의 『민약론』은 그의 첫마디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바로 자유가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후세의 성현에게 비판을 받았다. 갓난아이가 사상이 없고 기력도 없고 말하지 못하고 또 걸을 수 없으며 그의 생사가 벌레와 같이 다 외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머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헉슬리는 말하였다. 만물이 자유롭지 않다는 이유로 반박하면 적당하다."[332]
> (往者盧梭『民約論』,其開卷第一語,即云斯民生而自由,此義大為後賢所抨擊.赫胥黎氏謂初生之孩,非母不活,無思想,無氣力,口不能言,足不能行,其生理之微,不殊蟲豸,苦樂死生,悉由外力,萬物之至不自由者也,其駁之當矣!)

자유와 마찬가지로 평등에 있어 루소가 사람마다 평등하다는 주장에 옌푸는 반대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옌푸에게 자유, 평등 등 일련의 인권에 관련된 정치개념은 다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인류 발전 과정 중 법으로 규정된 진화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루소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심지어 중국 고대 맹자의 "사물간 (존재하는) 차이가 바로 사물이 존재하는 도리이다"라는

---

330 옌푸의 관점에 따라 갓 태어날 때 자유가 없는데 그 후 점차 일부분의 자유가 생기면서 개인적 선호와 욕망으로 인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화수준의 향상에 의해 인류의 속박도 줄어들고 자유가 많아진다.
「群己權界論.譯凡例」,pp.2-5

331 「群己權界論.譯凡例」,p.2

332 「法意按語」,『嚴復集』,p.986

말을 인용하여 “사람간 불평등”의 합리성을 특히 강조하였다.[333]

2) 사회계약론에 대한 반대

전제제도가 반드시 불법적이고 민주제만 합법적이라는 주장에 옌푸는 동의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앞에서 전제제도에 대한 옌푸의 인식과 관련된 내용을 논술한 것처럼 개명전제가 일정한 합법성을 가진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옌푸의 생각에 따르면 정치제도는 자유와 같이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대적, 지리적 조건에 따라 점차적으로 정해진 것이다. 그는 루소가 사회계약을 정치운영의 기초로 간주한 것에 반대하면서 이것이 역사와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보면 젠크스의『사회통전』에 따르면 도시국가(City State)의 기원은 민약을 통하여 성립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중심으로 한 종법사회에서 나왔다고 옌푸는 생각하였다.

> “18 세기의 정치가들은 방역국가(country state)는 인공(人功)으로 인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자주 말하지만 도시국가는 땅이 너무 작기 때문에 민약으로 이뤄진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루소 등 사람이 제기한 여러 작은 주권국가가 따로따로 다스린다는 설이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에 의거하여 고찰하면 그렇지 않다. 도시국가의 성립이 원래 가족이나 교회의 점진적인 변천에서 발전되어 온 결과라는 증거는 많다. 예를 들어보면 그리스의 아테네, 이탈리아의 로마는 영국과 독일 제방과 같이 처음에는 신화시대와 종법시대가 다 있었다. 그러므로 도시국가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의 성립이 바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설은 잘못된 이야기이다.”[334]
>
> (十八世紀之政治家，意輒謂邦域國家，即非人功所締造，至市府國家，以幹局之小，當系用民約所公立者．此盧梭等所以多主小國分治之說也．顧考諸歷史之事實，則又不然．市府之成，其本於家族教會之漸變，歷歷有據．如希臘之雅典，義大利之羅馬，其始之有神話時代，宗法時代，無異英倫，德意志諸邦．然則謂市府國以其狹小，其成立本于人為者，其說誤矣.)

옌푸는 젠크스의『정치학사』를 번역하면서 인간의 사회가 토템에서 시작하여 종법사회를 거쳐, 근대국가(State)에 들어가는 세 가지 단계로 발전해 간다고 인식했다. 젠크스는 국가사회가 다양한 사회형태에서 이루어진 마지막의 형태라고 설명했다. 옌푸는 이러한 과정을 진화의 원리와 결부시켜서 수용했다. 사회유기체론자의 관점에

333「民約平議」,『嚴復集』,p.340; “物之不齊，物之情也;物之不齊，人尤甚焉.”
334「政治講義」,『嚴復集』,p.1272

따르면 국가나 사회는 생물과 마찬가지로 유기체(organ)이며,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성장하고 소멸된다는 것이었다. 국가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성장해 간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제도와 사회의 발전이 국민의 계약을 기초로 하여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해 온 것이다.

민권의 확대를 내내 주장한 옌푸는 루소의 주권재민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정치인이 국민의 공복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자치에 대해 "정치의 최고경지가 자치에 있다"[335] 라고 말하지만 대다수를 통하여 이뤄진 국민자치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졌다. 옌푸의 생각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국가의 일을 결정하는 국민자치가 국민이 국가를 다스리는 주인임을 반드시 뜻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또 부녀자와 어린이가 국민인지 아닌지 등의 문제를 아직 명확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자치라고 하는데 실제로 절반 이상의 사람이 여전히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336] 그러면 이것은 진정한 자치라고 말할 수 없다.[337] 실제적으로 자치정부가 모든 법안에 대해 모든 국민의 찬성과 허가를 받기가 (人人贊成, 人人許可) 너무 어려워서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대의제와 종중의 원칙이 필요한 차선책으로 될 수밖에 없다. 또 옌푸의 관점에 따르면 대다수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자치는 반드시 국민전체의 복지에 맞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결정이 꼭 옳은 일임을 누구나 보장할 수 없고 대다수의 의견을 위반한 소수의 의견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옌푸는 생각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제 통치권의 유래에 관해 원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방식으로 진행해 오기 때문에 이런 시각에서 보면 전제나 일인통치(monarchy)도 반드시 다수통치(republic or commonwealth)보다 나쁜 것이 아니라고 옌푸는 주장하기도 하였다.

> "이상하게도 세속적 사람들의 다스림을 논의할 때 반드시 다수의 통치를 제기해야 공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일인통치라면 군주는 아래의 국민을

335 「政治講義」,『嚴復集』,p.1300; "是故政界之境诣, 至于自治而极."

336 「政治講義」,『嚴復集』,pp.1300-1301; "則今之各國推舉之權, 尙非普及, 而國中婦孺, 豈非國民？奈何置之？然則名為自治, 而民之大半尚有受治于仁者."

337 「政治講義」,『嚴復集』,p.1300; "吾輩所稱為政界極詣, 乃指社會之中, 人人各得分愿而言, 若有一人, 其好惡與所施之政令背馳, 則自治之言非實."
옌푸가 가리키는 자치라는 개념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사회 중의 모든 사람이 강요없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모든 사람이 찬성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야 진행한다.

학대하는 것을 꼭 즐거워한다고 설이 있다. 이러한 주장의 잘못은 더 이상 논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통치권을 일단 장악하면 공익의 실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전제가 본래 다 그렇지는 않다."[338]

(頗怪世俗論治, 必謂眾治, 乃有公益 Commonwealth 可言；一若獨治之君, 則必以摧斫下民為快者, 此其說之誤, 不待論而可知. 夫謂治權在手, 不以公益為心, 而專以莫予違為快者, 專制本不盡然.)

다른 한편으로는 옌푸의 관점에 의하면 루소의『사회계약론』이 "다수의 횡포"를 불러일으키기 쉬웠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다수의 횡포는 개인적인 독재보다 피해가 더 클 수 있다.[339] 그는 사례를 통하여 다수의 통치 및 종중 원칙에 따라 생긴 불합리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였다.

"의원(議員)의 지식이 과연 똑같은가? 만약 그러지 않으면 대다수의 사람이 결정한 결과가 옳고 소수가 결정한 결과가 나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만약 사리의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대다수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대다수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자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소수에게 있어서는 원하는 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치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대다수라는 상황도 다를 수 있다. 십중팔구라는 경우라면 괜찮지만 때로는 대다수가 소수보다 그냥 조금 많기 때문에 이런 소수를 강요하면 조금 무리가 된다. 예를 들어보면 3 천만의 사람 중에 2 천 9 백 9 십만 다 일치하면 이런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 영국의회의 7 백 명 중 3 백 70 명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머지 3 백 30 명은 그렇게 생각하면 대다수에 따르더라도 옳고 그름을 여전히 쉽게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종중(從衆)은 대다수를 따를 뿐이고 (사물의) 공리와 관련이 없다."[340]

(議員之知識, 果相等乎？假其不然, 則安知多數之果是, 少數之必非？若言不以是非, 而從多數者之慾, 然則多數者, 以行其所慾而自治, 少數者以違其所慾而非自治, 又以明矣.且即以比較言, 從多數矣, 使十得八九, 猶有說也, 乃有時而所多者至微, 以此強人, 則又何說？譬如三十兆之中, 有二十九兆九十萬人同者, 以此謂之公好公惡可也.而英議院七百員, 其中三百七十人然, 而三百三十人否者, 烏得云眾乎？是故知從眾而用多數之說, 于公理是非, 本無可言.)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보면 민주제 중의 종중, 대의제는 자치라는

338「政治講義」,『嚴復集』,p.1310; 『정치학이란 무엇인가』,p.181

339 太半之豪暴(Tyranny of the majority),『群己權界論』서론, p.4

340「政治講義」,『嚴復集』,p.1301

이상적 상황과 여전히 차이가 있다고 옌푸가 생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자치는 실제로 다수통치(majority rule)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설령 한 민주제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국가주권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개인이 장악할 수 있는 권력이 미미하지만 중요하다. 물론 다수통치가 논쟁을 해결할 때 집행하기 쉽고 "대다수"가 많을수록 진정한 바른 도리와 가깝다는 장점도 있다.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옌푸는 루소가 제기한 "일반의지"(general will)의 정당성에 질의하였다는 것이다. 즉 "대다수에 따르는 것이 꼭 합리적이지 아닐 수 있고 민중의 대부분이 전체적인 복지를 꼭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으며 심지어 낮은 국민수준으로 인해 다수의 횡포를 초래할 수 있다.

> "다수가 따르는 것은 곧 이치에 맞고 우승한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또한 국민의 다수가 곧 전체의 공(公)과 같다고도 말하지 말라. 이러한 주장은 곧장 사설이 될 뿐이다."[341]
> (慎勿謂多數所從, 斯為合理優勝; 亦勿謂民之多數, 無異全體之公. 苟此為說, 立成謬論.)

그러므로 주권재민의 민주제도를 수립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옌푸의 생각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프랑스혁명은 루소사상 중 폭력적인 사상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루소의『사회계약론』이 국민이 최고라는 혁명의 풍조를 크게 일어나게 해 주었다고 옌푸는 생각하였다.[342] 개인교육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국민수준의 향상을 중요시한 옌푸는 폭민으로 사회혼란을 가져올 폭력혁명에 대해 내내 반대해 왔다. 옌푸의 생각에 따르면 혁명은 쌓아온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혁명의 방식을 통하여 불법적인 정부를 뒤집는 것은 실제적인 효용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혁명의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혁명의 기운이 성숙되는 데 백여 년이 필요하고, 사후의 상처로 나라가 고통에 빠진 것이 또 백여 년이었고 그 뒤에야 문명의 결실을 맺게 될 수 있다.[343] 혁명이 아름다운 상상과 같지 않고, 쉽게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한 옌푸에게 루소의『사회계약론』이 다만 혼란의 싹을 조장할 뿐이라고 간주하였다.[344]

---

341 위와 같은 책, p.1301

342「政治講義」,『嚴復集』,p.1306; "盧梭『民約』,推勘最詳.自其說興, 革命風潮, 因之大起, 此所謂國民無上之義是已."

343「主客平議」,『嚴復集』,p.120;"考其國史, 其醞釀之也皆百餘年, 而事後之創夷, 國之唸呻吟者又百余歲, 夫而后文明之終福獲焉, 則其難有如此者."

344「主客平議」,『嚴復集』,p.120; "盧梭氏之『民約』,洛克氏之『政書』, 駁其說以為徒長亂階者, 豈止一二人哉!"

3) 외주 (外籀)[345]적 방법론에 대한 반대

정치분야에서 옌푸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실리는 "정치학이 없는 역사는 열매가 없고 역사가 없는 정치학은 뿌리가 없다" 라고 하면서 정치학의 역사화를 강조하였다. 정치학 연구는 역사적 경험과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는 역사로서의 정치학을 제창한 것이다.[346] 옌푸는 실리가 제시한 역사로서의 정치학을 수용하면서『정치강의』를 통하여 중국의 젊은 학생들에게 과학성을 갖는 정치학의 근본 원리를 충실히 학습해야 한다고 역설한 적이 있다. 정치학이 연구방법론에 입각하여 과학화되어야 한다고 옌푸는 생각하였다. 옌푸는 정치강의에서 정치학이라는 과학에 대해 방법론을 제시한 적이 있다. 즉 "진화론적 방법, 역사적 방법, 비교적 방법, 귀납적 방법"에 의거하여 정치학을 연구해야 한다고 그도 주장하였다.[347]

그러므로 루소의 정치주장을 바라볼 때도 이러한 옌푸의 인식론을 이해하는 바탕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루소에 대한 비판은 옌푸사상의 한 중요한 특징과 관련이 있다. 즉 진화론적 역사관이다. 역사가 일원적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험적, 연역적(priori) 방법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두는 귀납적인(posteriori)방법이다.

> "하늘이 사람을 낳으면서 신령한 본성을 주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미리 지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내주(귀납)에서 시작해야 한다…내주는 반드시 사실에 기초하고 사실은 반드시 경험을 통해야 파악된다."[348]
> (蓋天生人, 與以靈性, 本無與生俱來預具之知能. 能有所知, 其最初必由內籀…但內籀必資事實, 而事實必由閱歷.)

다시 말하자면 학자는 반드시 실험이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반증하고 귀납적인 방법을 통하여 규칙을 찾아내야 한다고 옌푸는

---

345 귀납법(induction)과 연역법(deduction)을 각각 "內籀之術", "外籀之術"로 번역한다. 「天演論」,『嚴復集』,pp.1319-1320; "及觀西人名學, 則見其于格物致知之事, 有內籀之術焉, 有外籀之術焉. 內籀云者, 查其曲而知其全者也, 執其微以會其通也. 外籀云者, 據公理以斷眾事也, 設定數以逆未然也…遷所謂本隱之顯者, 外籀也 ; 所謂推見至隱者, 內籀也. 其言若詔之矣. 二者即物窮理之最要涂術也."

346『정치학이란 무엇인가』,p.21

347「政治講義」,『嚴復集』,p.1251;"吾人考求此學, 所用者是天演術, 是歷史術, 是比較術, 是內籀術."

348「政治講義」,『嚴復集』,p.1243-1244;『정치학이란 무엇인가』,pp.39-40

생각하였다.[349] 그러나 국가는 세상에서 너무나 복잡한 대상이며 화복이 미치는 바가 크고도 넓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 없고 오직 객관적인 관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350] 루소사상을 비판한 주요원인은 루소가 먼저 추상적인 가상을 수립하고 그 후 가상에서 정치이론을 연역해 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연역해 낸 주장은 유토피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옌푸는 생각하였다.

> "루소의 설이 사람을 오도하는 원인은 정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상상대로 날조하며 인군역사의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맹자가 말하기는 물건이 가지런하지 않은 것은 바로 물건의 실정이다. 물건조차 그러는데 하물며 인간이 오죽하랴?"[351]
> (盧梭之說, 其所以誤人者, 以其動于感情, 懸意虛造, 而不詳諸人群歷史之事實. 孟子曰: 物之不齊, 物之情也. 物誠有之, 人尤甚焉.)

뿐만 아니라 옌푸는 유럽 18 세기 전의 연역적이고 추측한 성격을 가진 방법론과 현재의 사실에 근거하는 귀납적인 방법론을 비교함으로써 현재 방법론의 적실성과 과학성을 강조하였다.

> "서구 사람들이 말하기는 역사를 읽고 정치를 논의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지 못하며 정치를 논의하고 역사를 찾지 않으면 근원을 찾을 수 없다. 18 세기 전에는 역사를 탐구하지 않고 정치만 논의하는 사람이 이미 나타났었다. 그 처음은 그리스 시대의 플라톤(Plato)이고 마지막은 루소이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다들 알다시피 정치를 말할 때 심학(心學)[352]이나 자연공리(公理)[353]로부터 도출해 낸 것이었다. 따라서 역사를 통하여 정치를 말하는 것은 19 세기부터 일어난 방법론적 전환이다. 몽테스키외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354]
> (西人言讀史不歸政治, 是謂無果；言治不求歷史, 是謂無根. 諸公無謂此是陳言, 須知十八世紀以前, 已有言治不由歷史者, 希臘時如柏拉圖, 最後如盧梭. 此二人皆諸公所習知, 其言治皆本心學, 或由自然公理, 推引而成. 是

---

349 「政治講義」,『嚴復集』,p.1250; "政治與歷史關係密切,所有公例,必從閱歷而來, 方無流弊."

350 「政治講義」,『嚴復集』,p.1249;"國家者, 天地之大物也. 而禍福所及者重以眾, 故實驗不行, 而惟資于觀察."

351 「民約平議」,『嚴復集』,p.337

352 심학: 경험적 사실에 의거하지 않은 관념론적 지식 체계를 말한다.

353 자연공리: 루소가 상정한 "자연상태" 등과 같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자연법적 공리를 말한다.

354 「政治講義」,『嚴復集』,p.1243;
『정치학이란 무엇인가』,p.38

故本歷史言治，乃十九世紀反正之術，始於孟德斯鳩，至於今幾無人不如此矣.)

"대개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 꼭 여러 역사적 사실을 참고하여 논의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에서 일반적 도리를 추출할 때 꼭 내주(內籀)귀납적인 방법을 써야 그 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만약 벽을 향해 터무니없이 날조하고 예전의 "가령"이라는 방법(서구사람들이 a priori 라고 부름)으로 원칙을 삼아 연역하면 항상 피해가 생겼다. 루소가 가리키는 이상적인 상태, 사람마다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은 역사 중에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것에 그 자신까지도 인정하였다, 한 사회가 전에는 고증할 수 없고 후에는 예측할 수 없어서 어떻게 화서(華胥, 허구한 이상국), 유토피아 등 가상국에서 나온 정치이론을 이용하여 천하를 해칠 수 있겠느냐?"[355]
(大抵治權之施，見諸事實，故明者著論，必以歷史之所發見者為之本基. 其間抽取公例，必用內籀歸納之術，而後可存. 若夫向壁虛造，用前有假如之術(西人名學謂之 a priori)，立為原則，而演繹之，及其終事，往往生害. 盧梭所謂自然之境，所謂民居之而常自由常平等者，以自言其為歷史中之所無矣. 夫指一社會，考諸前而無有，求諸後而不能，則安用此華胥、烏托邦之政論，而毒天下乎!)

중국인을 더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 옌푸는 루소사상과 중국 전통적인 육왕심학(陸王心學) [356] 을 제기하여 논의하면서 이 양자가 본질적으로 똑같은 성격(유심주의 선험론)을 지닌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즉 루소사상과 심학은 다 실제적인 사실로 반증할 수 없는 주장이다. 1895 년 그가 발표하던『救亡決論』(죽음에서 살아남기 위한 결론)및 향후 발표하던『穆勒名學』에서 모두 심학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육왕씨의 설은 격치(格致, 자연과학)를 무용지물이라고 간주하거나 사물은 격치에 의존할 것 없거나 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큰 잘못이다. 쉽게 말하면 육왕의 학설은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뿐이다. 집을 떠나지 않고 바로 천하를 다 알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천하의 일이 자신이 생각하는 일과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는다."[357]
(惟是申陸王二氏之說，謂格致無益事功，抑事功不俟格致，大則不可. 夫陸王

355「民約平議」,『嚴復集』,p.337
356 陸王心學: 송나라의 육구연(陸九淵)와 명나라의 왕양명(王陽明)이 주장한 유학 중의 한 분류이다. 육왕심학은 주희(朱熹)가 주장한 성리학과 같이 송명리학에 속하며 마음이 바로 우주이고 천리(天理), 인리(人理), 물리(物理) 다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주장한다.
357「救亡決論,『嚴復集』,p.44

之學，質而言之，則直師心自用而已．自以為不出戶可以知天下，而天下事與其所謂知者，果相合否？不徑庭否？不復問也.)

"서양이야말로 말하는 아프리오리(priori)는 역사적 사실을 참고하지 않은 채 원인을 가지고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의 설을 통하여 다른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은 다 이것에 속한다. 만약 중학을 예로 삼아 말하면 고서 중의 훈계가 십중팔구 그렇다. 송나라 이후의 육왕의 심성지설(心成之說)은 특히 많다."[358]
(西語阿菩黎訶黎(即 a priori)，凡不察事實，執因言果，先以一說以概餘論者，皆名此種．若以中學言之，則古書訓，十九皆然．而宋代以後，陸王二氏心成之說尤多.)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옌푸는 루소사상의 주요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그의 주장을 지지하는 방법론까지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옌푸가 공화혁명을 지탱하는 이론초석인 사회계약론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했다고 볼 수 있다. 사람마다 자유롭고 평등한 이상적인 세계를 지향한 루소에게 "가가호호 자유롭고 사람마다 평등한 것이 예전에 있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루소의『민약론』은 어떤 시기에 대해 약정을 정하는지 잘 모른다"[359] 라고 옌푸는 탄식하였다. 여기에 루소사상에 대한 비판을 분석함으로써 옌푸의 주장 중에 일정한 합리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정열적으로 민주자유를 추구하는 과정 중에 이성적인 개혁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반성거리는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

"지극히 아름다운 사물만 추구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도출된 결론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정치를 망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를 말하다가 민약을 주장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분류에 속한다."[360]
(顧求至美之物，而卒至於無所得，或所得者妄，而生心害政者，其故無他，坐用心燥耳…顧言政治而乃主民約，皆此類也.)

옌푸의 사상경향을 다시 뒤돌아보면 청나라 말기에나 민국초기에나 그는 일관된 사상적 맥락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다. 청나라 멸망 전과

358『穆勒名學.部乙』,p.57
359「民約平議」,『嚴復集』,p.340;"家得自由，人皆平等，則尤為往古之所未嘗，且恐為後來之所無有…盧梭之所謂民約者，吾不知其約于何世也."
360「政治講義」,『嚴復集』,p.1249

후에 그가 계속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고 혁명공화제를 반대한 것은 사상적인 원인과 밀접하다. 시기가 아직 적절하지 않고 격렬한 혁명보다 진화론을 기초로 삼은 점진적인 개혁과 국민수준의 향상이 줄곧 제일 근본적이고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그는 시종일관 확신하였다. 시대적 배경은 많이 변했지만 국민수준은 내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주장도 여전했다. 루소사상에 대해 옌푸는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식방법론의 차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아가 루소를 끌어들여 중국의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에도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청나라 멸망 전 혁명의 필요성이나 청나라 멸망 후 혁명의 정당성에 대해서 내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청나라 멸망 후 폭민정치에 대한 우려, 강자정치(개명전제)를 이행단계로 삼는 것을 지지하는 행동,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은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낮은 국민수준, 독실한 진화론과 고전자유주의 관념 등의 일련의 요인들이 같이 작용하여 서로 절충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VI. 결론

1901 년-1911 년의 청말신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면 초기적인 형태의 사법체제만 형성한 것을 빼고 다른 구체적인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청말의 입헌운동은 중국의 정치사에 대해 특수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표면적인 의미에서 보면 입헌운동은 의원, 내각, 법원 등의 수립을 통하여 국가의 기존 정치제도를 바꾸려고 한 것은 그의 목표이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전통적인 정치형태의 기본정신을 바꾸고 근대 서구의 민주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오래된 전제정치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전제정체와 민주정체는 다른 생활방식이 반영된 결과이고 그 자체도 완전히 다른 문화배경도 내포하고 있다. 사상문화의 변화는 항상 두 가지의 문화를 비교함으로써 그 중 한 가지 열세를 나타내야 진행하는 장기적이고 느린 과정이다. 중국문화는 유구한 역사가 있고 각종의 법령, 규범, 제도는 오랜 시간에 주변 나라가 적극적으로 흉내내는 본보기가 되어 왔다. 그래서 중국인은 그 자체의 문화에 대해 크게 인정하면서 높은 우월감을 지켜 왔다. 그러나 아편전쟁부터 외세의 침입이 끊임없고 국토를 할양하고 거액 배상금도 냈기 때문에 국가는 점점 쇠미해졌다. 이런 사실에 직면한 그 때의 중국사람들이 원래 내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자신감에 대해 의심이 들고 점차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국가를 살리고 변화적인 국제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지식인들이 변통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효과를 별로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그 후 서구에 대한 인식이 심화됨에 따라 양무운동부터, 변법유신을 거쳐 서구가 부강하는 근본인 정치제도를 모방하려는 입헌운동까지 잇따라 발생하였다. 3 천여년 동안 본 적이 없는 비상국면을 열었다[361]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크나큰 변화에 대비한 과정을 살펴보면 청말의 입헌운동은 그 때 많은 사람들의 정치적인 지각을 뜻할 수 있다. 즉 수천년 동안의 전제정치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일으켰고 다양한 서구사상도 중국인의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상경지로 끌려갔다. 특히 그때 지식인들의 각성은 다른 보통 국민들을 정치에 참여하게 하고 사회를 계몽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다.

청말신정 중의 입헌운동은 1905 년의 오대신 출국조사부터 예비입헌 선포(1906), 헌법대강과 9 년 예비입헌기간 선포(1908),

[361] 李鴻章,『五月復議製造輪船未可裁撤折』,同治十一年（1873）“此三千余年一大變局也.”

예비입헌기간 5 년으로 단축 선포(1910), 헌법 19 신조(信條) 선포(1911.11), 등 중요한 과정을 거치고 청나라 멸망(1912.2)까지 진행되었다. 9 년 예비입헌시간을 비롯한 일련의 성의가 없어 보이는 행동에 대해 청나라 정부가 다만 외부의 여론의 압력에 대비하고 시간을 가능한 끌기 위해 대강 마무리지은 것뿐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비판하였다. 이런 주장은 전제적 집권자가 자신의 권력을 영위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물론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표면적인 정치적 시각에서 벗어나 내포적인 시각에서 다시 보면 전제정치부터 민주정치까지 발전한 과정은 사상문화와 생활방식이 변화하고 조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전제사회에서 민주사회까지 바뀌어질 때 정치제도상 순식간에 바꾸기는 가능하지만 사상문화를 비롯한 심층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점진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과정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정치제도의 변화와 국민들의 사상문화의 변화가 이 양자간에 서로 잘 맞추어 공통적으로 발전시키느냐는 정치가가 반드시 자세히 사색하고 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9 년의 예비입헌 동안에 진행할 호적조사, 재정관리, 교육보급, 법정설립, 지방자치 등 계획은 다 입헌제국가를 수립하는 기초적 작업이다. 청나라의 멸망은 예비입헌시간의 길고 짧음에 있지 않고 변화를 급하게 간절히 바라는 민심을 홀대했음에 있다. 하루빨리 입헌제 실시를 주장하는 민의를 무시하고 내내 얼버무리면서 민심을 크게 잃었던 청나라 정부가 신해혁명 발발 후 설령 실권이 없는 군주만 보유하려고 하더라도 결국 하지 못하고 말았다.

전제정치나 민주정치나 모두 다 민심이 있어야 정당성을 수립할 수 있는 것처럼 정치적 주장도 일반 민중들에게 수용되거나 못하거나 하는 것은 민심의 향배에 달려 있다. 역사의 기로에 서 있었던 당시의 중국은 사회변혁을 통하여 입헌군주제를 수립하느냐 아니면 폭력혁명을 통하여 민주공화제를 수립하느냐에 대해 양자택일에 직면했을 때 많은 논쟁이 벌어졌다. 주지하듯이 끝내 중국은 민주공화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지금 뒤돌아보면 역사에 포기된 입헌군주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때 실현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만약 그 때 청나라 정부가 민의에 잘 순응하고 옌푸를 비롯한 입헌파의 주장대로 입헌제를 성실히 관철시켰더라면 아마 중국은 입헌군주제의 길에 들어갔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본인은 중국이 입헌군주제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한 정치사상의 실현 여부는 이론적인 합리성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환경 및 민중의 기대에도 잘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다. 옌푸는 서구학자의 이론에 의거하여 신구(新舊)제도의 절충과 융통 및 정치제도 변화의 점진성을 강조하고

폭력혁명을 반대했다. 또한 사회혼란과 개혁의 코스트를 최대한 줄이도록 청나라 정부에게 능동적으로 입헌제 실시를 요구하고 주장한 그의 입헌군주 구국론은 훌륭한 견해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이론적으로도 실현하는 가능성도 존재했지만 결국 실패한 원인은 입헌군주제에 이미 실망감을 가진 대부분 사회민중의 현실적인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만약 청나라 정부가 제때에 역사발전의 흐름에 순응하여 중국에서 입헌군주제를 수립하였더라면 중국에 있어 행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역사도 청나라 정부에게 이런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옌푸는 이런 우연성을 필연성이라고 착각할 것 같고 심지어 당시 량치차오가 청나라에 대한 공격이 너무했기 때문에 청나라를 망쳤다고 비판하였다.

> "만약 그대가 글을 쓰면서 욕을 퍼부었을 때 조금이나마 너그러움과 성실함을 남기고 날카롭지 않았으면 천하가 그렇게 격분하지 않았을 것이고 백수나 어리석은 사람을 비롯한 보통 사람도 (정부의)말을 잘 듣고 정치개벽을 실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성(一姓)의 지속을 보장할 수 있으면서 한족을 내각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헌군주제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어찌 일찍이 불가능했겠는가![362]
>
> (使任公為文痛詈之時，稍存忠厚，少斂筆鋒，不至天下憤興，流氓童騃，盡可奉辭與之為難，則留一姓之傳，以內閣責任漢人，為立憲君主之政府，何嘗不可做到!)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비판은 지나친다.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청나라 정부가 약속했던 "예비입헌"(豫備立憲)을 실제로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준 기회를 놓쳤고 결국 면할 수 없는 혁명을 야기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옌푸가 주장하는 입헌군주 구국론은 의존할 만한 대상을 잃어버리면서 역사에 의해 포기되어버린 선택이 되고 말았다.

중국국민이 지혜롭지 않고(民智未開) 낮은 국민수준은 근대중국의 낙후와 깊게 관련됐다고 옌푸는 내내 생각하였다. 이렇기 때문에 그는 평생토록 교육구국을 통한 점진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근본적으로 중국이 병약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랐다. 장병린의 관점처럼 혁명파의 혁명으로 국민을 더 지혜롭게 해 주는 낙관적인 방식에 비해 혁명이 국민을 지혜롭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362 「與熊純如書」,『嚴復集』,p.663

것 같고 국민수준이 급진적인 혁명을 통하여 단기간에 향상될 수 없을 것이라고 옌푸는 생각하였다. 노련하면서도 신중한 특징은 그의 정치사상 중의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옌푸가 제기한 "국민수준"은 논의될 만한 점이 많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는 어리석고 병약한 국민이 전제정치의 사회기초라고 했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는 국민의 어리석음과 약함이 전제정치가 가져온 나쁜 결과라고 했다. 이 두가지의 인과관계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리적인 딜레마와 비슷하다. 옌푸도 이런 모순적인 함정에 빠졌다. 무술변법 때 민중의 도덕수준이 수 천년 전제정치에 장기간에 눌려서 만든 결과임을 옌푸는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 후 옌푸는 국민수준을 민주헌정이 수립되는 전제라고 고수하게 되었고 또 중국국민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급하게 군주를 폐위시키면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므로 헌정을 이루려는 절차 및 논리 면에 서로 모순적인 지경에 처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헌정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헌정을 이루지 못하면 전제정치 하의 민중은 영원히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제정치적 통치자는 노예화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전제통치에 길든 노예로 교육시키고 자신의 다스림을 위협하는 국민으로 절대로 양성할 리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면 마치 전제정치라는 미로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영원히 찾아낼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영향을 받은 입헌파의 캉유웨이와 량치차오는 중국국민이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혁명을 하지 말아야 하고 입헌만 채택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또 혁명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손문도 여러 번의 좌절을 겪은 뒤 국민수준을 둘러싸고 반성하기 시작하였다. 손문은『건국대강』(建國大綱)중에 군정-훈정-헌정이라는 헌정 및 건국 절차를 제기하였다. 이런 주장은 그 후 장제스(蔣介石)를 비롯한 국민당에게 이용되고 "당을 통하여 국가를 다스린다"(以黨治國)라는 일당 독재정치를 추진할 수 있는 핑계로 되고 말았다. 국민수준이 낮든지 높든지 민주정치를 진행하는 것과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고 본다. 민주정치의 실시에 따라 국민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면서 국민수준의 향상에 따라 민주정치의 질도 계속 개선될 수 있는 서로 추진하는 관계라고 간주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민수준은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높은 국민수준이라고 간주하는지 또 어떤 수준에 처하면 낮은 국민수준이라고 간주하는지에 대해 사람마다 각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누구도 제공해 줄 수 없을 것이다.

근대중국사회가 혼란스럽고 불안할 때에 옌푸는 항상 난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도덕, 지혜, 체력 등의 각면이 다 훌륭한 "정치강자"를 바랐다. 이런 "정치강자"에 대한 기대와 국민수준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가 분명하다. 당시에 완벽한 "미인"[363]을 찾을 수 없는 옌푸는 위안스카이라는 차선적 "미인"에게 너무 의존하면서 혁명당에 대해 적지 않은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 심지어 국민당을 비롯한 참중양원의 의원들을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364]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고 만약 위안스카이가 그 때 미친 듯이 국회와 임시약법(臨時約法)을 파괴시키지 않았으면 중화민국 초기의 정치형세 옌푸의 상상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한걸음 물러서 말하면 중화민국 초기의 혼란스러운 현상은 나쁘지만 전제군주제의 정치적 분위기보다 훨씬 더 개방하고 진보성을 많이 가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적어도 정치인끼리 서로 견제함으로써 누구도 명목장담하게 다시 독재군주가 되려는 생각을 갖지 못하면서 형식적으로도 의회제도를 보유하였다. 어떤 혁명자가 신해혁명 후 "많은 희생된 생명과 선혈로 그냥 가짜의 공화만 받았다"[365] 라고 감탄하였다. 새롭게 성립된 중화민국은 몇 천년 지속해 온 군주를 없애는 것을 제외하고 거의 아무런 실질적 진보가 없는 "간판"뿐이었다. 신해혁명 발발 후 신구(新舊)관료와 군벌정객이 서로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투쟁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민주공화제의 명성을 저버렸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현상을 민주공화제가 가져온 결과라고 옌푸는 생각하면 분명히 인과관계를 뒤집었다. 신해혁명 후 중국의 민족위기가 실질적으로 완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민족독립을 확보하고 세계대전에 대비하기 위해 옌푸는 정부가 권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하면 일리가 있지만 공화제보다 전제가 더 좋다고 이야기하면 조금 무리이다. 왜냐하면 전시내각을 비롯한 정부권력의 강화가 꼭 전제집권의 강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국의 입헌군주제를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의 "준(準)공화제"라고 볼 수 있다. 공화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입헌군주제의 국가원수가 고정불변이다. 옌푸가『법의』를 번역할 때 평가한 것처럼 "어떤 국가의 제도를 보자. 그 나라는 겉으로는 군주제이고 실질적으로는 민주제이다."[366] 여기에 가리키는 이 나라가 바로 영국이다. 장훈이 폐위된 황제를 다시 복위시킨 후 옌푸는 이번에 국가원수만

363「民國初建, 政府未立, 嚴子乃為此詩」,『嚴複集』,p.380; "美人其不來, 烏啼蜃窗白."
364「與熊純如書」,『嚴複集』,p.665; "吾國現有參、眾兩議院, 率皆毫無價值之人."
365 蔡濟民著,『書憤』, "無量頭顱無量血,可憐購得假共和."
366『法意』,商務印書館, 1981, p.101; "試與觀某國之制. 夫某國者, 名君主而實民主."

고정시키기만 하고 그 외에 공화제와 똑같다고 전국 국민에게 전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하였다.

> “조정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먼저 헌법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국회를 모집한단다. 겉으로는 낡은 제도를 복귀시키지만 실제로는 오직 국가원수만 고정한다는 사실을 꼭 남북의 민을 알게 해 줘야 한다. 그렇게 하면 향후 끊임없는 대통령 선거의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혼란의 조짐도 억제할 수 있다. 다른 것은 공화국체와 똑같다.[367]
> (朝廷明降德音，首議憲法，次集國會，務使南北之民，知此事名復舊制，實則不過使元首之位定於一尊，而無繼續選舉總統之煩擾，于以休養生息，遏亂萌，至於其餘，則與共和國體等耳.)

일반적으로 한 국가는 하나의 정치제도만을 채택할 수 있다. 입헌군주제와 민주공화제는 다 민주정치에 속하지만 구체적으로 선택할 때 마치 서로 용서할 수 없고 배척하는 관계인 것 같다. 민주공화제를 배척하는 이유가 동시에 입헌군주제를 지지하는 이유가 되기 일쑤이다. 민주정치의 구체적인 형식에 대해 그는 평생토록 영국식의 입헌군주제에만 고수하고 공화제라는 정체를 배척하였다. 무술변법 때부터 민국초기까지 옌푸는 중국정치가 변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의식하고 있었지만 신해혁명 후 민주공화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였다. “오늘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슨 방법으로 공화에서 탈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368] 또 “오늘의 고통은 민주공화를 이루고 싶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있다.”[369] 만약 중화민국 성립 전의 왕조체제 하에 옌푸의 주장이 나름대로 정당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중화민국 성립 후에도 여전히 입헌군주제를 원하고 입헌군주제와 공화제의 차이점을 의식적으로 구분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 이 때 적합한 “군주”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실망하면서 어떻게 공화제에서 빠져 나오느냐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차라리 민주공화제를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하느냐에 대해 잘 생각하는 것이 더 의미적이다.

다른 한편 한 재미있고 생각할 만한 현상은 중일양국이 루소사상을 수용한 후 나타낸 다른 반응이다. 즉 서구에서 수용한 루소사상은 중국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왜 일본에서는 중국만큼 그리 큰 반향을 야기하지 못했을까? 사실 중국은 일본으로 파견된 유학생을 통하여 일본에서 루소사상을 많이 알게 되었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367「與陳寶琛書」,『嚴複集』,p.504
368「與熊純如書」,『嚴複集』,p.646;“今日最難問題，即在何術脫離共和.”
369「與熊純如書」,『嚴複集』,pp.711-712;“今之所苦，在雖欲不為共和民主而不可能.”

결과는 이런 이상주의적이고 급격하고 심지어 폭력혁명과 천연적인 연계가 있는 듯한 루소사상이 일본에서는 수용한 후에 왕권을 타도하는 데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서 중국에서는 오히려 왕권을 타도하기 위해 신해혁명을 비롯한 여러 번의 혁명을 야기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1882 년 일본인 나카에 조민(中江兆民)이『사회계약론』을 번역하여 발행했을 때 일본은 이미 메이지 유신을 거쳐서 입헌군주제의 길에 들어섰지만 중국은 1898 년 공식적으로 출간했을 때 여전히 전주군주제이었다. 물론 일본의 선변혁·후수용(先變革後收容)과 중국의 선수용·후변혁(先收容後變革) 모델이 순서의 차이로 인해 다른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있지만 겉으로 보기가 비슷한데 본질적으로 다른 중일양국의 전통적인 군주제도 크게 작용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중국이 역성(易姓)혁명으로 왕조를 바꿈으로써 여러 번 정권이 바뀌는 것을 실현한 경험과 달리 일본의 정치구조는 천황이 오래도록 하나의 혈통이었고 정치권력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황실의 성이 바뀌는 것은 불가사의이었다. 일본의 천황제는 신도교 등 종교적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신처럼 존경과 예우를 받아오지만 중국의 군주제는 종교적 요인과 크게 관련되지 않고 새로운 왕조를 수립한 후 자신의 통치를 위해 능동적으로 합법성을 찾아야 하곤 하였다. 일본의 근대 이전에 일본인은 대부분 혁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탕왕과 무왕을 주군을 죽인 대죄인이라고 했다.[370]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일본은 혁명에 대한 관념도 상당한 차이가 났다. 서양의 충격이 도래함에 따라 일본 지식계에서는 중국어의 “혁명”에서 성을 바꾸는 것과 왕조 교체의 의미를 제거하고 사회질서의 근본적 변화와 진보라는 의미로 이 용어를 응용하였다. 1866 년에 간행된『서양사정』에서 후쿠자와 유키치는 현대적 의미의 “혁명” 개념을 사용하였고 메이지유신을 “혁명”이라고 불렀다.[371] 중일간 군주제와 혁명을 비롯한 중요한 개념을 비교함으로써 루소사상에 대해 수용한 차이를 알아볼 수 있으면서 입헌군주제의 수립이 국내의 정치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기도 하다.

입헌군주제를 끊임없이 주장한 옌푸는 전제군주제를 반대하고 민주와 자유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애국주의자이다. 물론 그의 사상 중 논의할 만한 점이 많지만 그가 소개해 준 진화론, 자유민권, 제한된 정부, 다수의 통치, 지방자치 등 일련의 정치주장은 중국근대 정치사상사의 내용을 다양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전제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계몽교육을 실천하는 데에도 큰

370 王家驊,『儒家思想與日本文化』,杭州：浙江人民出版社, 1990, p.202

371『관념사란 무엇인가-2 관념의 변천과 용어』,진관타오.류칭펑 지음, 양일모 등 옮김. (푸른 역사 출판사: 2010),pp.458-459

공헌을 바쳤다. 특히 옌푸가 중국에게 가져온 진화론은 청말 시기에 민족위기를 깨닫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면서 개혁파에게나 혁명파에게나 깊은 영향을 끼쳐 주었다. 민국 시기의 신문화운동 때에 사상사를 평가하기 위해 점점 많이 사용되는 헥슬리를 대표로 하는 불가지론(ag·nos·ti·cism)과 듀이(Dewey)를 대표로 하는 실증주의(positivism)적 방법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강화하는 데에도 정초를 다진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가 열심히 해결하려는 국민수준의 향상 및 국민성 개조 등 문제는 지속 가능적 발전을 도모하는 어떤 나라에게도 진지하게 생각할 만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1 차자료(嚴復著,1981 商務印書館)

번역작:

『天演論』（천연론）*Evolution and Ethics,* T.H. Huxley
『原富』(국부론) *An Inquiry into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Adam Smith
『群學肄言』（군학이언）*The Study of Sociology,* H. Spencer
『群己權界論』（군기권계론）*On Liberty,* J.S. Mill
『社會通詮』（사회통전）*A History of Politics,* E. Jenks
『穆勒名學』（밀의 명학）*A System of Logic,* J.S Mill
『名學淺說』（명학천설）*Logic the Primer,* W.S. Jevons
『法意』（법의）*L'esprit des Lois,* C.L.S Montesquieu

원전:

『嚴復集』, 1986, 王栻主編, 中華書局
『嚴複集 補編』, 2004, 孫應祥 皮后鋒編 福建人民出版社

2 차자료:

중국어:

(단행본)

蔡元培, 1932,『五十年來之中國哲學』
周振甫, 1940『嚴複思想評述』, 中華書局
史華茲（Benjamin Schwartz）1996『尋求富強-嚴複與西方』,江蘇人民出版社, 葉鳳美譯
王遽常 , 1981,『民國嚴幾道先生復年譜』, 台灣商務印書館
牛仰山 孫鴻霓, 1990,『嚴複研究資料』, 海峽文藝出版社
李澤厚, 1979,『中國近代思想史論』, 人民出版社
李澤厚, 1982,『論嚴複與嚴譯名著』, 商務印書館
郭正昭, 1976,『中國歷代思想家』, 臺灣商務印書館
張志建, 1995,『嚴複學術思想研究』, 商務印書館
劉桂生, 1999,『嚴複思想新論』清華大學出版社
黃克武, 1996,『嚴複晚年思想的一個側面：道家思想與自由主義會通』允晨文化
黃克武, 1998,『自由的所以然-嚴複對約翰彌爾自由思想的認識與批判』允晨文化
皮後鋒, 2010,『嚴複評傳』, 南京大學出版社
皮后鋒, 2003,『嚴複大傳』, 南京大學出版社

黃瑞霖(編) 2008,『嚴複思想與中國近代化』,海峽文藝出版社
陳越光, 1985,『搖籃與墓地』四川人民出版社
徐立亭, 1996,『晚淸巨人轉：嚴複』, 哈爾濱出版社
李承貴, 1997,『中西文化之會通』江西人民出版社
俞政, 2003,『嚴複著譯硏究』, 蘇州大學出版社
習近平(編), 2003,『科學與愛國：嚴複思想新探』淸華大學出版社
王忠江, 1991,『嚴複與福澤渝吉：中日啓蒙思想比較』河南大學出版社
孫慶祥, 2003,『嚴複年譜』, 福建人民出版社
小野川秀美(著),林明德, 黃福慶(譯), 1982,『晚淸政治思想硏究』, 時報出版公司
蕭公權, 1980,『中國政治思想史』臺北:中國文化大學出版部
荊知仁, 1984,『中國立憲史』臺北:聯經出版事業公司
『共和國的追求與挫折-辛亥革命與中華民國的成立』,1992,香港:商務印書館
林志鴻, 2009,『民國乃敵國也-政治文化轉型下的淸遺民』,臺北：聯經出版事業股份有限公司
王家驊, 1990,『儒家思想與日本文化』,杭州：浙江人民出版社

(논문)
董小燕, 2006『嚴複政治思想硏究』, 浙江大學出版社
楊陽, 2009,『富强抑或自由-嚴複憲政 思想 硏究』, 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王建龍, 2010,『長治久安：理念, 制度及其推進-嚴複政治哲學硏究』,上海人民出版社
鄭宗偉, 2011,『嚴複政治思想硏究』,福建師範大學『哲學與人文科學輯』
付譯文, 2007,『嚴複近代國民素質思想硏究』, 首都師範大學
夏忠龍, 2002,『嚴複自由觀及其理論意義探微』, 黑龍江大學

한국어:
(단행본)
벤저민 슈워츠 지음, 최효선 옮김, 2006『부와 권력을 찾아서』, 한길사
양일모 지음, 2008,『옌푸: 중국의 근대성과 서양사상』, 태학사
양일모 옮김, 옌푸 지음, 2009,『정치학이란 무엇인가: 중국의 근대적 정치학의 탄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양일모, 이종민, 강중기 옮김, 옌푸 지음, 2008『천연론』, 소명출판
진관타오. 류칭펑 지음, 양일모. 송인재. 한지은. 강중기 옮김, 2010,『중국 근현대사를 새로 쓰는 관념사란 무엇인가』(1 권과 2 권), 푸른역사출판부
장인성 지음, 2002,『장소의 국제정치사상-동아시아 질서변동기의

요코이 쇼난과 김윤식』, 서울대학교출판부

(논문)
양일모,1992,『옌푸의 서학 수용방식과 개량주의적 한계』, 『철학논구』 제 20 집
양일모,2006,『중국의 근대성 문제와 천연론』, 『중국학보』, 제 53 집, p.402-423
양일모,2001,『자유를 둘러싼 유교적 담론』-옌푸, 장지동, 하계의 논쟁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 52 집, p.20-38
양일모, 2002,『J.S Mill 과 근대중국』, 『대동철학』, 제 17 집, 2002,
양일모,2004,『근대 중국의 서양학문 수용과 번역』, 『시대와 철학』, p.119-152
양일모,2006,『자유의 조건: 옌푸의 원부, 군기권계론, 정치강의 분석』,『중국학보』, 제 60 집, p.466-485
양일모,2007,『동아시아의 사회진화론 재고-중국과 한국의 "진화"개념의 형성』,『한국학연구』, 제 17 집, p.89-119
양일모,2007,『옌푸의 근대성 인식』, 『동양철학연구』, 제 52 집, p.42-65
신희원, 1970,『옌푸 연구-그의 생애와 사상』,『이대사원』 9
김종윤,2012,『청말 개명전재론』, *the Society of China Culture in Korea,* p.276-300
신우철,『근대입헌주의 성립사 연구-청말 입헌운동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제 35 호, p.269-254
강중기,2008,『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중국현대문학』제 47 호, p.254-262
장현근,2000,『옌푸의 자유주의 이해』, 정치사상연구, 2 집, p. 119-142
김준형,2004,『옌푸의 자유주의 수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중국철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4
조경란,1994,『진화론의 중국적 수용과 역사인식의 전환-옌푸, 량치차오, 장병린, 노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전공 석사학위논문
우남숙,2012,『하버트 스펜서와 옌푸-지, 덕, 체론의 사상적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46 집,제 5 호, p.26-49
유명종,1990,『중국근대정치사상』, 대구:이문출판사

영어:
(단행본)
Benjamin Schwartz, 1964, *In Search of Wealth and Power-Yen Fu and the Wes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Howland, Douglas, 2005, *Personal Liberty and Public Good-the Introduction of J.S Mill to Japan and China*, University of Toronto Press
James Reeve Pusey, 1983, *China and Chaerles Darwi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Isaiah Berlin, 1969,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ouglas R. Reynold, 1993, *China, 1898-1912:the Xinzheng Revolution and Japan* , Harvard University Press

일본어:

(단행본)
李暁東, 2005,『近代中国 の 立憲構想 : 厳復 ・ 楊度 ・ 梁啓超 と 明治啓蒙思想』法政大学出版局, 2005,
區建英, 2009,『自由と国民 厳復の模索』, 東京大学出版會
小野川秀美, 1960,『清末政治思想研究 』, 東洋史研究會

Abstract

This research aims at systematically exploring Yan-Fu's political opinion and showing transformative figure of the Western thought in China and Yan-Fu's complicated mental activity through the representative thinker Yan-Fu(1854-1921) at the end of the Qing Dynasty. By extension, the research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in depth the process about how the modern Chinese intellectuals accepted the Western thought and modern times of the East Asia including Korea.

As for China, before the revolution of Xin-Hai, building constitutional monarchy through moderate way like reform or democratic republic through fierce way like revolution became a big point of dispute. Facing this selection Yan-Fu asserted constitutional monarchy and disapproved of the democratic republic through revolution all his life. This research will concentrate on the core question-"Why did Yan-Fu so sincerely adhere to the constitutional monarchy?" By exploring the consistency of his political opinion, it will not only contribute to investigating the question about the continuity of political thought, but also understanding the overall context and transformative process of the history of thought about modern and contemporary China.

This research will be divided into 4 core parts about the historical context of constitutional monarchy at the end of Qing Dynasty, Yan-Fu's view at despotic politics, Yan-Fu's conception for constitutional system and Yan-Fu's opinion about the constitution dispute of country. And the research will dig deeply into the core question step by step with the method of time-series analysis. At the same time, for exploring the core question as completely as possible, there are 4 small questions which will be connected to the core question, namely, "Why did Yan-Fu so prefer the British constitutional monarchy?", "Why didn't the persons who supported constitutional monarchy cooperate with each other at that time?",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Yan-Fu's holding and the adherents of Qing Dynasty's obsession?" and "Compared with China, why the thought of Rousseau didn't create a big reverberation in Japan?". In addition, the research will investigate the core question from 4

dimensions, namely, linguistic aspect, realistic environmental aspect, ideological aspect and methodological aspect.

Gradual transformation according to historical experience and the thought of evolution according to personal liberty are the most obvious 2 characteristics. Even though his political opinions were not implemented, his reasonable propositions which are applicable to modern society will not be denied and provide us some reflections for modern political reform and development.

Key Words: Yan-Fu, Quality of the Nation, Evolution, Gradual, Education, Local Self-Government, Constitutionalism, Xin-Zheng, Republicanism, Revolution, Autocracy, Liberty, Thought of Rousseau, Induction(Wai-Zhou)

Student Number: 2013-22441